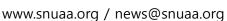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제300호 2019년 4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김원영

미주 동창회보 300호 발행, 동문께 깊이 감사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보 창간호 (1993년 6월 15일 발행)



이종도 (공대 66) 창간 당시 사무총장

동창회보 창간 발행을 회고하며

그간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의 정보 교환 과 유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회보가 지 난 25년간 계속 발행과 발전을 거듭하여 어느덧 300호에 즈음하고 있음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자축함과 동시에 남다른 감 회를 느낀다.

>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 회장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경애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이번 4월호 회보가 300호가 됩니다. 25년 을 꾸준히 발행해온 셈입니다. 아무런 재 정 뒷받침이 없이 막연하게 동문들의 선 의를 믿고 출범하여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 들의 회비로 충당되는 회보 발행은 '회비 자체'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근래 수년간 약 1,000명의 동문들이 연간 75불의 회비 를 내오고있는데 현재 매달 6,000부 정도 를 발행, 발송하는 경비의 반년치도 채 되 질 못 합니다. 나머지는 동문들의 후원금 과 회장들의 도네이션으로 모자란 경비가 충당되니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왔으니 세상에 불 가능은 없다" 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이다.

첫째는 원고가 부족합니다.

우리 회보는 일반 신문과는 달리 독자가 투고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 렵습니다. 또 정성스럽게 원고를 보내주시 는 동문들은 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분의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불평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 로는 다른 소스(예: 서울대, 총동창회보 등) 에서도 '펌'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만 될 듯합니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보 발행의 인 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예산이 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인력을 투입할 수 가 없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기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편집장인 김원영 동문이 원고도 모 으고 디자인도 모두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나 편집 회의 때마다 참석 하는 15명 내지는 20여 명의 동문들이 의 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미주 동창회도 재정이 확보 되어서 위에서 말한 것이 가능하기를 바 라는바, 서울대 미주동창회 기금, 즉 SNU-AAUSA CENTURY FOUNDATION의 목표액 (3백만불)이 달성되는 날에는 그러한 꿈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990년대초 당시 서울대학교 조완규 총장 께서 미주 각 지역 동창회 간의 단합과 본 국 동창회와의 유대를 위하여 미주총동창 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약속하시어, 그 행동 지침으로 미주 서부(로스엔젤레스) 지역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시던 김영기 (공 대 55) 회장님과 동부(워싱턴 DC)에서 지 역 동창회장을 역임하셨던 박윤수(문리 48) 회장님과 상의하셔서, 김영기 회장님

으로 하여금 '서울대 총동창회 재단'을 구 성하시고, 박윤수 회장님은 '재미 서울대 학교 총동창회' 초대회장으로 모시어, 오 늘날 본 동창회가 창립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당시 필자는 김영기 이사장님을 모시고 재 단 사무국에서 봉사하던 중, 넓은 미주 전 역에 사시는 많은 동문들의 소통과 단결을 위하여 우리만의 동창회보의 필요성을 강

>> P 3 아래 계속

제28차 평의원 회의, 뉴욕

2019년 6월 21~23일 (금, 토, 일)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카네기 홀 축하 음악회, 6월 22일 오후 8:30

호텔 예약과 음악회 등 자세한 안내는 P 18

미주 동창 회보 300호 기념 특집



박윤수 (문리 48)

초대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창립총회가 1991년 6월 1일에 워싱턴 DC 근교에서 조완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후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전 미국지역에 산재한 동문들을 한 기관 속에 묶어 보 겠다는 의욕으로 창립총회에 모여든 워 싱턴. 남가주,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 고 등, 지역의 동문 50여 명의 열성을 상 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은 30개의 지역 동창회를 가진 전국 동창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동문 여러분 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동창회의 첫째 목적은 동문 간 의 친목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데 있고, 둘째는 모금을 통해 기금을 작성해서 모 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문들이 친목을 통해서 동창회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동창회의 친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 지 사교적 행사를 통해서 친목을 촉진할 수 있으나 한편 이웃 봉사 사업에 참여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길러 가는 방법이

SNUAA-USA 발전을 위한 제언

있겠습니다. 장학 사업이나 이웃 돕기 운 동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지역의 특 성을 살려서 선택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 니다. 지역단체들이 하는 여러 문화, 사 회 사업에 참여 또는 공동 주최로 서울 대학 동창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 봉 사단체 참여를 통해서 동문들이 친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처음 동창회가 창설될 때는 확실히 "모 교 발전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발전 기금에는 여러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미주동창회 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택해 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창 설 당시 제안된 안건 중에는 미국에 연 수하러 오는 교수나 박사 후 과정을 밟 아온 연구원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지역 사회 단체참여를 통 한 친목의 육성, 2. 동창회 기금의 효과적 인 관리 활용, 3. 젊은 세대 동문들의 참 여유도. 세가지 vision을 추진 하기를 제 언합니다.



손재옥 (가정 77) 13대 회장

2019년 4월에 300번째 동창회보를 발간 하게 됨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주동창회를 위해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 그리고 윤상 래 회장님 및 현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여명의 회원들이 보 내 주신 회비와 후원비로 동창회가 25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25년 전 1994년 4월은 저에게도 큰 의 미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1994년 4월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지 일년 차 된 남 편과 함께 집차고를 개조한 오피스에서 파트타임 도면기술사와 함께 구조설계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적과 같은 25년을 보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 지만 현재는 50명의 직원 그리고 미국내

축하합니다

세 지역에 지부를 두고 필라델피아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주동창회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26개의 지부 를 두고 7,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일년 예산이 \$250,000 이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 다. 회장을 중심으로 지부 임원들이 협 력해서 2년씩 임기를 성실히 수행해 왔 습니다.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서 특히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동문 간의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제는 80학번 이후 동문들의 보다 적극 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13대 회장이 되었을 때 가장 중점을 두



이영묵 (공대 59)

8대 회장

만시지탄이라고 할까요. 나의 생각을 차 기 회장단에게 인계했으면 합니다. 회보 를 보지 않아도 이항렬, 백 순 두 분의 글 로 시작되겠지요. 마치 신문사가 사설과 오피니언 난을 통하여 일방통행으로 독 자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피로감을 나만 느꼈을까요.

동창회보는 신문과 다르겠지요. 예를 들 자면 백 순님이 본인의 글은 일 년에 한 번 싣고 나머지는 미주는 물론 한국까 지도 두루 살펴 매일 다른 얼굴로 경제 에 관한 기사를 실리도록 했으면 했지요. 정치에 관해서는 더욱더 목소리 내기 를 원하는 동문들이 많겠지요. 회보 편 집자가 너무 울타리 틀 속에 빠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회신 미

300호 | **2019년 4월 호**

좋은 하루하루 보내십시요.

안합니다.

발전을 위한 제언



오인환 (문리 63) 12대 회장

지역동창회 간에 좋은 점들을 서로 벤치마킹하며 함께 발전하자.

회보 발행 300호 발행에 즈음하여 제14 대 윤상래 회장단 편집위원회에서 시기 적절한 기획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제 12대에서는 집단 의식과 집단 지성을 시 대정신으로 잡고 동창회의 번영을 꾀하 였던 기억이 납니다. 모래알 같은 서울대 동문들이 뭉치려면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서울대 미주 동창 회가 영구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면 회장 단과 임원들이 젊어져야 하는데 별 진전 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지역동창회에 따라서는 세대교체 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수도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지난 2004년 (필자가 지역회장)부터 육 학번), 2018년부터 샤로수 모임 (2000학 번과 그 이후)을 육성하고 있어서 이제 는 두 모임이 합동 모임도 하고 있으며 피크닉, 총회, 송년회를 할 때면 전체 참 가자의 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서 세대 교체가 잘 일어 나고 있습니다. 아크로폴 리스 모임은 이제는 자력으로 저녁비용 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제 막 시작한 샤 로수 저녁 모임 때 드는 비용은 워싱턴 동창회 전임 회장님들 중에 3-4명이 자 원하여 동참하고 교류하며 비용을 해결 하고 있는데 자원하는 전임회장님들은 다음 모임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해 온 아크로폴리스 모임 (1980-1999

워싱턴 동창회 경험으로는 다른 지역 동 7

고 노력한 것은 개별 회원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회 비와 후원금 참여에서 동창회에 대한 관 심을 느꼈고 서울대인의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름답고 오래 지속 되는 공동체로서 선후배 간의 거리를 좁 히고 동문들의 인생과 인격을 존중해야 겠습니다. 80세가 되어도 배우고 은퇴 후 에 지역동창회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 시는 선배님들의 열정에 저도 같이 동참 하는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던 지역동창회에 2년간 봉사하고 그 후 미주동창회에 2 년간 봉사하니 이제는 훌륭하신 선후배

님들과 관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 주 는 아름다운 관계를 얻었으며 저의 삶 이 그만큼 더 풍부해졌습니다. 어느 일 이나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간과 성 의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봉 사는 참관계를 이루어 주는 기반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은 곧 우리의 발전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모교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4월에 한국의회 100 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역 사의 흐름 속에서 한 순간임을 되새기며 미국에 흩어져 사는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 동창 회보 300호 기념 특집



김은종 (상대 59) 11대 회장

감사한 마음을 전함

수고 많이 합니다. 삼월 마지막 날 집 앞 의 Rainbow Harbor에 나갔다가 만난 바다는, 겨울이 지난 다음 여름이 가까 이 옴을 알리듯 짙은 푸른색을 띄고 씩 씩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지만, 다정하게 품에 안기었다. 마치 누구처럼

윤상래 회장을 위시한 임원들이 "서울대 학 미주 동창회"를 성심껏 잘 이끌어 주 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더욱이나 적

를 거두었고 우리 동창회의 위상을 잘 보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숙원인 재정자립은 모든 회원들의 더 깊고 넓은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일로 앞 으로 "서울대학 미주동창회"를 이끌 회 장님들이 이루어야 할 숙원사업이다. 좋 은 글들을 보내서 동창회보를 풍성하게 해 주신 동문님들도 계속해서 기고해 주 실 것을 기대한다.

서 윤상래 회장님이 또한 잘 해내셔서

대도시만 해야 된다는 개념은 불식되었

다고 느껴지는데, 중소도시로 돌다 보니

역으로 4개 대도시 동문회 (남가주,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에서는 언제나 차례

가 오나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

결국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지역동창회

는 활동이 젊은 동문들에게로 전이 되

어야 하고 미주동창회 회장단이 옮겨 다

녀야 함과 동시에 재정적 확립을 이루어

야 하는 영구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고

가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행하고 있다.

은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

창회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추천 하고 싶습니다.

미주동창회 회장단을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 (한인 인구수로)로 옮겨서 운 영해 보는 실험을 지난 제13대와 현 제 14대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였다는 생각

제13대에서는신세대(?) 77학번 손재옥 회장님이 한인 인구 중소도시 Philadelphia에서 처음 테스트 케이스로 맡았었 고 잘 해 내셔서 많은 동문들의 걱정을 불식시켰고, 또다른 중소 도시 Boston에

>> P 1으로부터 조하셨던 김 이사장님의 지도 에 따라, 창간호를 발행하기로 하여, 6,000 부를 성공적으로 인쇄하여 캐나다를 포함 미주 전역과 본국 동창회 본부로 우편 배 포하였다.

당시 김영기 선배님 이하 여러 동문, 선배 님들의 격려와 보살핌, 덕분에 당시 젊었 던 필자의 편집, 인쇄, 그리고 배송과정에 서의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했던 것으로 기 억한다. 한 예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많 은 조언과 협조를 주셨던 조재길 (사대 61, 전 세리토스 시장) 선배님과 그당시의 인 연은 25년이 지난 요즘도 각별히 가까운 선후배로 지내고 있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재단'에서 2년 여간 발간되었던 동창회보는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제2대 강수상 (의대 47)회장이 계 신 시카고를 거쳐 제3대 이병준 (상대 55) 회장이 계신 로스엔젤레스로 오는 동안 계 속 신문 발행이 이어져 왔다. 이즈음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재단'은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에 통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 고 있고 그후 회보도 미주총동창회가 발

이 기회에, 창간호 발행 그리고 그 이후에 도 미주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사재를 쓰 시며 실행에 옮기셨던 김영기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쉽과 사명감에 모든 공로를 드 리고 싶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때 그 분의 꿈과 정열이 씨앗이 되어 300회 발 행을 하는 동안 오늘날 서울대 미주총동창 회 발전에 큰 기여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와 함께 기뻐하실 것이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aa.org / www.snuaa.org

동창회보 4월호 (300호) 편집회의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영인, 고종성, 김원영, 정태영, 김병국, 정한웅, 이상운, 백문성, 김제성, 이정수 장수인, 배지선, 정선주, 고일석, 윤상래 회장, 김은한, 박영철, 이강원 동문

【기사: 김원영】

3월 23일 토요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4월 호(300호)를 위한 편집회의가 열렸다. 열여 덟 분의 편집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 서 300 모양의 촛불이 올려진 축하 케잌 커 팅을 했다. 축하 단체 사진도 찍었다. 회의 첫 순서인 4월호 드레프트 설명 후, 구체적 으로 300호 특집에 대한 논의를 했다. 참석 위원 모두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고 결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회보 커버에 창 간호 이미지를 구해 올리기로 했다. 그런 데 창간호를 구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거 의 포기할 즈음 어렵사리 그 이미지를 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e.org / news@snuae.org



미주 동창회보 300호 발행, 동문께 깊이 감사



동창회보 창간 발행을 희고하며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을 꾸준히 발행해온 성입니다. 아무런 재 정 뒷받침이 없이 막연하게 동문들의 선 의물 민고 출범하여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들의 회비로 중당되는 회보 발행은 회비 다채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근래 수년간 약 1,000명의 동문들이 연간 75불의 회비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왔으니 세상에 불

께서 미주 각 지역 동창회 간의 단합과 본

교육 유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회보가 지 명은 격리와 지원을 약속하시여, 그 형동 난 25년간 계속 범행과 발전을 가듭하여 지원으로 미주 서부(로스앤젤레스) 지역 어느닷 300호에 즈용하고 있음에 동문의 중용장화장으로 봉사하시던 감영기 (공

생습니다 또 정성스럽게 원고를 보내주시 등 동문들은 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분의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불평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마도 앞으

는 다른 소스(예: 서울대, 총동창회보 등

서도 '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만 1

돌재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보 발행의 인 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매우 점든 일이나 편집 최의 때마다 참석

국 동창회와의 유대를 위하여 미주종동장 한고 총동창회·조대회장으로 모시어, 오 그간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의 정보 교황 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룹 위하여 늘날 본 동장회가 장립되고 활성화되는

제28차 평의원 회의, 뉴욕 2019년 6월 21~23일 (금, 토, 일)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 카네기 홀 축하 공연, 6월 22일 오후 8:30

호텔 예약과 공여 등 자세하 아내는 p 13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300호 | **2019년 4월 호** 300호 | **2019년 4월 호**



윤기향 (법대 65)

지난 3월 22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사람들 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년 만기 재무성증권에 대한 금리(만기수 익률)가 3개월 만기 재무성증권에 대한 금 리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금리 역전현상은 3월 22일 에 나타나기 시작, 5거래일동안 계속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장단기

금리역전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역전 현상 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블길한 징조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연 미국 경제에 R (recession, 경지침체)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 는 것일까? 리세션은 실질 GDP (국내총생 산)가 2분기 이상 연속해서 감소하는 현상 을 말한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미국의 주가 (다우존스)는 2018년 10월 3 일 지금까지의 최고 수준인 26,828.39를 기 록한 후 한때는 21,792.20 (12/24/2018)까지 떨어졌으나 곧 조정국면을 거쳐 2019년 4 월 12일에는 다시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26,412.30까지 치고 올라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증권시장의 호황장세는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호황국면은 다우존 스주가지수가 도입된 1884년 이후 가장 긴 성장세이다.

또한 그동안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몰고온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협상도 곧 타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4월 안으로 타결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계경제에 걸림돌 이 되고 있는 불안 요인은 영국의 브렉시트 (Brexit, 영국의 EU 탈퇴)다. 당초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의회에서 비 준이 부결됨으로써 그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 왔는데 4월 10일 열린 EU 긴 급정상회담에서 EU와 영국정부가 브렉시트 를 금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으로써 브렉시트 위기는 일단 봉합된 상태 다.

이러한 상황에서 R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는 것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금리역전 현상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1961년 이후 미국에서 일곱 번의 리세션이 발생했는데 한 번만 제 외하고 어김없이 금리역전이 선행했다. 왜 금리역전 현상이 미래의 경기상황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수익률곡선 (yield curve)을 살펴볼 필요가 있 가파를수록 경기호황 또는 경기침체의 가 다. 수익률곡선은 채권의 만기와 그에 상응 하는 만기수익률을 연결해서 얻게 되는 곡 선을 말한다. 만기수익률 (yield to maturity, YTM)이란 이자율의 한 종류인데 만기이자 율이라고도 불린다. 만약 투자자가 10년 만 기 채권을 살 경우 그는 매년 고정된 이자를 10년 동안 받게 되며 만기에 가서는 원금을 지급받는다. 매년 받게 되는 고정 이자와 만 기에 받게 되는 원금 (미래 현금흐름)을 채

미국에 R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가?

권의 현재가격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이 자율이 바로 만기수익률이다.

우리가 채권을 살 경우 대체적으로 1년 만 기 채권보다는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고 2년 만기 채권보다는 3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수 익률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수익률을 종축에, 그리고 채권의 만기를 횡 축에 표시해서 채권의 만기와 그에 상응하 는 수익률을 연결하면 우리는 우상향하는 곡선을 얻게 되는데 이를 우상향 수익률곡 선이라고 부른다.

전후 미국금융시장에서 관찰된 수익률곡선 의 대부분은 우상향하는 수익률곡선이다. 흔치는 않지만 가끔 우하향하는 수익률곡 선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수평적인 수익 률 곡선이 나타나기도 하며 다른 모양의 수 익률곡선이 관찰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 수익률곡선이 경기예측의 수단

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수익률곡선의 형태와 기울기가 앞으로의 경기 전망과 관 련해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수익률곡선은 어느 다른 경 제예측 도구보다 사용하기가 간단하고 예 측도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의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기대이론에 의하면 장기 금리 (예를 들면 10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에 대한 수익률)는 앞으로 10년 동안 기대되 는 단기금리 (예를 들면 1년 만기 미재무성 증권에 대한 수익률)의 평균치와 같다. 앞으 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 물 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단기금리도 오르 게 된다. 장기 금리는 이러한 예상 단기금리 의 평균치와 같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며 우리는 우상향하 는 수익률곡선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우상 향하는 수익률곡선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 질 것이라는 시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앞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 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단기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기 대한다. 그 결과는 장기금리의 하락으로 나 타난다. 이 경우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익률 곡선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수 익률곡선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는 시장의 신호다.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장단기 금리가 역 전된다는 것은 바로 우하향하는 수익률곡 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곡 선을 역전 수익률곡선 (inverted yield curve) 이라고도 한다.

일부에서는 수익률곡선 그 자체보다 10년 만기 재무성증권에 대한 수익률과 3개월 만 기 재무성증권에 대한 수익률의 차이 (기간



서 량 (의대 63)

스크린 메모리

우리는 지난 날을 얘기한다. 어릴 적에 일 어났던 일을 언급하거나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퇴근 길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와 말을 나누기 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시대사조와 사회 풍조와 가정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심리적 으로 발육한다. 그렇게 지난 날을 벗어난 듯한 환자들이 내게 과거를 털어 놓는다. 그들의 현재가 과거에 받은 상처의 결과 라는 생각의 덫에 걸려서 나는 한 사람의 유전적 요인보다 그가 겪은 인생경험에 더 큰 관심을 쏟는다.

프로이트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원칙을 정신분석의 토대로 삼았다. 그러 나 현재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는 이론에 는 어딘지 아리송한 구석이 있다. 나는 현 재가 과거의 금단 없는 연속체라는 생각 을 떨치지 못할 때가 많다. 세 살 버릇 여 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은 그토록 긴 세 월을 한 사람의 버릇이 변함없이 지속된 다는 뜻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세 살 때 쯤 체험했던 스트레스가 여든 살 노인네 정신상태의 원인이 된다고?

아내에 대한 소문 때문에 프랑스 귀족과 결투 끝에 총상으로 죽은 러시아 시인 푸 슈킨(1799~1837)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 를 속일지라도'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아 름다운 것이다"로 끝난다. 그는 과거가 아 름답다는 규정을 내린다.

우리의 기억은 현재라는 색안경을 쓰고 과 거를 진술한다. 나는 환자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때 그날그날의 기분상태에 따 라 다르게 묘사하는 장면을 숱하게 목격해 왔다. 같은 사건을 두고 장대비가 죽죽 쏟 아지는 오후에 언급하는 내 얼굴 표정과, 청명한 아침에 얘기를 꺼내는 내 태도가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한다. 과거 가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라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가 과 거를 창조하는 것은 아닐까.

스프레드)가 앞으로의 리세션을 예측하는 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다. 이번 3월 22일부터 5일 동안 발생한 금 리역전은 기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길한 신호이 다. 앞으로 미국경제에 리세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다행스레 "이번은 다르다"는 것이 나의 조 심스러운 판단이다. 이번의 금리역전은 '오 작동 경보'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경 기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률곡선의 약 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일 본, 유로존 등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는 데 이러한 양적완화 조치는 수익률곡선의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금리역전이 보다 쉽 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수익 률곡선이 앞으로의 리세션을 확실하게 예 측하기 위해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최소한 한 분기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단 5일 동안만 지속된 것도 리세션의 가능 성을 낮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후 경 제가 리세션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관해서 도 견해가 분분하다. 이전에는 금리역전 이 후 보통 3-4분기 후에 경기침체가 본격적으 로 진행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이도 확실치 않다.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의 금리역전은 리세션 의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라기보다는 경기둔화 (slowdown)가 오고 있다는 것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포크너 (1897~1962)가 남긴 소름 돋는 명언이 있 다. --- The past is never dead. It's not even past. ---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과거는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는다. --- 그렇다. 우 리는 늘 과거와 공생(共生)한다

프로이트는 '스크린 메모리(screen memory)'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친다. 어린애 가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사실에서 약간 동떨어진 감각을 기억하는 메커니즘이다. 어떤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대신에 시 각적(visual) 이미지를 간직하는 것이다. 스 스로 아픈 마음을 경감시키는 방어책이 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심하게 손찌검을 받은 아기가 어른이 된 후 왠지 어머니의 하얀 손이 눈에 어린다던 환자를 본 적이 있다. 유아기에 받은 성적(性的) 충격도 이 런 식으로 남기를 잘한다

티 에스 엘리엇(1888~1965)의 시, 'Burnt Norton, 불타버린 노턴 맨션'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Go, go, go, said the bird: human kind / Cannot bear very much reality. / Time past and time future /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가라, 가라, 가라, 새가 말했다. 인간은 / 현 실을 잘 견디지 못한다. / 지난 시간과 미 래의 시간 / 있었을 듯한 일과 있었던 일 들이 / 늘 현존하는 하나의 종말을 가리키 는데 (본인 譯)

그는 시의 시작에서 현재와 과거가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에 내포돼 있 다고 선언한다. 되찾을 수 없다는 이유 하 나 때문에 좀 생소한 모습으로 변한 당신 의 과거가 스크린 메모리에 아름답게 남 는다. 그런 과거만이 우리의 현존이다.

LA 주민의회 선거를 계기로 본 시민의식

이서희 (법대 70)

Los Angeles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 민의회 (Neighborhood Council)의 의원후보 에 대한 투표가 최근 시행되었다. 매년 홀수 년에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제 도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금년에는 더욱 높아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Wilshire Center Korea Town Neighborhood Council의 경우는 4월 4일 26명의 의 원을 선출하게 되는 선거에 한인후보자 22 명이 입후보하여 16명이 선출되었다. 그리 고 2년전의 선거와 달리 올해는 투표참여자 가 4배 가량 더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추세 는 지역주민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전환되고 있 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Los Angeles 지역주민의회는 1999년의 시 헌장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 최소 20,000명 단위를 기준으로 각 주민의회가 지 역을 대표할 수 있고, 설립시에는 시의 공인 (certification)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Los Angeles시에는 96개 Council이 활동중이다. 주 민의회의 목적을 보면 시운영에 대한 주민 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하여 시 예산에 대한 토론기회, 시 이슈 및 프로젝트 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각 지역의 현안 즉 범죄, 도로, 갱, 경제문 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일 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느 누구 보다 그 지역에 대하여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os Angeles시는 지역에 따 라서는 노숙자 문제와 거리에 방기된 쓰레 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문제 를 시에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주민들 은 지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회에서 이 와 같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목 청을 높힐 수 있을런지 기대를 해봄직하다.

한인사회가 그간 겪은 사건을 돌이켜보면 1992년에 발생한 LA 4.29 폭동때 한인타운 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변해줄 수 있 는 한인인사가 부족하여 주류사회에 억울 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 다. 주류사회에서 한인을 대변해 줄 대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한인으로서 정계에 출마하는 후보 자에 대하여는 community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2018년에는 또 한차례 한인사회를 강타한

알려주는 신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교수 *연구 논문들이 세계 유수의 경제학술지 인 America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Finance, Macro-

사건이 있었는데, Los Angeles 10지구에 속 한 한인타운을 양분하여 북쪽에 속한 부분 을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하겠다는 시정부의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의사를 표시 한 한인 유권자가 18,000이었다는 놀라운 사 실은 주민들이 지역정치에 무관심할 것으로 생각한 시정부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노숙자문제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시행할려고 한 시정책에 항의하 여 Los Angeles의 최번화가인 Wilshire Blvd. 에서 수차례에 걸친 1000-2000명이 운집한 시위에 한인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숙자 쉘터가 한인타운 중심 지에 들어서는 것을 막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 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부당한 일에 대 하여는 합심하여 시정요구를 할 때 목적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참여의식의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통로인 주 민의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풀뿌리 (grass root)의 소리인 민의를 알려주는 역활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민의 참여의식 이 제고될 때 가능하고, 남이 대신 목소리를 내면서 해주기를 바라면 지역에 당면한 문 제해결은 지연 내지는 무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주민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참여, 선거 시 투표권 행사, 공청회에 참여하는 일들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내 목소리를 내게 됨에 따라 소속된 지역에 대한 애착심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곧 불 편한 일이 발생하면 시정부에 요구하는 마 음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적극적 인 시민의식 즉 시정부에 끈임 없는 신고 그 리고 시의 반응이 너무 느릴 경우에는 자신 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취하게 됨에 따른 시민의식의 함양은 밝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민역사가 이미 100년이 넘었는 것을 감안 하면, 미국에서의 삶 자체가 이제는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은 사 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주류사회속 한인의 진출이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참 여의식에 따른 현안해결은 또 다른 실질적 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전 제 14기 LA 민주평통 회장 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2014)

economic Dynamics 등에 다수 발표되었으 며 현재 Google 논문피인용 횟수가 437회에 달한다. 국내 저서로서는 <<시가 있는 경제 학>> (김영사), <<현대거시경제론>> (법문 사), <<증권의 논리, 투자의 예술>>(씨앗출 판사) 등이 있다.



정광수 (사회 80)

1989년 11월 어느 금요일이었다. 91세의 어 떤 노인이 캘리포니아주립대학병원 중환자 실에 입원한 것이 알려지자마자 Occidental Petroleum 회사의 주식가격이 28달러에서 31달러로 급등하여 주가총액이 3억달러나 늘어났다. 그런데 그 직후 월요일에 그 노인 의 건강상태가 위중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심장박동조절기 (pacemaker)를 정기정검했 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식가격은 급락하 여 이전 금요일의 상승을 거의 상쇄해 버렸 다. 그 노인은 다름아닌 Occidental Petroleum 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Armand Hammer였다. 젊었을 때는 성공적으로 회사를 경 영하여 존경받았던 것과는 달리 그 즈음에 는 많은 돈을 들여 개인소장 예술품 미술관 을 지으려하는 등 주주들이 반대하는 일들 을 하고 있었기에 주식시장은 그의 건강을 기업가치에 결부시켜 즉각 반응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식가격이 새로운 정보에 즉각 반 응하는 것을 보고 주식시장이 그만큼 효율 적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 정보는 현재 주 식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새로운 정보가 뜨 면 주식가격은 순식간에 반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 래의 새로운 정보를 예측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Data Mining 이니 Machine Learning이 니 하는 정교한 기법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Caltech대학교의 Leinweber 교수는 S&P 500 지수의 변동을 거의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발표해서 잠시 세 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Data Mining기법 을 이용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한 그의 결과는 놀랍게도 방글라데시의 버터 생산량 을 알면 S&P 500 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이 결과를 무모한 예측 모형에 대해 일침을 놓기 위해 발표한 것이 었다. 모형 설정에 사용된 표본기간에는 잘 들어맞았던 예측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는 형편없이 빗나갔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일찌기 1950년대초 영국의 저 명한 통계학자인 Maurice Kendall이 "놀랍게 도" 주식가격은 도무지 예측가능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수 많은 시도가 뒤따랐지만 아직 주식가격을 제대로 예측하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 다. 물론 그 방법을 찾은 이가 있더라도 세상 에 알릴 이유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예 측불능함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효율적인 데서 비롯된 오히려 당연한 현상 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편 주식시장이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는 정확성이 의심받을 때도 있다. 2016년 7월초 Nintendo회사가 Pokemon Go라는 휴대전화 기용 게임을 출시하자마자 순식간에 전세계 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고 그덕에 Nintendo 주가는 열흘도 안되어 거의 두배로 치솟았 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반응이었다. 많은 사 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Pokemon Go 는 Nintendo회사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게임에 몰두해 차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사 고가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자 Nintendo회 사는 출시 2주만에 자신의 책임소재를 명 확히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은 The Pokemon Company라는 회사의 것이고 자신들은 약간 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발 표했다. 물론 그 공표 직후 Nintendo주가는 크게 추락하여 주가총액은 65억달러나 감소 했는데, 이같은 수정된 정보에 대한 즉각적 인 반응 또한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보여주 는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효율성

작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다. 다른 중간 선거에 비해 여러가지 말도 많았 고 참여도도 높았던 이번 선거 직후인 11월 7일 주식 시장은 마치 전반적인 호재를 만난 듯이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 S&P 500 와 Nasdaq Composite 등 각종 주식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이는 유럽등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효 율적으로 작동하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 했다면 선거 결과가 기업들의 이익추구 활 동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였음을 의미 한다. 얼핏보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 주당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선거 전의 일 반적인 예측과 다름없는 선거결과에서 주식 시장은 무슨 새로운 정보를 파악한 것일까? 혹자는 민주당이 예산결정에 관여하는 하원 을 장악했으니 트럼프 정부의 급격한 또는 예상밖 정책변동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였다. 물론 이밖에도 갖가지 해설이 있었 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효율적인 주식시 장은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선거결 과 예측이라고 해도 선거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따르고 선거후에는 그 불 확실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번 주식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보다 적절한 설명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렇게 예측했던 것이 이제 기정 사실이 됨 으로써 이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만약 하원에 대한 선 거전 예측이 막상막하였었다면 선거직후 더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에 주식시장의 반응은 더 컸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일반적 인 예측과는 반대로 공화당이 하원도 장악 하게 되었다면 그 놀라운 새 정보는 주식시 장을 크게 요동치게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주식시장은 이미 예측된 것이 아닌 미처 예측되지 못했던 정도에 반응하며 이를 일 컬어 주식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Kwang Soo Cheong, Ph. D. Associate Professor

The Johns Hopkins Carey Business School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미주동창회 주최

2019 브레인네트웍세미나 보스턴에서 성황리에 개최

소강표 박사 '나노 공정을 이용한 기술', 고종성 박사(사대 '75) '폐암치료 신약 개발', 최찬혁 박사(의대 '57) '방사선 폐암 치료' 발표



BNW 세미나, 질의응답시간, (왼쪽부터) 고종성, 최찬혁, 소강표 박사

【기사: 홍보국장 이영인 (사대 74)】 미주동창회(회장 윤상래)는 지난 4월 6일 (토) 캠브리지 소재 매사츄세츠 공과대학 (MIT) 스테이타센터(Stata Center)에서 브레 인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 나는 보스턴 지역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작 년보다 많은 청중들이 참석하여 세미나장 을 꽉 메워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먼저 MIT에서 박사후 연구원(포스닥)으로 연구중인 소강표 박사(성균관대 석박사)가 나노 공정을 이용한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나노 공정을 이용한 기술은 그 용도 가 무궁무진한데, 일례로 순금에 이 기술을 이용하면 순금반지도 강하게 만들 수 있어 내구성이 요구되는 일상용 장신구로 만들 수 있다" 고 소개했다.

소 박사는 발표 서두에 재료와 물질을 연구 하는 나노 연구의 중요성을 물질 개발의 역 사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물질 개발이 역사에서 많은 전 쟁이나 문명 발전에 핵심 요소였다고 지적 하면서 향후 인류 발전이 물질의 개발에 달 려있다고 강조하였다.



BNW 세미나, 고종성 박사 발표

두번째 연사로 나선 제노스코(Genosco)사 대표 고종성 박사(사대 '75)는 '폐암치료 신 약 개발'에 대해 발표하였다. 고 박사는 각 인종이나 사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맟춤 형 신약을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아시 안에 맞는 폐암신약을 개발했다고 발표했 다. 그는 고도의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 이 러한 맟춤형 신약은 다른 약에 비해 부작용 이 적고, 암세포를 보다 정밀하게 조준 사 멸케함으로써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 다고 밝혔다.



BNW 세미나, 최찬혁 박사 발표

세번째 연사로 나선 매스제너럴 병원(Mass General Hospital) 최찬혁 박사(의대 '57)는 방사선 폐암 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최 박 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폐암치료에 평생을 연구한 이 분야의 권위자이다. 최 박사는 준



BNW 세미나, 최찬혁 박사 발표



BNW 세미나장

비한 도면을 설명하면서 양자를 이용한 방 사선 치료로 암 부위를 보다 정밀하게 제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 발표자들은 고종성 박사팀이 개발한 신약'이나 최찬혁 박사가 시술하는 '방사선 폐암 치료' 가 한국인에게 많이 찾아오는 폐 암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은 미세 먼지로 많은 질환이 발생하고 있으 며 특히 폐암은 차후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제 발표 후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세

근에 논의가 활발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 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황 교

수는 모교 천문학과를 졸업한 후, Univ. of

2019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5월 – 황현정 박사 (UW 경영학과 교수):

Social Network Services - Innovative use

▶ 6월 – 조수행 박사: 경영과학의 추세와

응용 - Business analytics and its appli-

of social media by business

cations

▶ 7월 – TBD

Southern Mississippi에서 Ph.D.를 마쳤다.

미나 후 참석자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식사 를 하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담론을 이 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동문 및 지역 주민들 70 여명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인근 커네티컷에서 유시영 회장 내외분과 김창수 박사(의대 '60졸) 내 외분,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김성환(농대 '57?) 동문 내외분, 뉴욕에서 신응남 차기회 장(농대 '70) 내외분이 참석하여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9월 - TBD: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및 Opera House로의 여행 (Journey to The World Famous Orchestra Concert Halls and Opera Houses)

▶ 10월 – TBD: 박길호 팝칼럼니스 (SBS 이 숙영의 러브 FM 팝 해설자): 추억의 팝송 해

▶ 11월 – TBD:

▶ 11월 (강의 및 종강 파티 장소) – TBD: 장 소 제공하실 분 접수 (선착순)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Yearly General Meeting)

"과학 계산(Scientific Computing) 입장에서 본 인공 지능이란" 워싱턴 주 동창회, 4월 SNU 포럼 개최

【기사: 김재훈 SNU 포럼 회장, 시에틀N】 워싱턴주 동창회 SNU 포럼의 4월 세미나 가 지난 13일 뉴캐슬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강사는 현재 워싱턴대학(UW) 방문학자로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 광주과 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황치옥 교수 이다. 황 교수는 이날 '과학 계산(Scientific Computing) 입장에서 본 인공 지능이란'이 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등장 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계산과학'은 '이 론'(정신공간)과 '실험 및 관찰'(물리공간)에 이어, 과학과 공학 연구에서 제 3의 패러다 임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과학계산의 입장에서 최근에 논의 가 활발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인공 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다소 어려



황치옥 교수

운 주제이지만 황 교수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등장 한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계산 과학"은 " 이론"(정신공간)과 "실험 및 관찰"(물리공간 의)에 이어, 과학과 공학의 연구에서 제3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학과 공 학의 이론이 수학적 언어로 기술되듯이, 계 산 과학은 과학 계산이라는 수학적 언어로 기술된다. 이러한 과학 계산의 입장에서 최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남가주총동창회

회장단 단대별 방문, 총동창회에 적극참여 요청 지난달 농대 방문에 이어 의과대 차민영, 김동훈 동문과 협조 방안 논의



300호 | 2019년 4월 호

시계방향, 손영아 동문, 김동훈 동문, 한귀희 회장, 차민영 동문

【기사: 남가주총동창회】

4월 2일 오전 11:30, 엘에이 한인타운에 있 는 JJ Grand Hotel 2층 우미관에서 남가주 총 동창회 한귀희 회장(미대 68)과 부총무 손영 아 동문(음대 85)이 의과대 차민영(의대 76), 김동훈(의대 71) 동문을 만나 의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차민 영 동문은 지난 몇 년 동안 총동창회 여러 행 사에 적극적인 후원을 해 왔다. 지난해 12월 강신용 전 회장이 총동창회에 소원한 단대



환으로 의대 신년회에 참석하여 총동창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하면서 시작된 이 모임은 올해 일월 농대 신년 모임에 한 회 장이 참석하여 동창회의 목적과 기대를 설 명함으로써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한 회장은 의대 동문들의 총동창회 행사 참여 를 부탁했으며 두 동문은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미주동창 회의 종신이사로 등록을 하였다. 또한 6월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 였다. 평소 서울대 뱃지를 즐겨 착용할 정도 로 모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차민영 동문 은 서울대인임에 자부심을 가진 모교를 시 랑하는 동문으로 적극적인 동창회 활동에 참여와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창신 동문 부부 모교에 1백만 달러 기부

모교에 '은창 장학기금' 설립



이창신 (법대 57) 동문과 부인 이은숙 님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이창신(법대 57) 동문과 부인 이은숙씨가 모 교 서울대학교에 '은창 장학기금'을 설립하 고 유산 중의 1백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창신동문 부부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숙 고하다가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두고 온 조국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 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인들의 유산 중에 40%를 모교에 기증하기로 결심한 것 이다. 기증 부동산은 앞으로 매각 처리시 가 격 상승분을 예상할 경우 거의 120만달러에 육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유증을 변호사와 함께 트러스트 펀드로 작성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LA 오피스를 통해 모교에 전달했 다. 1백만달러를 학생들의 학자금 지급과 식 비, 숙박비 등에 전액 사용할 것이며 학생 개 개인이 학비에 구애받지 않도록 충분한 장 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 상을 법대생으로 국한하지 않고 서울대학 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사용을 지정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산 전액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수한 신학대 학, 그리고 이민 저소득 봉사기관에 모두 기 부하는 유증을 마쳤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 면서도 한국이 살아남아 기적의 성장을 이 룬 것은 인재가 살아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 며,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미국정부, 그 리고 우리의 부모들이 가난과 전쟁 속에서 인재들을 남겨 두며 키워 냈던 것은 머리 숙 여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도 교육을 잘 받은 때문이라 며 모교의 많은 인재들이 돈 걱정 하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 이라고 말했다.

이창신 부부는 미국 이민생활에 비즈니스 하면서 "돈도 많이 없애고, 부부가 함께 별 고생도 다 했지만 지나간 모든 삶에 하나님 이 함께 하셨다. 많지 않지만 모든 재산을 이 렇게 환원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 는 마음이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법대 남가주 동문회에서도 40 여년간 봉사를 하며 "이제는 서로 가족이 된 법대 동문들과 서로 위로와 격려의 교제를 갖는 일들이 남은 생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창신 동문부부로부터 유증을 전달 받은 모교 서울대학은 "어려운 이민생활 중 에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학교측에 사랑으로 기부해 주심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표합니 다."라며 신임 오세정총장이 감사패를 전달 해 왔다. 이창신 동문 부부의 '최소 1백만달 러' 모교 기부는 본인들과 학교 관계자들만 알게 진행됐지만 학교측에서 남가주 법대

뉴욕지역 골든 클럽 2019 신년교례회 개최 1부 총회, 2부 작은 음악회, 3부 여흥 및 경품추첨



신입 회원 소개,한영수(의대 61), 권정덕(의대 58), 오유섭(의대), 이정자(가족회원), 강교숙(간호 73), 이준행 명 예회장, 신진식(농대 57), 조상근(법대 69), Mrs. 조상근, 손경택 회장

【기사 출처: 뉴욕 골든 클럽 소식지 4월호, 허 유선】

뉴욕지역 골든 클럽의 2019신년교례회가 3 월 23일 포트리 소재 더블츄리 호텔에서 86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 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신년교례회는 홍종 만 (공대 64) 부회장의 사회로 1부 총회에서 손경택 (농대 57) 회장의 개회사, 새해 행사 에 대한 당부, 이준행 (공대 48) 명예회장의 격려와 건강관리에 대한 덕담, 임호순 (공대 52) 고문의 축배사로 이어졌다.

2018년의 행사 비디오 영상을 방영한 후, 홍 종만 부회장은 2018년 회계보고와 2019년 행사계획을 파워포인트로 보고 했다. 이후, 새로 회원에 가입한 강교숙, 권정덕, 신진식/ 이정자, 오유섭, 조상근, 한영수 회원 가입 축 하 순서가 있었다. 이어서 그동안 골프 행사 를 주관해온 조달훈 (사대 66) 동문이 공로 패를 받았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손경택 회장의 2년 골든 클럽 회장 연임을 만장일 치로 인준하였다. 15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인 신응남 (농대 70) 동문이 앞으 로 치루어야 할 행사들의 각별한 후원을 부 탁하는 인사를 끝으로 1부 순서가 끝났다.

동문회에 공표를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

최진석(법대 64, 남가주 법대회장) 동문은 ' 이창신 선배는 평소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 을 사시면서도 늘 동문들의 앞뒤를 챙겨 주 시고 있다. 이렇게 소리 없이 기부를 하신

조은솔, 오지선, 황소희, 장수훈, 이준희 동문

2부 순서에는 이준희 (음대 90) 회원과 음대 동문이 준비한 1시간에 걸친 '작은 음악회' 가 열렸다. 황소희 (음대 08), 바이올린 고은 애 (음대 08), 테너 장수훈 (음대 09), 소프라 노 채주원(음대 09), 더블베이스 조은솔 (음 대 10), 호른 오지선 (음대 12) 등의 후배 동 문들이 공연과 연주를 했다. 또한 골든 클럽 의 컴퓨터 박사로 불리우며, 뉴욕과 뉴저지 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컴퓨터 강의를 하는 양인회 (농대 58)동문의 멋진 색소폰과 클라 리넷 연주가 있었다. 김광수 (공대 72)동문 의 재치있는 사회로 3부 순서인 여흥과 경 품 증정의 즐거운 시간들로 이날 행사를 마 무리 했다.

것에 대해 법대동문들은 놀라고 자랑스러 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신, 이은수동문 부부의 서울대 장학기 금 이름은 부부의 이름을 따서 '은창장학기 금'으로 명명되었다.



이경림 (상대 64)

NEW YORK OFFICE: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between 39th & 40th St) Tel: 1.212.768.9144 / Fax: 1.212.768.4494 / Email: info@klcpagroup.com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300호 | 2019년 4월 호 300호 | 2019년 4월 호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19년 1차 이사회 개최

장학금 \$2,000로 인상 동아리 모임 다양화하기로

【기사: 김병윤 회장】

3월 24일 Niles, IL 소재 Chateau Ritz Banquets 에서 시카고 동창회 2019년 1차 이사회가 열 렸다. 봄비 내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이사 54 명 포함 총 91명이 모인 회의가 윤봉수 부회 장 사회로 오후 5시부터 열렸다.

교가 제창 후 김병윤 회장의 개회 선언, 임 원 및 참석이사 소개, 신임이사 추천 및 인준, 2018년 재무보고, 2019년 예산안 인준 및 행 사계획보고, 장학금 관리위원, 장학금 선발 위원 선출 등이 있었다.

신임 김병윤 회장이 추구하는 동창회의 변 화와 성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뜻 깊은 회의였다. 변화의 일환인 장학금 인상이 전 원 찬성으로 인준을 받았다. 기존의 일인당 장학금 \$1,000 에서 \$2,000로 2019년부터 인 상하기로 하였다. 1985년부터 시작된 장학 사업은 시카고지역 장학 사업을 선도하였고 현재 15만불의 기금이 있고 매년 기부액이 증가하고 있다.



기념 촬영

한편으로는 다양한 동아리 모임 증가 발표 가 있었다. 동창의 소통과 융합의 장소인 동 아리 확장의 일환으로 수요골프 모임을 우 선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걷기, 달리기 등 다 양한 계획이 추가되었다.

동창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이에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모임을 마무리하고 6시, 회장의 폐회 선언 후 사진 촬영과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2019년 동창회 주최 중요 행사 일정

문의: snuaachicago@gmail.com, 회장 김 병윤 (847-951-3297)

- ▶ 월, 수요 골프 신설: 4/17, 5/8, 6/12, 8/14, 10/9 주관: 김현석 (847-809-2646)
- ▶ 춘계 골프: 5/11, 추계 골프: 9/14 주관: 김 현석 (847-809-2646) 신택수 (773-715-4628
- ▶ Art Institute of Chicago 신설: 4/27

- 10:30am 주관 변용국 (630-200-4066)
- ▶ Botanic Garden 야외 사진 촬영 신설: 5/16 주관 김동희 (630-207-3312)
- ▶ 야유회 (Busse Woods Grove #30): 6/8 12시 글로벌 풍물공연 (설장고, 상모판굿 등) Ravinia Park: 7/27 주관 이영우 (630-207-
- ▶ 2차 이사회: 10/13
- ▶ Rotary Santa Run: 12/7
- ▶ 총회및 송년회: 12/8

Therese 박 (음대 59) 동문

소설 『Returned and Reborn: a Tale of a Korean Orphan Boy』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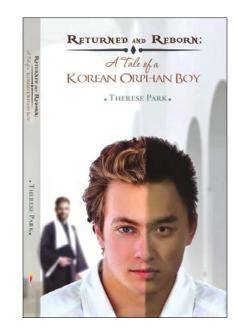


Therese 박 (음대 59)

【보도 자료 제공: Therese Park】

Therese Park 동문이 이번에 네번째 소설 "Returned and Reborn: a Tale of a Korean Orphan Boy," (published by Austin Macauley Publishers, LLC. in New York, NY.) 을 발표했다. Therese Park 동문은 1963 년, 모교 음대를 졸업한 후, 파리로 건너가 'Ecoloe Normale de Musique de Paris 에서 수학하고, the Kansas City Philharmonic 첼로 주자로 30년동안 연주 활동을 하다 1997년에 은퇴했다. 박 동문은 은퇴 후, 작가로 변신해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 제로 위안부로 끌려 가는 한국의 어린 여학 생들을 소재로 한 첫번째 소설 "A Gift of the Emperor" (published in 1997)로 1998 년 미국의 3대 북페어(로스엔젤레스, 마이아 미, 하틀랜드)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로 선정 되었다. 이후 여러 곳에서 다수의 수상경력 이 있다. 다음은 이번 네번째 소설의 간추 린 내용이다.

"Returned and Reborn: a Tale of a Korean Orphan Boy," published by Austin Macauley Publishers, LLC. in New York, NY., explores the Korean society's con-



tempt toward children of mixed blood, of unwed mothers, and those born "imperfect" that caused the country to banish more than 200,000 innocent infants and toddlers to be raised by foreign parents, most of them in the U.S..

And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facts. The main character, the orphan, is the illegitimate son of an influential American Catholic Priest, who, with his five Jesuit Brothers, established the first Catholic college for both men and women in Seoul in the 1960's, which today is recognized as the best adult education center in arts and humanity

이지원 AI 관련 서적『인공지능과 음악』 출간



이지원

【기사: 처음북스 보도 자료】 이정수 (공대 71) 동문의 자재 이지원 양이 ' 인공지능과 음악, 대한민국 1호 AI 뮤직 컨설 턴트의 미래 음악 이야기' (처음북스사) 라는 제목으로 AI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음악은 각 시대의 문화와 기술을 반영한다. 4차 산 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음악이 등장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이 책은 앞으로 음악세계에 인공지능이 가 져올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보여주는 책이 다. 다음은 이 책의 소개글이다.

"인공지능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인공지능 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즉『 멋진 신세계』나『1984』 같은 디스토피아 소 설처럼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음악 분야에 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기술이 발전하면 서 고전적인 악기를 이용해 연주하고 작업 하던 기존 음악가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 것 은 사실이다. 예전에는 음악을 직접 연주해 서 녹음해야 했지만 이제는 악기 어플리케 이션이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수준 높



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과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음악산 업의 발전이 음악가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만 할까?

『인공지능과 음악』의 저자이자 피아니스트 이지원은 프란스 요한슨의 "상식적 가설을 뒤집으라"는 말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 악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발전 시키는 방법을 인공지능 업계에 몸담았던, 음악가로서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 모색한

피아니스트 이지원은 이스트만 음대 졸업, 동대학원 석사,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아티스트 인터네셔널 콩쿠르에서 특별상. 라이징 아 티스트 콩쿠르 입상했다. 2014년 귀국 이후 >>

이태상 (문리 55) 동문 수필집『코스미안의 노래』 출간



이태상 (문리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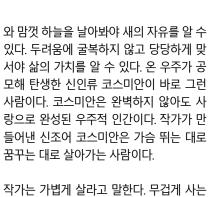
【기사: 자연과 인문 보도 자료】 이태상 (문리 55) 동문이 지난 4월 17일 수 필집 '코스미안의 노래' (자연과 인문 출판 사, 2019)를 출간했다. 이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코리아 타임즈 기자, 미국 출판사 Prentice-Hall 한국·영국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글로벌 신문 코스미안 뉴스 회장이다. 다수 의 저서, 번역서가 있으며 현재 뉴욕에서 많 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출판사에

가슴 뛰는 대로, 꿈꾸는 대로

서 소개한 '코스미안의 노래'의 소개 글이다.

이태상 작가가 일생을 통해 얻은 '코스미안 사상을 쉽고 재밌게 엮은 책이다. 온 세상을 주유하고 돌아와 얻은 깨달음을 맑고 거침 없는 언어로 펼쳐놓고 있다. 사르트르보다 심오하지만 담백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칸 트보다 깊지만 잘난 체 없는 명료한 글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누구나 친구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이다.

가볍게, 더 가볍게 살아야 높이 날 수 있다 무거운 것들을 지고 살아가면 날 수가 없다. 가슴 뛰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아야 한다. 변 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장을 열고 나



자는 바보라고 말한다. 문제없는 문제를 만 드느라 수고하지 말고 신나게 즐겁게 뜨거 운 태양처럼,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라고 말한다. 우주는 무궁무 진하고 그 우주가 곧 나 자신이다. 이념에서 탈출하고 사상에서 벗어나야 내가 보인다. 종교를 찢고 나와 더 너른 세계로 나가는 사 람이 바로 코스미안이라고 한다.

조재길 (사대 61) 동문 각종 마라톤 대회 참가하며 한반도 평화기원 메세지 전파

【기사 제공: 조재길 동문】

한미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조재길 (사 대 61) 동문이 지난해 9월부터 하늘색 한 반도 지도와 '평화를 위한 달리기(Run for Peace)란 영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세 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조 동문은 한국전 종식과 한반도 평화 기원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해 9월 16일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마라톤 대회부터 '엔드 더 코리안 워 포 피스(END KOREAN WAR FOR PEACE)'란 영문이 새겨 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출전했다.

조 동문은 2010년, 마라톤을 시작했지만 어 하고 있는가(1990)' '한반도 핵 문제와 통일 느덧 통산 출전 횟수 80회를 돌파했다. 그 의 최고 기록은 71세이던 지난 2014년에 LA 아주사마라톤대회에서 달성한 3시간 50분

세리토스 시장을 지낸 조 동문은 '북한은 변

미국 실리콘 밸리에 본사를 둔 기업 에이아 이브레인 소속인 영리더십 미래재단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며 인공지능을 접

(1994)' '통일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1998)'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2006)', '평화 가 먼저다'(2013) 등 한반도와 북핵 관련 문 제를 다룬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평화가 먼저다'의 영문판을 오는 8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하게 되어 이분야에 몰입하게 되었다. [문의: 201-566-8142]

이준행 (공대 48) 동문 구순 잔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



【기사: 김원영 편집인, 뉴욕】

뉴욕지역 골든 클럽의 명예 회장인 이준행 (공대 48) 동문의 구순 잔치가 지난 3월 20일 뉴욕 근교 펄이스트 중식당에서 열렸다. 이 날 잔치는 가족, 친지, 다수의 동문 등이 참 석해 이 동문 부부에게 앞으로도 건강한 노 후를 보내시길 기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 다. 골든 클럽(회장 손경택)은 구순을 맞이 하신 기념으로 그동안 여러 행사를 하며 이

명예 회장이 활동하셨던 사진들을 모아 액 자를 만들어 증정했다. 이날 이 회장은 '준이 장학금' 소개와 그동안 살아 오신 경험담, 소 회도 밝히시고, 가족도 한 분 한 분 소개하 며 참석인들을 위해 잔치 분위기를 리드하 셨다. 이 회장은 요즘도 운영하시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시며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시고 계신다.

2019년 4월~5월 ACRO 인문 강좌 및 독서회 안내

1. **인문 강좌**: 매주 화요일 저녁 6:30 PM

장소: 가주국제대학교강당, 3130 Wilshire Blvd., #303, L.A., CA 90005 문의: 310-292-2649, 714-742-9215

2. **독서회 모임**: 매월 첫째 금요일 6:30 PM

장소: 866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5 (배윤범 치과 로비) 문의: 714-742-9215, 213-291-5657

강좌 227회	특별강좌	4/26/2019	 "생명모성: 세계평화의 길잡이"	김반아 박사

4월 27일 토요일 - ACRO 낭만 산책 및 독서회원: Griffith Park 천문대/ Hollywood 산행 및 "봄나들이 불고기 잔치"

강좌 228회	특별강좌	4.30/2019	화 6:30 PM	명상冥想 - 실천과 경험지도	김무신 (약 '64) 약학박사 Pha.Dr./법사
ACRO 낭만 독서회 19 회		5/3/2019	금 6:30 PM	Gabriel Garcia Marquez 작,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백년동안의 고독	참가자 독후감 토론
강좌 229회	정규강좌	5/7/2019	화 6:30 PM	남북/북미/남북미회담: 조선반도의 운명	김윤경 (공 60)
강좌 230회	정규강좌	5/14/2019	화 6:30 PM	인류사: 한국의 민족종교	이원익 (문 73) 법사
강좌 231회	정규강좌	5/21/2019	화 6:30 PM	영미문학: 미국불교강좌 2: Jack Keroval의 "Dharma Bumps" 분석	김지영 (사 69) 변호사
강좌 232회	정규강좌	4/28/2019	화 6:30 PM	우리문학: 현대문학편	김학천 (치 71) 치의사



배성옥 (불문 70)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

1997년 가을에 나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한

국 사람들이 많은 캘리포니아州 로스앤젤

레스 지역에 살게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이

민 온 사람들이 줄을 잇고 넘쳐나는 로스앤

젤레스 지역은 누구나 손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Adult School(어덜트 스쿨)이 여기

저기 많이 있다. 나도 주거지역 안에 있는

Adult School에 가서 배치고사를 보고 상급

반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동안 책으로만 배

웠기에 '읽기' 위주였던 영어를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생활영어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아서인지 아주 좋은 선생

님을 만났다. 이름이 길어서 학생들 누구 나

"Mrs. K"라고 부르던 선생님 반에서 정말 많

은 것을 배웠다.

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100년 전 우리글 「기미 독립선언문」

로 어떻게 적는지, 나머지 석자는 알겠는데 2019년 3월 1일이 며칠 뒤로 흘러갔다. 100 년 前 그날의 사건은 우리의 역사로 자리매 김 되었고 우리의 국경일이 된 지도 오래다. 나의 고등학교시절이었던 1960년대 당시 우리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기미(己未) 독 립선언문(獨立宣言文)」을 달달 외어야했다. 외어서 빈칸을 채우는 국어시험문제도 있 었다. 그래서인지 첫 구절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첫 시작 구절을 먼저 한글전 용으로, 이어서 한자혼용(漢字混用)으로 아 래에 적어본다

첫 자인 '적'자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앉은 사카네 아저씨에게 물었더 니 당장 '適者生存'이라고 공책에다 유창하 게(fluently) 써주었다. 사카네 아저씨는 영어 광(英語狂)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영어공부 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마누라가 일본에 있다고는 하나 가족에 대해 얘기하는 일은 드물었고 오로지 영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 하려는 목적으로 저축해둔 돈을 싸들고 미 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살고 있다고 했다. 반 에서 같은 일본사람을 만나도 일본말이 아

자 정도의 Kanji(漢字)를 배우도록 제정한 문 자교육정책을 1940年代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이 시행하고 있다. 상용한자 1,800字의 범 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글자의 일본어 발음을 아주 작은 글씨의 일본글자(Hiragana)로 반드시 한 쪽 옆에다 표시해준다. 같 은 시기에 우리의 문자교육은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사이에서 왔다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었다. 그 결과, 겨우 100년 前 우리글이었던 「기미 독립선언문」 이 지극히 고리타분하고 어색한 옛글로 보 일 뿐 아니라, 원본선언문 자체를 뜻은 고사 하고 읽을 수조차 없는 한자문맹인구가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말 자체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글은 엄청난 차이 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누구나 알다시피 한 글은 15세기에 창제되었지만 거의 500년 동 안이나 어두운 그늘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 지 못하였던 만큼 1919年에 와서조차 한글 은 오직 한자어 (漢字語) 사이에서 토씨[助 詞역할이나 하는 글자였다. 1950年代에 와 서도 글을 쓰는 이들은 여전히 한국어 구사

"우리말과 우리글, 나아가 우리의 문학(文學)이 세계로 뻗으며 꽃피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漢字와 한글의 관계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漢字는 남의 나라 글자가 아니라 우리글의 뿌리요 줄기라는 것,

> 漢字는 한글과 함께 우리글을 형성하는 두 수레바퀴와도 같다..."

같은 반에서 어떤 일본 아저씨를 알게 되었 니라 할 수 있는 한 영어로만 얘기할 정도 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60대 초반으로 보 이는 아저씨였다. Adult School의 학생들은 누구나 성(姓, last name)보다는 명(名, first name) 을 표기한 이름표를 곁에 두고 있었 는데, "Sakane(사카네)"라고 쓴 이름의 이 일 본아저씨는 남이 자기를 이름(first name)으 로 부르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Sakane는 자 기의 姓이라고 했다. 일본사람이라 Sakane 를 'kanji(漢字)'로 어떻게 쓰느냐고 물었더니 "板根(판근)"이라고 적어주었다. 그러고 보 니 일본의 제 2 도시 Osaka의 한자표기가 " 大板(대판)"이라는 사실도 머리에 떠올랐다. 서 나에게 내미는 것이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그 즈음 인기 있었던 영 화 "Titanic(타이타닉)"에 대해 얘기 하시면 서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영어표현에 관 하여 설명해주셨다. 바다 한 가운데서 배가 뒤집 혀진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런 기막힌 소용돌이 속에서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법 칙이 적용되어 '가장 잘 환경에 적응하는 이 들(the fittest)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survival)' 이라고 하셨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우리말 문구는 '적자생존'이었다. 아 닌 게 아니라 'survival of the fittest'의 우리말 번역이 바로 '적자생존'이다. 그런데 이 문구 가 한글로만 머릿속에 떠올랐지 한자(漢字)

였다. 한 데, 우리 반은 최상급 수준이었기 에 선생님이 정해진 수업내용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다른 이 야기를 하실 때가 많았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 심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게 어휘 력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방식 이 나는 참 좋았다. 그런데 사카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저축한 돈이 다 없 어지기 전에 영어실력을 한껏 더 늘리고 싶 어서인지 우리 반 선생님은 수업하다가 옆 길로 빠지는 일이 너무 자주라고 투덜대었 다. 그러고는 공책에다 "授業脫線"이라고 써

"適者生存(적자생존)"과 "授業脫線(수업탈 선)", 이런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아무 어려 움 없이 한자(漢字/Kanii)로 척척 쓸 수 있는 사카네 아저씨는 일본에서 중등교육을 받 은 지극히 평범한 일본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분야 에서 최고학위까지 취득했지만 위 여덟 자 를 읽을 수는 있으나 막상 쓰라고 하면 사 전을 뒤지든지 전자사전을 두드려야 하는 형편이다.

일본은 초등, 중등교육 과정 동안 모두 1,800

(驅使)에 어려움이 많았다. 60년대부터 한글 세대 작가들이 두각(頭角)을 드 러내기 시작 하였고, 한글세대가 각 방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80년, 90년대를 거쳐 21세기에 이르 자 우리글은 우리말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한자어(漢字語)는 여전히 많이들 쓰면서도 漢字語를 漢字로 적지 않고 모조리 한글로

이에 비하여, '칸지Kanji(漢字)'와 '히라가나 Hiragana'와 '가타카나Katakana', 이 세 가지 글자를 섞어 쓰는 일본글은 한글이 창제되 기 훨씬 前부터, 적어도 8세기 초엽부터 불 경(佛經)을 읽던 승려(僧侶)들에 의하여 만 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漢字를 일본어 뜻으로 읽는 '훈독(訓讀)'과 소리로 읽는 '음독(音讀)', 이 두 가지 漢字읽기(Kanji Reading)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일본문학은 중국적 한문학(漢文學)의 테두리를 벗어나 일본어 특유의 독자적인 세계를 일구어나 갔다. 일본글도 1000년 너머 한자의 그늘에 서 더부살이 해 온 글이기에 1860년대 개화 (開化)의 시대에도 여전히 한문투성이의 딱 딱한 문어체(文語體)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 다. 때문에 일본의 학자들과 문필가들은 어 려운 문어체와 쉬운 구어체(口語體)의 장단 점을 두루 살피며 1870년대부터 거의 40년 동안을 꾸준히 힘써 일하였다. 「기미독립선

바꾸어 놓았다.

언문」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 되도다"라는 식으로 썼다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도다" 하는 식으로도 써본 다 음, 둘 사이에서 이상적인 가운데 길을 찾 아 오랜 세월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8세기 승려(僧侶)들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말 어문학자들과 문필가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이 땀 흘려 일한 작업의 결실이 라 해도 좋을 일본어와 일본문학은 세계로 뻗 어나가고 있다. 루브르(Louvre) 박물관의 관 광객 수에 의거한 안내표지판에는 영어, 스 페인어, 중국어 순(順)으로 적혀있는 반면에, 박물관 안 각 진열실의 입구에 비치(備置)되 어 있는 작품해설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 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일본어로 적혀있다. 이 사실은 곧 일본어가 세계의 학술어(學術 語)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300호 | **2019년 4월 호**

겨우 100년 前의 우리글은 한자(漢字)로 빽 빽하였고 한글은 한자어(漢字語) 틈새에서 우리 고유어(固有語)에 속하는 토씨[助詞] 역할만 하고 있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글은 한자 어든, 고유어든 외래어(外來 語)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한글로만 적고 있는 추세(趨勢)이다. 漢字語는 漢子(Kanji) 로, 외래어는 가타카나(katakana)로, 고유어 는 히라가나(hiragana)로 적는 일본어에 비 하여, 한국어는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가 뒤 범벅이 된 내용을 한글로 겉포장만 하고 있 으니 머릿속에서 뚜렷이 뜻을 짐작하기에 는 이래저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여느 나라 여느 민족이든 뿌리와 단절된 문

화(文化)란 있을 수 없다. 文化라는 말 자체 가 '글을 배워 익힘으로써 일구어낸 능력의 결실'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말 어휘(語彙)의 뿌리요 줄기인 한자어(漢字語)를 한글로만 쓸 것이 아니라, 漢字語는 漢字로 배우고 익 힘으로써 우리 말 문장구사력(文章驅使力) 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 막중한 과업을 우리 는 지금도 너무나 등 한시(等閑視)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1,800字로 정해 놓은 상용한자 (常用漢字)를 배우고 익혀 일상생활에서 사 카네(Sakane) 아저씨처럼 척척 자유자재(自 由自在)로 사용하게 될 날이 언제 오려나?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는 지금부터 하루라도 앞당겨 한자문맹(漢 字文盲)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 리말과 우리글, 나아가 우리의 문학(文學)이 세계로 뻗으며 꽃피어나가기 위해서는 국 민 모두가 漢字와 한글의 관계를 제대로 깨 달아야 한다. 漢字는 남의 나라 글자가 아니 라 우리글의 뿌리요 줄기라는 것, 漢字는 한 글과 함께 우리글을 형성하는 두 수레바퀴 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 모두 올바르게 인식 (認識)해야 한다.

세계가 한 지붕이 된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과거사(過去事)를 들추고 캐내며 지난날의 울분에 연연하기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의 앞날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우리의 갈 길도 너무 멀다. 학문(學問)과 교육(敎育), 특히 문 자(文字)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놓고 생각 할 때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에게서 배울 점 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이는 결코 감 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슬기로운 학문 적 객관성이 요구되는 문제임을 우리는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

ACRO 인문산책 인문강좌 불문학강사



우물 정(井) 자를 누르세요

이익섭 (문리대)

어디 서비스 센터나 병원 같은 것에 전화를 걸면 이제 사람이 받는 법이 없다. 으레 녹음 된 기계 소리가 나와서는, 무엇을 원하면 1 번, 무엇을 원하면 2번 식이다. 내가 찾는 곳 이 몇 번에 해당하는지 쉽게 헤아려지지 않 기도 하고, 용케 그것을 알았어도 또 번호를 어디에서 누르는지도 몰라 우왕좌왕한다. 그 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이번에는 "다 시 듣고 싶으시면 우물 정 자를 누르세요"라 고 한다. 친절하게도 반복을 해 주겠다는 모 양인데 '우물 정 자'라는 건 또 무언가. 결국 아이들에게 배워, 이제 이것저것 제법 익숙 해졌지만, 오래 살수록 세상은 오히려 점점 낯설어져만 간다.

그런 낭패를 겪는 중에도 내가 흥미를 느낀 일은 #를 '우물 정'이라고 읽는 일이었다.#는 '우물 정'의 井과는 그 족보부터 다르지 않은 가. 말할 것도 없이 #는 애초 악보(樂譜)에서 반음(半音)을 올리라는 기호요, 읽기는 '샤프 (sharp)'라 읽는다. 이것이 요즈음 전화며, 컴 퓨터며 온갖 자판에 하나의 아이콘으로 쓰 이고 있다. @나 %와 같은 기호가 그렇듯이 말하자면 세계 공통의 문자가 된 셈이다. 그 것을 어떻게 '우물 정 자'로 읽을 생각을 했

눈을 좀 돌려 보면,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물 정 자'와 같은 방식을 유용하게 이용해 오기는 하였다. "한 일(一) 자로 입을 꾹 다물 고" "여덟 팔(八) 자 걸음으로" "호박을 열 십(十)로 갈라서"와 같은 것을 비롯하여, 바둑에 서 행마(行馬)의 종류를 말할 때도 "날 일(日) 자" "눈 목(目) 자" "입 구(口) 자" 등을 일상으 로 쓴다.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하여, 가령 꿀 벌이 밀원(蜜源)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벌집 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그 꽃의 위치를 알릴 때 "아리비아 숫자 팔(8) 자 모양으로 춤을 춘 다"고 하는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주로 이용해 온 방식은 한자(漢字)를 풀어 읽는 방식이었 다. '우물 정 자'는 바로 이 전통에서 얻은 발 상이었을 것이다.

은 데가 있지만(그래서 중국에서도 '井字' 버 튼을 누르라고 한다지만), '아이콘'이란 이름 부터가 그렇듯 이 시대가 만들어낸 최첨단 의 기호에 '우물 정'이라는, 잘 보아 주어야 19 세기쯤 되는 구시대의 이름을 붙인 일은 괴 이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특히 놀라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찰떡궁합인 듯 어떻 게 그렇듯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었을 우물 정'은 바로 한자의 아이콘적인 장점을 까 하는 점이다. 외래어 하나를 우리말로 바 꾸어 보급하는 일을 해 보면, 국어심의회 같 은 데서 머리를 맞대고 갖은 묘안을 짜내도 그 성공률은 100분의 1도 되기 어렵다. '노견' 이니 '길어깨'라 하던 것을 '갓길'로, '만땅'이 라 하던 것을 '가득'으로 정착시킨 것은 어떻 게 보면 기적적인 성공인데, "우물 정 자를 누 르세요"의 성공을 보면 그야말로 무슨 기적 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렇기는 하여도, 비록 #의 형체가 井과 닮

생각해 보라. 세상 일이 될 때는 우습게 잘 되 지만 또 안 되려면 얼마나 안 되는가. 당장 젊 은 세대들이 '우물 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 떻게 생긴 글자인지, 아니 그것이 한자의 무 슨 글자를 가리키는 말인지나 알까? 또 한자 라면 절대로 용납 못하고 떼지어 나서는 사 람들이 #를 '우물 정'으로 읽는 일을 좌시만 하고 있을까? "우물 정 자를 누르세요"를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할 요소가 여기저기 도 사리고 있지 않은가.

궁금하여 대학에 다니는 손자에게 물어 보았 다. 처음에 '우물 정 자'를 누르라고 하였을 때 #를 누르라는 말인지 알았느냐고. 몰랐다고 한다. 다시 그때 '우물 정'이 어떻게 생긴 글자 인지는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니 그것도 몰랐 다고 한다. 역시 그랬다. '여덟 팔 자' '눈 목자' 가 아무리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이라 하여도 젊은 세대에게 "우물 정 자를 누르세요"는 " 샤프를 누르세요"라고 할 때보다 더 거추장 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아니 앞으로 그 렇게 바꾸자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른다. 촌 스럽게 '우물 정 자'가 무엇이냐, '샤프'라면(일 본에서는 그렇게 읽는다고 한다) 얼마나 세 련되고 간편한가, 그런 주장이 나올지도 모 를 일이다. 아니, 지금 세상은 이미 온통 그런 방향으로 선회한 지 오래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낮에 운전을 하며 KBS 제1 FM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듣고 싶은 곡을 신청 하겠으면 2380인가 누르고 "우물 정 자를 누 르세요"라고 하였다. 사실 "다시 듣고 싶으시 면"이라는 장치는 애초 노인들을 위한 것이 었을지 모른다. 신세대는 무엇을 하겠으면 1 번, 무엇을 하면 2번이라 하면 척척 다 알아 들으니 굳이 "다시 듣고 싶으시면"까지 기다 릴 일이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젊은 층 이 애청하는 클래식 시간에까지 "우물 정 자 를 누르세요"였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물 정'은 그 모든 걸 초월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저력(底力)인가. 그것이 또 나를 자극하였다.

한자(漢字)는, 특히 상형(象形) 방식의 것들은 일종의 아이콘이다. '八 자 걸음'이라면 그 걸 음걸이가 쏙 눈으로 들어온다. '十 자'라고 해 도 그렇고 '口'라고 해도 그렇다. 한 눈에 어 떤 모습을 떠올리게 해 주는 힘이 있다. 아 라비아 숫자도 이 점에서 한자와 같으나, 다 만 '아라비아 숫자 8'이라고 하면 '여덟 팔'이 라고 하는 것보다 말이 길어지고 복잡하다. 활용한 것으로, 그것이 그 성공의 비결이었 을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자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다. 문자 발달의 과정을 보아도 그 것은 '표의문자 → 표음문자' 또는 '단어문자 → 음절문자 → 음소(자모)문자'의 가장 초기 단계인 '표의문자'요 '단어문자'다. 모택동 시

절 중국에서조차 버리려고 했던 문자다.

한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 매할 정도로 어느 나라에서나 할 것 없이 문 자 이론은 오랜 기간 잘못된 사고(思考)에 갇 혀 있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일차작으로 그것을 소리로 바꾸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익혀 온 말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만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 니 글은 되도록 소리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글자에 부여된 임무요, 그것이 글자의 존재이유라라고 믿어 온 것이 다. 영어 쪽에서 현행 스펠링이, 발음부호를 따로 달아 주어야 할 정도로 소리에서 너무 멀어져서 나쁜 스펠링이라고 해서 이미 16 세기부터 시작하여 20세기부터는 「철자 간 소화 학회」(The Simplified Spelling Society) 등 등의 학회까지 세우며 줄기찬 운동을 벌였던 것도 그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은 다행히 그 미몽(迷夢)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글을 처음 배울 때는 그것을 소 리로 바꾸어 뜻을 깨닫는 과정을 밟지만, 글 에 익숙해지면 소리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 고도 곧바로 뜻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 있 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언어 심리학자들이 갖가지 실험을 하기도 하였지 만, 사실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이 이론은 쉽 게 수긍된다.

미국에 가 차를 몰면서 거리에서 STOP이라 는 간판을 보면 그 영어 발음을 환기하여 평 소에 들어서 알던 말에 따라 "아, 서!"라는 말 이구나 하면서 서지 않는다. 보는 순간 곧바 로 그 명령의 뜻을 깨닫는다. 이때 STOP은 도 로표지판의 화살표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한 다. 말하자면 하나의 아이콘과 같은 구실을 한다. 영어 과거형을 나타내는 -ed만 하여도, 그 발음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d, -id, -əd, -t 등으로 다르다는 지식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ed를 보는 순간 곧바로 그것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 준다는 것을 안다.

학자들은 의외로 답답할 때가 있다. '어린 백 성'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엉뚱한 데 가 서 헤맨다.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은 그 소리를 알기 위해서이기보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다. 글자는 최종적으로는 뜻을 알려 주기 위 한 도구인 것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학자들 이 답답하게도 이제야 올바로 깨닫기 시작하 였다. 로마자나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도, 그 일차적인 임무는 '표음(表音)'이지만 표의(表 意) 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도 추구 하여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다. 덕분에 이제는 -ed가 나쁜 스펠링이 아니 라고 평가하게 되고, 우리 한글도 '흑땀'이나 '꼰납' 대신 '흙담' '꽃잎'으로 쓰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馬를 보면 그 발음이 어떻다는 것 을 생가하기 전에, 먼저 그 짐승의 형상부터 머리에 떠올린다고 한다. 표의문자는 곧바로 뜻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을 태생적으로 지니 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는 오랜 기간 한자를 써 오면 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체득한 일이기도 하 다. 나에게 지금도 가끔 연하장도 보내고 카 카오톡도 보내는 옛 제자가 있는데, 그들 중 셋은 다같이 '유'씨들이다. 셋이 다 한글로 ' 유'라고 적어 보낸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서 내 머리 속에 이놈은 柳, 이놈은 兪, 이놈 은 劉 하면서 구별한다. 당시 출석부는 한자 로 되어 있던 때라 그것이 지금껏 머리에 박 혀 있다. 친구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로 출석

부가 나중 한글로 바뀐 다음에는 학생들 이 름이 전만큼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 자는 딱 어느 사물 하나를 가리켜 준다는 점 에서 표음문자가 넘보지 못할 힘이 있다.

'우물 정'은 바로 사물 하나만을 가리키는 한 자를 글자로써가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는 방 식이다. '정'이라고만 하면 正, 貞, 情, 政, 亭 등 숱한 '정' 중 어느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데, '바를 정'이니, '우물 정'이니 하면 마치 正이나 井이라는 글자를 써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에서 유를"이 라고 하면 머리에 無며 有가 저절로 떠오르 고, "극에서 극으로"라고 하면 極이 저절로 떠 오르는 원리를 '우물 정'이라는 말로 형식화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우물 정 자를 눌러 주세요"를 들으면서 우리 현실을 억지로 외면하는 사태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일선 행정 부처에 서 한자를 전면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니 어 려움이 크다고 해, '정(鄭)' '정(丁)'처럼 괄호 안 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였 을 때 피켓까지 만들어 흔들며 벌떼같이 몰 려 가 시위를 한 무리가 있었다. 학교에서 한 자를 가르치자고 해도 그들은 역시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한사코 반대하고 나선다. 앞 에서 이들이 "우물 정 자를 눌러 주세요"에 대해 좌시하고 있을까를 염려한 것은 이런 일들이 떠올라서였는데, 현실에 대해 왜 그 토록 눈을 감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이름 그대로 맹목적(盲目的)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몇 년 전 도로공사를 하느라 어지러운 길가 에,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는 안내판인 듯 화 살표를 크게 한 입간판에 '하누만'이라고 적 힌 것이 있었다. 무슨 스페인어인가 이상한 말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 길 공사가 끝 나고 그 집 앞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보 니 음식점 이름이었다. 자기 집에서는 '한우(韓牛)만' 판다는 뜻이었던 모양인데, 멀쩡한 옷을 찢어 입으며 멋을 부리듯 정형(定型)을 억지로 찌그러뜨려 손님의 눈을 끌려한 짓이

그런데 우리는 왜 '하누'는 비틀린 것이고 '한 우'가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옥(韓屋)' 도 그렇고, '학원(學院)'도 그렇다. 한자 하나 하나가 지금도 엄연히 살아 움직인다. 이것 들을 왜 '하녹' '하권'으로 쓰지 않고 받침을 올려 적느냐고 어린 자식들이 물으면 한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닙' '절력'이 라 적지 않고 '독립' '전력'으로 적는 이유도 獨立' '電力(또는 全力이나 前歷 등)'으로 설명 할 도리밖에 없다.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 이 름을 지으려면 항렬자(行列字)를 따르고, '지 영'이란 이름을 지어 놓고는 또 무슨 한자를 골라 쓸지를 두고 머리를 짠다. '이상의 이상 과 이상'이라는 글을 쓰려면 '李箱의 理想과 異常'처럼 한자를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세 상에 살고 있다.

"우물 정 자를 누르세요" 하나가 여러 생각들 을 불러일으켰다. 좀 과장하면 세상이 온통 광풍에 휩쓸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이 놈 하나가 당당히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 티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 듯도 하다. 세상 은 가끔 엉뚱한 일로 즐거울 때가 있다.

문리대 국문과 명예교수



뜨거운 감자

중국이라는 거인

2013년 시진핑은 중국 국가 주석으로 올라

서면서 내수시장 육성, 일대일로를 통한 산

업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 취임하여 시진

핑 제2기로 들어 서면서, 활력과 기대로 충

만하였던 시진핑 1기 와는 달리 중국사회

는 경직되기 시작했다. 안으로는 종신제로

개혁하여 무소부재의 권력을 쥔 시진핑은

연성 권위 체제에서 강성 권위 체제로 바

꾸고, 언론을 통제하고, 대대적인 종교 탄

압을 하고 있다. 기독교 탄압국가로 중국,

북한, 아프가니스탄을 꼽는다. 특히 중국은

당의 종교가 어떤 믿음의 종교보다 더 중

요하다고 하며,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이

슬람교 등 모든 종교를 탄압한다. 불투명

한 비밀의 제국, 야만적인 1인 독재 전체주

의로 전이된 시진핑의 중국은 인공지능까

지 동원된 디지탈 감시망까지 구축하고 전

국민의 하루 하루의 삶을 간섭한다고 한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맞받아 치더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과 부딪치고, 경제

적으로도 미국을 위협하는 G2 국가가 되

었다. 짝퉁과 위조 상품(지식 재산권 침해)

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규칙을 지키

자 않아 WTO의 골치거리이던 중국이, 국

가 전략 사업의 중심을 제조업에서 첨단산

업으로 전환하고, 2025년 안에 중국을 첨

단 산업으로 고도화시켜 세계 경제 패권을

가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산업혁신을 통

한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하여, 반도체, IT, 로

봇, 항공우주, 친환경 자동차 등 10개 분야

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비호

와 집중 투자 아래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

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 했고, 해당 기업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각종 혜택으로 진짜

싼값에 좋은 물건을 세계 시장에 내 놓음

으로 공급 과잉과 낮은 가격으로 세계시장

을 점유하며, 애플, 아마존, 구글과 경쟁하

중국은 각종 제재로 한국회사들을 배척하

고, 빈 손으로 귀국하는 기업들이 많다. 중

국의 기술 빼가기 수법이 진화하여, 인수

합병으로 기업을 사 들인 후, 알짜 기술만

뺏앗거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인재를 낚

아채고, 회사는 껍데기로 만드는 합법을 가

장한 편법과 탈법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주

력산업과 경쟁력이 순식간에 중국에 잠식

형, 지나치게 높은 투자 수준에 비해 정당

화 해줄 만한 국내수요의 부재, 투명성의

결여, 중국 통계의 신뢰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무도 중국이 세계 통수권을 갖기를

바라지 않고. 또한 세계가 공산화 되기도

원치 않는다. 세계는 미국의 존재감을 갈망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기대를 저

당하는 실정이다.

윤종숙 (약대 66)

중국의 문화와 재능은 볼수록 기이하고 아 름다우며 산천수목의 아름다움은 볼 때마 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들이 세계 최고 가 되는 야욕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경제 가 발전하며,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우뚝 서 게 된 것을 우방국가로서 무척 자랑스러웠 을 것이다.

그들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을조종하고 미국도 조종하려고 하는 속임수와 세계를 재패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 내었을 때, 아 차 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직도 한국 사람 들은 중국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는 거 같 지만,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것이 좋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한국을 늘 수중에 공 기돌 놀리 듯 조종하며 억눌러 왔으니, 선 한 의지를 가진 우방국가로, 또 친 형제 자 매를 만난 듯 반가웠던 마음이 머쓱해 진 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웃국가다. 늘 한국을 삼키려고 호시 탐탐 노리는 그 속 내를 왜 자꾸 잊어 먹는 것일까? 한국 사람 들의 건망증은 아마도 세계 제 1위가 아닐 까 한다. 인해 전술이 꼼수인 중국인데, 국 민들은 다른 자유국가 사람들과는 달리 공 산국가의 훈련을 받은 국민답게 나라에 절 대 복종한다. 나라가 첫째이다. 이론이 있 을 수 없다.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1995 년 해외관광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문 을 연 후 중국의 기이한 신종 인해 전술은 유커 쓰나미 현상이다. 중국 유커의 무기 화는 중국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에 가능하다고 포린 폴리시지는 진단했다.

해외여행을 전담하는 5개 중국 여행사중 3 개는 공산당이 경영하는 국영기업체로 여 행의 자유마저 통제받고 있는 중국의 현주 소이다. 중국 관광객은 단체 관광객 (유커), 자유관광객 (싼커), 중국인 보따리상 (다이 궁) 으로 분류되는데, 2000년대 가파른 경 제 성장 후 형성된 중산층의 증가로 향후 5 년간 중국인들의 여행 횟수가 무려 7억회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그러니, 막대한 시장과 경제력으로 중국관광객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다.

한국은 작년,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미 국과 중국의 냉전에서 비롯한 중국의 금한 령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 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도의 불균 국 경상 수지 흑자 47%가 중국에서 비롯 되었는데, 정치와 외교는 미국, 경제는 중 국에 의존하는 투 트랙 전략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새우등 신세가 되었다. 미중 무 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소국가들에 게 돌아 갔는데, 그 중에 한국의 몫이 만만 치 않은 거 같다.

특집: 4.19와 나

고애자 (사대 58)

1960년 4월 17일, 그 날 첫 강의 시간은 '교육 원리'였다. 교실에 들어가려니 문 앞에서 어느 남학생이 가로 막으며 "모 두 나가자!" 크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무 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책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교문 밖으로 뛰쳐 나갔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료들의 물 결에 휩쓸려 당시 사대가 위치해 있던 용두동에서 중앙청 앞까지 "독재 물러가 라!" 구호를 외치며 행진해 갔다. 길 양편 에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들은 도로 한 중간을 꽉 메우면서 열띤 뜀박 질을 계속했다.

중앙청 앞에 다달았다. 사람들이 인산인 해를 이루고 있었다. 한 트럭 위에서 우 리 동아리 ('송우회') 회원인 김치호 (문 리대 수학과)가 크게 구호를 외치고 있 었다. 그는, 소방차가 물대포를 쏘아대 는 가운데, 어디서 날아온 총탄에 복부 를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육군 병원으 로 후송됐다.

후에 들은 얘기로, 그는 가장 위급한 환 자로 가장 먼저 치료료를 받아야 할 위 험한 상황 속에서, "저 어린 중고등학생 들을 먼저 돌봐 달라"며 자기는 뒤로 미 뤄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결국 세상을 떠 났다. 추운 날 친구가 떨면 자기 내의를 벗어주고, 외투를 벗어 입혀주던 마음 따 뜻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 많은 친구였다. 그의 천주교 장례식에 우리 ' 송우회' 회원 모두가 참가해 명복을 빌

이름이 가물가물 한데, 국문과 손xx는 그 때 총탄에 쓰러져 사대 교정에 추모비를 세웠다. 그리고 같은 생물학과 동기인 한 남학생 (후에 서울대 교수) 은 경무대 앞 바리케이드 최선봉에 섰다가 경찰에 피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

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흘 간 이유없는

내가 겪은 4.19

우리 대모대는 바리케이드를 뚫고 경무 대 앞 통의동 파출소 앞 끼지 진출했다, 그 곳에서 모두 길바닥에 엎드려 구호를 힘껏 외치면서 '해방의 노래' "...압박과 설 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이 겨 나가자/ 동포여 일어나라/" 를 목이 터저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를 찢는 총성과 함 께 피투성이가 된 많은 학생들이 차에 실려가는 것이 보였다. 모두들 너무 무 서워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씩 중앙청 뒷문으로 들어가 앞 문으로 다시 나와 대열을 가다듬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대법원으로 달려가 "대법원장 나 오라!" 소리 높여 외쳐댔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고 대열은 흩어지 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굶으면서 소리 치고 뛰어 다니고...기진맥진 녹초가 되 었다. 그 지친 몸으로 다시 대법원 앞에 서 용두동 사대 까지 걸어서 돌아와 책 가방을 챙겨 갖고 귀가했다.

한 밤중에 집에 돌아오니 고교생인 남동 생이 안 보였다. 밤새도록 기다려도 안 나타났다. 다음날 나는 종합 병원마다 찾 아 다니며 사망자 명단과 명단에 없는 시체들을 점검했다. 덥힌 흰 천(sheet)을 벗겨내고 하나 하나 얼굴을 확인했다. 퉁 퉁 붇고 누렇게 뜬 얼굴로 누워있는 수 많은 젊은이들, (고교생들이 대부분이었 다) 그 비극감에 몸서리가 쳐졌다.

정치 의식, 시대 정신을 모르는 나로서도 "이게 누구 죄냐?"하는 탄식과 분노가 솟 구쳤다. <끝>

버리고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 일대일로는 물류 인프 라 사업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육 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중추기관에서 발언 권도 취소되고 입지가 좁디 좁으며, 주중 대사들은 중국 당국에 홀대와 멸시를 당하 고 있다.

니다.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 실력있고, 외 교수완이 뛰어나고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

를 수행할 수 있는 중국통을 주중대사로 임명하여 나라의 위상을 세우고 국익에 기 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로와 바닷길로 잇겠다는 프로젝트인데, 한 GDP 11위 중견국으로서, 외교정책을 정립 하고 중국에 맞서야 하지 않을까? 국토면 적과 14억의 인력자원이 결집된 힘을 과시 하는, 중국을 대국이라 과대평가하고 속으 면 안된다. 중국 특유의 허세에 속지 않으 면서, 대중외교의 기본으로 실리와 자존심 중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우방국가가 아 의 적절한 균형을 갖춘 실력을 쌓아야 한 다.

특집: 4.19와 나



사일구를 생각해 본다

이석호 (공대 66)

우리 민족의 오천 년 역사에 순수한 민중봉 기에 의해 정권이 바뀐 적은 한 차례도 없었 다. 왕이 죽어서 왕위 계승권자가 왕위를 물 려받는 경우와 대한민국 건국 후 생긴 제도 인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는 경우 말고는 모두 하나같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하등 관 계가 없이 지배층 인간들 자기들 끼리의 권 력 쟁탈전에 의한 탈법적인 정권교체가 전부 였다. 물론 우리에게도 과거에 임꺽정이나 장 길산등의 천민의 난이나 심지어 만적의 난 같 은 노예반란도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이 사회 의 모든 계층을 망라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번져서 정권이 바뀐 일은 물론 없었고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적 조차도 없었으며 도리어 더

한 압제를 불러욌을 뿐이었다.

우리 민족사에 순수한 민중봉기에 의해 정 권이 바뀐 사건이 있었다면 1960년 4월 19일 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들고 일어난 학 생들의 요구에 의해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 만 박사가 일주일 만에 대통령 직을 사임하 면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당 정권 이 들어섰던 사일구 혁명이 유일하다. 그나 마도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박사가 "미국 식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던 분이었기 망 정이었지 다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 다면, 특히 대한민국이 북한같은 체제였다면 꿈도 꿀수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대통 령 직을 사임한 이승만 박사는 시위하다가 다친 학생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해 서 "옳지않은 일에 분노하고 항의한" 학생들 을 칭찬하고 위로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사일구 혁명의 성공에는 우리들의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만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 었던 이승만 박사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수 준도 기여했던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 을 것이다. 나의 이 말에 펄쩍 뛰기 전에 한번 더 생각들을 해 보시기 바란다.

단군 성조 이래 우리 민족이 항상 왕정체제 하에서 억압을 받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 만 우리 민족의 마지막 왕조시대였던 조선 오백년간은 참으로 오천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게 살아야 했던 지옥같은 암흑의시대요 고난의 시대였다고 보아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에 조선의 사회가 유 럽의 프랑스나 영국같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문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사회였더라면 영국 의 청교도 혁명이나 프랑스의 칠월 혁명같 은 극단적인 유혈혁명이 일어났어도 몇 번 은 일어났을 것이고 숱한 왕들과 양반들의 모가지가 날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 도 조선 정부는 유교철학, 그것도 유교학파 중에서도 가장 비 실용적이고 비 민주적인 주자학을 통치철학으로 채택해서 나라를 외 부와 단절시킨 상태에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체념속에서 살도록 세뇌시켜왔 다. 그러다 보니 개돼지로 사는 것이 우리 민 족의 유전자에 완전히 임프린트 되어 버렸

는지 조선이 망하고 우리 민족이 서구문화 에 눈을 뜬지 백년이 넘은 지금도 한반도 북 쪽에서는 이조시대보다 더한 超 暴政體制가 건재해 있고 남쪽에서는 누가 보아도 정부 와 국회와 사법부가 삼위일체로 탈법의 극 치를 달리면서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정치 와 외교의 모든 구조가 완전히 와해되고 있 는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 고 있는 상황이다.

유신독재가 한창 기승을 떨치던 칠십년대 에 유신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 에 유료광고를 싣는 것을 정부가 금지했던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나 동아일보 구독자 수가 급증했었는데 바로 이것이 유명한 "동아일보 광고사태"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공산주 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을 억압하고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정 부가 같은 정책을 편다면 국민들의 반공의 식은 약화될 것이다"는 우려를 담은 성명서 를 냈었다. 이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여야없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한 대 비와 정신무장이 철저했었던 당시를 돌아보 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사일구 혁명 때 태어난 아기가 내년

이면 환갑이 될 정도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국민의 의식수준은 도리어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생 각이 여기까지 미치다보면 "사일구 때 이승만 박사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 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80년대에 새로이 들어선 군부정권은 이전의 유신체제의 기본 이념이던 반공주의에 대체할 새로운 국가이 념의 도입없이 사상적으로 공백이 생긴 상태 에서 막연히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학생 들과 지식인들의 정치활동의 방향에 대해 지 나친 관용을 베풀었었다. 이때에 발생한 이념 적 혼란이 그러한 퇴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혼란을 틈타 사 상적인 뿌리가 불분명한 각종 사이비 민주화 그룹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에 의해 사일구 정 신에다 자꾸 이상한 색갈을 칠하려 드는 시도 가 행해져 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것 은 역사 왜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참으로 잘못된 행위이다. 그래서 사일구 정신을 확실 히 되새겨 보기 위해 사일구 때 시위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구호 하나를 여기다가 인 용하고 끝내련다.

"民主主義 死守하여 共産主義 막아내자"

이 구호에서 사일구 시위학생들이 사용했던 民主主義란 용어는 서구식 自由 民主主義를 말함이었지 자칭 민주화투사라는 운동권 인 가들이 선호하는 共産主義식 廣場 民主主 義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完)



였을 때는 1956년 2월 14일 새벽 4시 반이었

다. 한 시간 후에 택시 운전사가 나를 맨해튼

116 가와 브로드웨이 사이에 내려 주었을 때,

나는 춥고, 피로하고, 슬프고, 꼴이 엉망이었

다.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이먼 길을 부모 슬

서울서 뉴욕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었다. 예

상하지 않게 여러 번 지체한 탓으로, 이틀 걸

린다던 것이, 4일이 걸렸다. 도쿄에서 머물러

승객을 태우고, 열대 지방의 웨이크 도에서

12시간 이상 걸려, 주류하고 엔진 고치느라

머물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는 것도 2배 이상 시간이 걸렸고, 불순한

일기로, 캔사스 시티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

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당시의 다

른 한국 유학생보다 속히 태평양을 건너 온

셈이었다. 초창기의 많은 유학생들은, 미군

화물선을 타고 3주일이나 걸려 왔었다. 나는

하를 떠나 왜 왔지?" 자문했다

나는 미국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다, 63년 전에. . 미국 대학에 도착하던 첫날

오(조)봉완 (법대 53)

내가 뉴욕의 아이들 와일드 공항에 도착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어라 서툴러서 그랬 는지, 목이 메어서 였는지..

13

내앞의 그분이 입을 열었다. "네가 봉완이구 나.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3일 전에 온다던 애가 이제 오다니. 츳 츳." 그분은 혀 를 차면서 계속했다. "네가 여행 중이니 연락 할 수도 없고, 네 부모님께 전화하려니 이틀 이나 걸릴 것이고, 잘못하면 너무 걱정하실 까 봐, 속수무책으로, 시계만 보고, 날짜만 따 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네가 내 앞에 있 으니 됐다. 이리 와라." 하면서 그 부인은 나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다시 말을 시작하셨다.

"나는 미스 벤슨이다. 이 기숙사의 사감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엄마 대신해주마!" 엄마 라는 말이 나오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 왔다. 나는 염치 없이 울었다. 미스 벤슨은 나 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랬다. "이제 됐다. 무고 히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다. 춥다. 들어가자." 그는, 한손으로 가방 하나를 들고 다른 손으



기로서 태평양을 건너는 항공사는 팬앰 뿐 이었다. 그때 알기로는 도쿄에서 샌프란시스 코는 36시간이 걸린다 했었는 데 90시간이 걸렸다. 브로드웨이 116가에 택시에서 간신 히 내려, 큰 가방 둘을 들어 주는 택시 운전사 를 따라, 돌기둥 넷으로 받혀진 베란다의 돌 계단 둘에 올라섰다. 내가 있을 기숙사 브룩 스 홀의 현관이었다. 택시 운전사는 가고, 혼 자서 가방 둘을 들고, 추운 겨울 새벽에 홀 로 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비참 하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서고 싶었다. 그렇 지만 어떻게 돌아가라? 그 먼 길을, 그리 오 래 걸려 왔고, 공부한다고 큰소리치고, 부모 님께 약속하고 왔는데 ... 돌아 갈 수는 없 었다. 용기를 내서 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눌 렀다. 나는 오래 기다리기를 각오하고 있었 다. 나의 도착이 3일이나 늦었고, 시간이 너 무 이르고, 날씨가 추운 겨울 날이었기 때문 에 나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 단념하고 서 있었다.

뜻밖에도, 순식간에 철과 스테인글라스로 된 큰문이 삐걱 소리를 내면서 열렸다. 나는 놀 라 주츰했다. 내 앞에는 연분홍색 하우스 코 트를 입은 중년부인이 서있다가, 다가오고 있었다. 깨 계셨구나. 나를 기다리느라 잠도 못주무시고...고맙다고 이야기 할려 했으나



로 내 손을 잡으며,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갔 다. 따뜻한 방 안의 공기가 나를 포옹했다. 들 어선 방은 넓고 천장이 높은 거실이었다. 바 닥에는 아름다운 페르시안 모피가 깔려 있 고,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달려있었다. 네 방은 이층이다. 저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 라가면 바로 왼쪽에 있다. 너는 넷이 함께 사 는 수위트에서 살 것이다. 가자." 미스 벤슨은 나의 손을 이끌며 반원으로 된 쇠 난간을 잡 고 대리석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따 라 올라가면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뭉클" 하고 내 손에는 녹아가는 버터 핑거 초 콜릿이 만져 졌다. 녹은 초콜릿이 손에 느껴 졌다.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요기하라고 주셨 던 캔디다. 나는 손에 묻은 끈끈한 것을 빨면 서, 조용한 메시지를 부모님께 보냈다. 아버 지 감사해요. 엄마, 나 준비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죠? 정말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난, 이제 괜찮을 거에요.

"환영한다. 빨리 들어와." 스위트 메이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 와 현실로 돌아왔 다.

[2019년 3월 번역]

나타내고있다.

는 의미이다.

간으로 귀국하지 못 했던 세계 전쟁이었다.

향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제 3차 세계대 전 (WW Ⅲ)이 올 수 있다면 많은 우리 자신 과 가족들이 한반도와 미국에서 사망할 가 능성이 있다. 제 3차 세계대전은 핵무기로 되리라 생각하며 아인슈타인 박사는 제 4차 세계대전 (WW IV)은 인간이 원시인으로 돌 아가 칼과 창으로 싸우게 되리라 했다. 이 사람의 말은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는 제 3 차 세계대전은 지구의 셀 수 없는 많은 인구 와 현대 문명이 지상에서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럼 이런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서 두 곳이라 볼 수 있다. 하나는 중동이라 생각된다 즉 유태인과 이슬람 사이의 수천년 간 계속되 는 싸움이다. 사실상 미국의 국방과 재정에 실권을 행사하는 주미 유태인들과 미국 대 선과 주 선거에 기독교를 지지하는 후보 자 세가 유익하다. 예컨데 제 2차 세계대전 이 후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이러한 배경 으로 해외정책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변경하는 외교정책으로 미국내 언론에 지지를 받기 위한 예로 보인다. 허나 예외로 전 대통령 카터와 오바마는 자신이 기독교 교인이지 만 팔레스타인 독립과 유태인 들의 압박 받 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와 번영에 지 원한 분들이었다.

미국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에 지역 싸움 에 참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 아 침공에 미국은 서방의 대표로 수많은 이 슬람 젊은이, 여자, 어린이들을 살해 하였다. 앞으로 미국이 외교적 압박으로 또는 군사 침투로 미국이 지배하기 원한 중동의 국가 는 이란 이라 보인다. 미국 트럼프의 제일 중 요한 중동지역 안보정책은 이란이 향후 핵 국가로 되지 못하는 것 이었다. 이전 오바마 대통령시 미국과 이란의 외교합의서는 이 란이 절대로 핵국가로 되지 않은 합의로 대 신 이란의 원유수출 금지와 경제제재를 취 소하는 이란과의 평화적 긍정적 내용이었 다. 허나 이와 반대로 트럼프는 이 합의서를 취소하고 이란을 미국의 적국으로 보아 앞 으로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이런 이란과 전쟁은 현실화 되지 않다고 본 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비밀히 핵무 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국방 목적으로 알려 지고 또한 이란의 국내 정치적으로 핵무기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란의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동안 세계시 장 원유 공급을 미국 자체의 에너지 개발과 사우디 등 타 국제 원유국에 의존하고 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최승홍 (법대 62)

다음 세계대전 (WW III)은 중동이 아니고 한 반도 가능성이 실제 대상 지역이다. 트럼프 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 (1993-2001)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 을 북한과 지속하고 결과 북미간의 합의한 체제 (Agreed Framework)을 싸인하였다.이 에따라 북한은 영변 핵발전소 일부를 이미 파괴하였으나 미국이 약속한 경수로뱔전소 (ELWR) 건설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지정해 북미합의서는 취소하게 되었다. 북한은 자체로 경수로발전소 건설 사업이 지난 10년간 지속하고 있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 전략의 이유를 제대 로 모르고 현 북한의 핵무장 진전에 관한 정 확한 정보가 없다. 미국 북한 전문가들은 북 한은 현재 15-60 개의 핵폭탄을 소유한다는 개인적 짐작일 뿐이며 확실한 자료가 없다. 또한 북한 대륙미사일 (ICBM)은 7,400 마일 이상 멀리한 타게트를 공격할 수 있다는 미 사일 태평양 실험의 성공은 미국이 잘 알고 있지만 현 생산, 조립 및 배치 상황을 잘 모 르는 미국 펜타곤은 대응 전술을 수립할 수 없는 현 문제이다.

트럼프는 대선 이전에 미국 언론에 본인이 백악관에 가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있다 했다. 당선후 2018년 6월 북 미간 싱가포르에서 첫번 정상회담은 트럼 프의 개인적 생각으로 되었다 생각된다. 내 용은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 원칙에 합 의하고 동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국 가 기본자격, 즉 국가 주권과 독립성에 미 국이 합의해 현 전쟁상태에서 한반도 영원 한 평화체제로 변화해야 정상적 외교관계 를 주장하고 미국도 소극적으로 동의하였 다 볼 수 있다. 허나 금년 2월말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세계 모든 정부들과 사 람들의 예상 밖에 현지에서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실무진이 북한 실무인에게 북한의 핵무기 현황과 자료를 요청해 북한측은 이 에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백악관 국가안보 고문 볼톤은 처음부터 북한과 협상으로 비 핵화 합의하는 방법에 반대한 인물이다. 이 인사는 과거 리비아 비핵화에 나토 군 전투 기가 국가원수 카다피를 공격하여 죽이하 려는 전례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 한에 대한 군사적 계획을 갖고있는 사람이 다. 또한 북한정권을 없애기위해 새 정권자 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한 해외 북한 인사와 CIA 작업은 정말 사실이다. 예컨대 김정남에 대한 미국 CIA 간첩들의 일본, 동 남아시아의 활동은 사실로 보인다. 즉 새로 운 정권을 평양서 만들어 김정은을 살해하 기 위한 리비아 카다피 경우와 같이 비밀리 에 공군 폭격기 사용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 다. 이런 수상한 활동 과정에 우연적 핵 사 고가 한반도에 수십만, 수백만 한인들의 사 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i)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대화에서 북한 핵무기와 대륙미사일 (ICBM) 을 폐기하자는 북미간 이해가 있었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북미가 원래 단계적 행동과 시간표에 따라 하자는 이해가 있었다. 미국 비핵화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실천은 가 술적으로 또한 현지 관찰과 검증 과정이 4-5 년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하노이 2차 정 상회담에서 미 국가안보고문 볼톤은 북한 이 대륙미사일 뿐만아니라 북한의 지역 중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대포, 화약무기 등을 즉시 모두 한번에 제거, 축소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결국 북한의 국방능력을 없 게 하여 미국이 자국적, 독립과 주권의 북한 을 없게 하자는 속셈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완전 실패의 이유라 보인다.

(iii) 미국은 아직 북한이 원하는 제일 중요한 이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트럼 프가 자주 언급한 것은 비핵화로 북한이 빠 른 경제발전과 미국 투자인들의 관심으로 막대한 경제성장을 하리라 표명 하였다.물 론 북한은 높은 경제성장을 원하고 있지만 우선 북한의 국가 주권과 독립성을 미국이 법적으로 인정하고 현 1953년 휴전합의를 평화조약으로 변경해 북한이 미국 등 자본 주의 국가들과 외교와 교역에 정상적 국제 관계로 원한다고 했다. 따라서 비핵화 시 작은 평화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진전되어 야 한다. 정전선언은 트럼프가 했더라도 이 는 의사 표명에 불과하고 국가 대 국가의 법 적 영구한 평화조약이 되어야 북한 자립의 제일 중요한 Deterrent 핵무기를 포기할 수

현 북한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의 제일 중 요한 정책은 이미 2011년 최고인민의회가 승인한 두개의 정책 이다. 즉 (1) 핵 무기를 계속 발전, 개발하여 국가 방위력을 향상시 켜 핵 무장으로 북한이 세계의 몇 나라와 같 은 지위로 향상되어야 한다. (2) 국가 경제 성장과 개발이 북한의 정책이다. 지금 북한 의 핵무기의 개발은 중지하고 있다. 또한 북 한의 두번째 국가전략인 경제 발전 정책은 향후 인민군의 규모가 축소됨으로 경제성 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평화조약으로 북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미국과 여러 나라의 협조로 북한의 경제발전 정책이 크 게 성공할 전망이다. 이제 현 4월 중 북한의 최고인민의회가 열리고 김정은의 집권 시 작 지난 2011년 상기한 최고인민의회의 두 개 전략 즉 핵국가로 상향과 또한 경제발전 전략 - 이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두개의 전략을 함께 실천할지? 미국과 평 화조약이 되지 않으면 완전 비핵화와 경제 발전은 가능할까? 미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 을 침공하는 경우 한반도의 핵 전쟁이 일어 나 3차 세계 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까?

남한은 솔직히 아직 미국의 속국이다. 한반

도의 독립을 위해 이미 세상을 떠난 한민족 의 애국자들은 지금도 울고 있다. 남한의 자 유와 독립은 아직 성취하지 못 하였다. 한반 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 미국 4 대국 사이 에 있어 우리 선조들의 어려운 삶과 고민의 정신은 잘 알려왔다. 미군들이 남한에서 떠 나면 남한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게 되리 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있다. 우리 조상의 정신을 점점 재생시키려는 문 재인 대통령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 다. 최소한 당장 북한의 매일 어려운 삶속에 있는 이웃 인간들을 도우려 개성공단 사업 을 댜시 행동화 제안은 미국의 반대로 포기 할 수 밖에 없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에 중요 한 관광지 금강산은 한반도에 위치하나 미 국의 반대로 한민족 일생의 꿈도 사라지고 었다. 현재 미국은 1개의 가격이 수억불 된 신형 폭격기를 한국에 계속 판매하여 미국 국방사업들은 큰 이윤을 내고 있고 매년 한 국 예산에서 남한 미군 비용의 당상한 부분 을 담당하고 있다.

북미관계를 건설적으로 도와하는 문재인

300호 | **2019년 4월 호**

자신과 청와대 안보인사, 보안기관 유능한 지도인들은 벌써 여러번 트럼프와 백악관 안보인사들을 만나 현 전젱상태에서 평화 로 갈 수 있는 남한의 외교활동을 했으나 이 제까지 모두 실패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남 북간의 판문점 정상합의는 점차 실제적 효 력이 없게되는 주 이유는 남한은 미국의 속 국으로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 특히 미국의 적국인 북한에 대해 남한이 관여할 자격이 없다라 하는 미국 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 의 마음 속이다. 세상에 수 많은 국가들이 자기의 국방과 외교에 독립된 나라들 이지 만 단지 남한은 국방과 외교에서 독립성이 없는 유일한 미국의 속국이다. 따라 예로서 미국의 제일 중요한 월남전쟁에 미국의 요 청으로 5만명 한국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 여 미국이 박정희 유신 정권을 호의적 인정 해주고 경제발전에 미국이 도와달라는 한 국의 부탁이었다. 여하간 불행은 한국 군 인 5천명 이상이 월남전쟁에서 사망한 사실 과 또한 한국 군인들이 월남 시골에서 수백 명의 민간 노인, 여자, 어린이들을 사격해 세 계적 반인도주의 끔직한 살인 사건이었다.

나는 196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 까지 반세기를 미국에 살았고 세계은행에 서 25년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후진국의 경제개발과 발전을 위한 일을 했고 또한 클 린턴 대통령 때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여 러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미국 역사에 지 금도 잘 알려진 맥나마라 씨는 미국 국방장 관 (1961-1968)으로 미국의 월남전쟁을 총 지휘한 인물, 결과 자신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정보로 월남전쟁을 시 작해 미군은 패배하고 5만8천명 미국 젊은 이를 죽게 한 슬픈 개인적 또한 미국의 비 참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였다.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주제로 제작한 기록 영화 "The Fog of the War"에서 미국 역사에 제일 큰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968년 세계 은행 총재로 역임했고 나는 같이 후진국의 가난 문제 해결에 일하였다. 최근 나는 미국 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트럼프 행정 부에게 알리고져 작년 2018년 3월 당시 CIA Chief 폼페이오에게 그가 평양 첫번 방문 전 에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발 위한 자세한 여 러 프로젝트 제안을 송부하였다.

세계에서 현대의 훌륭하고 정확한 지식을



ONE DOLLAR 지폐 후면에 담겨진 U.S. SEAL의 상징들

전무식 (수의 61)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리와 정통성을 상징하 며 외교문서 등 국가의 중요문서에 날인하는 데도 쓰이는 미국의 국새(U.S Seal)는 미국 여 권에도 일부가 있고 대통령과 각 연방 정부 및 그들 청사와 1불지폐의 뒷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 으며 그도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초창기 미국 13개 주 (STATES)가 힘을 합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1776년 7월 4일에 미국 연방의회(U.S.CON-GRESS)는 신생 미국의 국새 제정 위원회(U.S. Seal Committee)를 구성 발표했으며 그 위원 으로는 Benjamin Franklin, John Adams, Thomas Jefferson, 등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명의 디자인 공모와 수많은 회 의와 격론 후에 결국 William Barton의 것으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William Barton은 미 국 성조기(Stars & Stripes)를 제작했던 Francis Hopkinson의 도안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고 합니다. 또한 1775년 Richmond, Virginia의 St. John's Church에서 Patrick Henry가 행했던 유명한 연설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에서도 중 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U.S. SEAL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미 국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나서 1783 년 영미 간에 있었던 파리 평화 조약식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U.S. SEAL이 미국 지 폐 뒷면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35년 Franklin Roosevelt 대통령 때 이었습니다.

U.S. SEAL은 신생 미국이 크리스찬 믿음에 근 거위에 세워졌음을 나타내려던 건국의 조상 들(Founding Fathers)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 다. U.S. SEAL에 내재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은 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Faith), 소망(Hope), 사랑 (Love)을 그 중심에 나 타내려는 의도로 디자인 하였다. 1불 지폐 뒷 면의 왼쪽에는 신생 미국의 영적인 면을 나 타내려고 했다. 피라미드는 원래 고대 이집 트의 상징물인데 왜 미국 지폐에 들어가 있 는지를 의아하게 여긴 이집트의 사다트 대 통령이 카터 대통령에게 그 이유를질문했었 다는 일화도 있다.

피라미드는 약 4000 여년 전 고대 이집트에 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던것이 현재 까지 보 존되고 있음을 보아도 강한 지구력 (Stability) 과 엄청난 힘 (Strength)을 상징하는 건축물 임 을 알 수 있다. 신생 미국의 Founding Fathers들은 미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가호와 은 총 안에서 로마 제국 처럼 장구한 세월 인류 역사에 금자탑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굳

여기서 "NOVUS ORDO SECLORUM" 의 17자 와 "MDCCLXXVI"의 9자를 합친 수인 26자를 둘로 나누면, 두 세트의 13자가 되어 미국의 처음 13개 주와 같은 숫자로 맞추어 놓았다.

주심을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Hope)을

피라미드 위에 쓰여진 "ANNUIT COEPTIS" 는

영어로 하면 "GOD FAVORS OUR UNDER-

TAKINGS" 로서 신생 미국이 하고자 하는 모

든 일과 시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피라미드 아

래쪽을 감싸는 라틴어 "NOVUS ORDO SE-

CLORUM" 이라는 구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

New Order of the Ages"로서 신생 미국이 인

류역사상 최초로 왕정이 아닌 국민(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연다

이제 중간에 쓰여진 "In God We Trust"를 살펴 보자. 시편 118:8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

이"13"은 미연방 13개 주를 상징한다. 독수리 머리 위에는 13개의 오각형 별자리가 있고 그 별자리의 변두리를 이으면 커다란 육각형 의 다윗의 별 (Star of David)이 된다. 다윗 왕 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과 그 12 제 자를 합쳐도 13이 된다. 독수리 밑에 있는 올 리브 가지가 13개 이며, 잎사귀도 13개이고, 열매도 13개가 있다. 독수리가 입에 물고 있 는 리본에는 "E PLURIBUS UNUM" 이라는 라 틴어 구절이 쓰여 있는데 이를 영어로 번역 하면 "one out of many"로서 마태복음 18:12 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양 100마리를 먹 이던 목자(하나님)가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 면 99 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은 양하나를 찾아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성 어거스틴 (St. Augustine)이 "참회록"에 쓴 구 절에서 따오면서 13자로 맞추려고 " EX"에서 "X"를 빼 놓고 쓴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국조 (National Bird)인 독수리가 입에 물고 있는 리 본의 글로 써서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독수리 밑에는 가로선 13개의 방패와 세로 선 13개의 방패가 나열되어 있으며, 방패 오 른쪽에는 독수리가 13개의 화살과 13개의 올 리브 가지를 좌,우 발가락으로 각각 잡고 있 다. 피라미드도 13개의 돌 계단이 있다. 피라 미드 위쪽에 쓰여진" ANNUIT COEPTIS" 도 13 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Love)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많은 예에서 보는 것 처럼 미국의 Founding Fathers들은 신생 미국을 건립할 때 미국이 고대 로마처럼 오랫동안 인류 역사 에서 번영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나

지금의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 C. 도 초 대 대통령, 와싱톤 자신은 본래 "뉴 로마" 라 고 부르기를 원했지만 다른 이들의 반대로 오늘의 Washington D.C. 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림 속의 독수리는 왼쪽에 32개, 오른 쪽에 33개의 깃털이 박혀 있어 총 65개가 되는 데, 히브리어로 65는 "Yam Yawchad" 로서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Together in Unity"가 되는 데 시편 133:1 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 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서 인용된 것이다.

다시 오른쪽 깃털 수인 33이란 숫자는 고대 중동 지방과 영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숫자 가 된다. 영국의 Isaac Newton이 처음 만든 온 도계에서는 물의 비등점을 33도 정했었으며, 무슬림 교도들은 지금도 그들이 사후에 천국 에 가면 모든 사람이 33세의 젊은 모습으로 영생한다고 믿고 있다. 공교롭게도 33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중심축인 척추뼈의 총수와도 일치한다. (경추 7, 흉추12, 요추5, 천추 5, 미추 4를 모두 합치면 총 33 이 된다.)







센 믿음(Faith)을 나타내고 있다.

피라미드의 맨아래 계단에 쓰여진 "MDC-CLXXVI" 라는 라틴 숫자는 아라비아 수로 "1776" 임으로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던 해 를 나타냈다. 그위에 13계단이 있고 관석 (capstone)과의 사이가 떨어져 미완성으로 남 아 있음은 미국 이 라는 건축물이 아직도 지 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상징한다.

삼각형 capstone 안의 광채가 나는 눈동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불꽃같은 눈이 미국을 굽 어 살피신다는 성경구절(시편 33:14) 과 졸 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지 (omniscient), 전능(omnipotent) 하신 눈을 나 타낸다. 그 눈이 삼각형 으로 둘러 싸인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성부,성자, 성령) 을 또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실 "에벤 에쎌", "임마누엘", 여호아 이레"의 하나님 께서 신생 미국을 불꽃같은 눈으로 주야로 지켜 보호해

이 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의 이전 정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 오른 쪽의 상징물들을 살펴보자. 오른 쪽 둥근 원의 중앙에 크게 그려진 독수리는 화살이 그려진 쪽이 아니라 올리브 가지 쪽 으로 그 얼굴을 돌리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이 전쟁 (화살)보다는 평화(올리브 가지)를 선 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람을 신뢰하는 것 보다 나으며..."라 는 하나

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그

믿음이 미국의 건국 Motto가 되었다. 이모토

는 1863년 12월 9일부터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주화와 지폐에 "IN GOD WE TRUST" 를

써 넣고 있다. 이처럼 미국 초기 청교도들의

독실한 믿음에 근거해서 미국의 헌법도 만들

어 졌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은 누구나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

는 관례가 초대 대통령 조지 와싱톤 때부터

오른쪽에는 13개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은 위험한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 다. 허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남은 생명 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영구한 진심어린 메시지는 "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석가모 니 또한 천도교 창시자 최제우의 말씀이다. 이 "이웃'은 가족 외에 여러 이웃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혈연적, 정신적 이웃 중 어려운 삶속에 고생하는 수천만 한민족의 형제, 자 매와 어린이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 생각된다. 돈은 어디에 둘까?. 내가 오래 전

아프리카에서 Pope John Paul II 를 만난 기 회가 있었다. 교황님은 내게 물었다. "아, 당 신은 세계은행 주재대표이니, 당신 주머니 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교황님께 " 우리 돈은 주머니가 아니고 우리 심장속 깊이 있어야 됩니다." 하자 크 게 내게 웃으시며 "당신은 맞아. 돈보다 중 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며 악수를 청하셨던 기억이 남니다. 세계은행 은퇴

Potomac, Maryland 거주

의 대부분 이제 공산주의가 현실에 존재하 지 않음을 잘 알고있다. 오늘 러시아는 공산 주의를 오래 전 졸업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되었다. 중국과 월남도 공산주의를 오래 전 졸업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되었다. 북한도 소련 식 공산주의를 끝내고 국가의 민족주 의 사상으로 남한처럼 돈이 인간의 최고 가 치로 보는 남한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인간 의 정신적 가치로 건설적 사회주의 길로 가 고 있으나 이를 세계 자본주의 대표인 미국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울대학 또한 동창들

부와 자신이 위로 승진 만을 추구하는 관리 와 정치인들은 미국과 다른 정신적 기치, 민 족적 정치제도와 사회개혁을 말 하는 사람 들을 "빨갱이" 이라 하였고 5.18 광주사태에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관여 되었더라는 잘 못된 선전을 하고았다..

이곳 미국에서 이제 반세기 이상 삶을 살고 있는 나는 돈과 자유의 실질적 의미를 체험 하고 미국사회의 많은 장점이 있으나 동시

땅의 봄날은 암울하였다.

우리나라 어린이 동요에 "정이월 다가고 삼

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이 땅 에도 봄이 온다네" 라는 노래가 있다. 이 처럼

100년전 당시 빼앗긴 들에 잠시 찾아 왔던 이

오늘 우리가 즐기는 화창한 봄날은 누구의

피로 맞는 봄인가. 100년이란 오랜 세월 속

에 역사를 돌아보며 3.1절 그 날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과 함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배해 한반

도에서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자 불안을

느낀 조선 왕조는 민비를 중심으로 러시아

에 의지하여 일본의 침략 의도를 저지하려

이에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지르며 안하무인격의 침략 압박을

가속화했다. 이에 조선은 곳곳에서 항일 의

병의 반일 항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몰아 한반도에서 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침략 기반을 확립한데 이어

당시 서양은 민족 국가 건설에 이은 식민지

경쟁, 제국주의 팽창을 계속하면서 종국에는

세계 대전이라는 파국을 겪고 그 후속 조치

에 고심하고 있었다. 1918년 세계 1차대전 종

전과 더불어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

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고 선언함으로써 당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던

전 세계의 수많은 약소민족들에게 커다란 희

망과 용기를 불러주었다. 이는 전 세계 곳곳

에서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

로 창업하겠다는 학생들이 매우 많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얼마든지 좋고 편하고 돈 많

이 주는 직장에 갈 수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창업하겠다는 것입니

다. 실제로 많은 MIT 졸업생들이 졸업하자

"한국도 요즈음은 좀 나아졌는데 그것이 개

인들 잘못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한국 교육

방침이 틀린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니까 우

선 좋은 학교에 들어가 보자 하고, 주입식 교

육을 시키니까 창조적이 되질 못하는 것 같

습니다. 한국에선 모든걸 배울 때 진짜 자기

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

학 다니다가 미국에 오면 적응하기 힘든 경

그런데 미국은 그런데가 아닙니다. 교육을 어

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한국에선 '공부

못하니까 (취업은 안되고) 사업이나 하겠다'

라는 심리가 있어요. 여기선 아이디어만 좋으

면 써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점

은 전 세계가 미국을 본 받을 만 하지요. 나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50 가지고 왔는데, 머

리 가지고 써 먹을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또 MIT나 스탠포드 등에서는 졸업생들이 하

도 창업을 많이 하니까 '저 친구도 하는데 나

- 한 때 한국에도 진출하려 했던 걸로 알고

"한국에 가서 관련자들과 컨택을 해 보았는

데 안되더군요. 한 10년 동안 애를 썼어요.

는 왜 못해'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가 많아요.

있는데요.

마자 창업에 뛰어 들고 있었어요.

한반도를 결국 병탄하였다.

이강필 동문(공대 64, ASPEN 시스템스 대표) 정태영 동문(문리 71, 미주동창회보 논설위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나는 오늘 사 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익히 보았던 말이 다. 그러니 다시 그말을 꺼낸다는 것은 진

이강필 박사는 한국 같으면 은퇴 연령이 지 나도 몇 년이 더 지난 나이이다. 공대 64학 번이다. 그는 한 세대 전에 창업한 회사를 계 속 경영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제품 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시장에 내 놓기까지는 수년 내지 십년이 넘 게 걸린다. 또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 해도 시장에서 자리잡기까지는 또 몇 년, 몇 십년 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 시니어 기업가가 새로운 연구 개발 혁신에 몰두한다는 것은 "사과나무 정신" 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과실果實을 챙길 수 없는 일에 몰두 하는 것. 그건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이다. 다 버리는 정신으로. 아니면 목적을 의 식하지 않는 현재의 즐거움으로...

이강필 박사에 어렵게 연락이 닿아 근황과 지나온 세월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70여년 동안 실험실에서 맴돌던 에어 로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시켜 상 품화했다. 또 세계 최소형 컴프레서를 개발 했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제품 개발 에 열중이다. 미국정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 Technology of the Year Award, 세번의 R&D 100 Award 수상 등 수 많은 상을 받았다. 미국 우주기술재단 주최 ' 우주 기술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 미국엔 유학으로 오셨나요?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기술과 과학으로 유명한 MIT를 이야기 했는데... 그 때 어린 마 음으로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유학을 꿈꾸어 왔지요. 그러나 경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학금없이는 생각 할 수가 없었어요. 수십개 대학에 시도한 끝에 리서치 어시스턴트쉽을 어렵게 찾아 1972 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MIT에서 연 구 조교를 하면서 음향학을 연구했어요. 이 것이 나중에 에어로젤 기술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아 졸업했습니다."

- 지난해 어느 모임에선가 말씀하시길 젊 었을 때 노벨상이 꿈이었는데 MIT에 다니 다 보니 엔지니어링이어서 포기했다고 하 신 기억이 납니다. 순수과학에 미련이 있는 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순수과학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브레

이강필 (공대 64) 박사, 창업을 이야기 하다



이강필 박사가 미국 우주기술재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2012년). 재단은 "우주기술을 지구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용한 탁월한 본보기"라며 이 박사에게 영예로운 메달을 안겼다.

인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Global Impact신기술 개발과 그것을 응용해 서 제품생산까지 가는게 흥미가 많아요. 결 과론적으로 잘 된 것이지요."

- 창업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가졌나요?

"MIT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해보니 큰 회사 에 연구자로 들어가는 것은 현명한 길이 아

매하는 아스펜에어로젤(Aspen Aerogels, Inc., 2001년 설립, ASPN, NYSE)이다. 이 박사의 에 어로젤 상용 성공사례는 2002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 교재에 소개 되기도 했다. 에어로젤은 무게가 공기의 세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가 벼운 고체'라고 한다. 그래서 '꿈의 단열재', 21세기 차세대 소재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회사는 2003년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금이 제일 프로덕티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은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방식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은퇴할 계획이 없어요."

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정열을 다 바 쳐 범 세계적 문제 해결에 정진하고 싶었는 데 큰 회사의 관료 시스템에서는 매우 어렵 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부전공 으로 택해 공부를 했지요. 거기에서 혁신 기 술을 상업화하는 창업 과정도 배웠지요. 그 리고 졸업 후 6년간 이노베이션을 주로 하 는 회사들에 다니면서 실제적인 지식을 많 이 습득했습니다."

- 창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1984년도에 ASPEN이란 회사를 세웠습니 다. 회사 이름을 ASPEN이라고 한 것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Advanced Systems, Products, in Environment and eNgineering' 이었는 데 음소音素를 정리하니 ASPEN이란 이름으 로 딱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그 렇게 지었지요."

아스펜시스템스는 1999년에 미국 상무부 선정 최우수 10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 다. 이후 많은 기술 개발과 특허 등을 기반 으로 여러 회사를 창업했다.

대표적인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에어로 젤 상업화에 성공하여 초단열재를 생산판 촉진 프로그램(SBIR) 세계 100대 R&D 기업

그외에 트라이튼시스템스(Triton Systems, 1992년, 특수 Polymer 연구개발과 생산, 각 종 초첨단 국방에 필요한 특수물질 개발 생 산), 아스펜 프로덕트 그룹(Aspen Products Group, Inc., 특수 물 정수용 및 energy and moisture recovery막 개발, desulfurization catalysts), SI2 Technologies(2003년, 신개념 안테나 flexible, printable 생산), Sensera, Inc. (2003년, 심장마비 조기탐지센서), Aspen Compressor(2004년, 세계 최소 냉장 컴프레 서), FRX Polymer, Inc.(2008년, 친환경 투명 난 연재), Aspen MediSys, Inc.(2009년, 나노입자 온열 암치료) 등을 연달아 창업했다. Triton Biosystems € Aduro Biotech (ADRO, Nasdaq)

이러한 창업으로 그는 여러 부문의 수상을 얻는 기쁨도 누렸다. 2000년도에는 컴프레 서로 SBIR의 R&D 100 Award를 수상했고, 2004년엔 Nano Product of the Year상 수상, 2005년 포춘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25개의 첨단 개발 회사에 등재, 2006년 미국정부 중 소기업 기술혁신촉진 프로그램(SBIR)에 참 여한 1만7,000개 중소기업 가운데 톱56에

등재 등이다.

- 지금은 몇 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300호 | **2019년 4월 호**

"창업한 다음에 자금조달(펀딩)한 측에 넘긴 것도 있고하여 현재는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아스펜 시스템스, 아스 펜 컴프레서, 아스펜 프로덕트 등입니다. 요 즘엔 아스펜 컴프레서에 주력하고 있어요."

-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히 창 업을 많이 했는데 후학들에게 줄 수 있는 조 언이나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미국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창업을 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 국은 세계에서 인맥이나 가족 관계 같은 연 줄 없이 오로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소기업이 창업하기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지요.

그렇지만 강한 열정이나 인내 등이 없으면 안돼요. 또한 유능하면서도 좋은 근로자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얻는 비결은 좋은 급료와 함께 그들 에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개인이나 팀 이 개발하는 기술에 상당히 많은 소유권을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최고 40%까지 이들 에게 주식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종업 원들이 자기 회사로 여기고 열심히들 일 하

나는 CEO로서 기본 방향만 주고 나머지 일 은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요즘엔 난 원래의 내 전공분야인 기 술적인 측면에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 지요. 창업한 지 첫 15년은 매우 힘들어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 이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말도 없 지요. 회사 여러개 하다 보니까 골프 칠 틈도 없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밤이 건 낮이건 잠자는 시간까지 신경 쓰지 않으 면 안돼요. 그래서 나하고 사업한 사람들은 모두 미국인들인데 모두 이혼을 많이 하더 군요. 두 세번 씩 해요. 난 아내의 인내와 성 원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지요.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작하면 첫 10년 15년 은 죽자 살자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큰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개인적 고충을 감내해야하고 꼭 그것을 해내겠다는 깡(결 기)이 필요합니다. 내 파트너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 같이 하다가 스트레스로 밤 에 잠이 안 온다며 그만두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뿐 아니라 파이낸셜 리 스크까지 떠 안아야 하지요. 그런 것을 무릅 쓰고 밀고 갈 깡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 한국에는 젊은이, 이를테면 대학 졸업한 20대나 30대들이 곧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 드는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MIT에 가 서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았더니 졸업 후 바



김인수 (사대 55)

기가 되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가장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이곳 미주 한인통포들이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독립 추세에 편승하여 대한제국은 국헌을 상실했 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해 1919년 1월 18 일 파리에서 열린 파리평회의에 한인대표를 보내 독립을 호소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들은 대한제국 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웠했다.

필자의 큰 고모부는 1904년 하와이 이민으로 미국 본토 한인이민 제1호로(윤응호 고모부, 김도연 고모님. 사진을 통해 결혼) 일일 75센 트 임금에서 25센트를 독립운동 자금에 기부 하였다고 한다. 큰 고모부의 후예로서 난 항 상 그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민족자결주의 운동은 일본 유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어 유학생들은 조선 청년독 립단을 조직하고 1919년 2월 8일 동경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한국 유학생대회를 열 고 60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독립을 요구하

최첨단 기술을 보내 한국에서도 해 볼려고 요. 기술 성격상 대기업이나 차 하위 대중소 기업 정도가 해야 되는데 삼성이나 LG 등 가서 세미나도 해보고 했는데 안되더군요. 한국이 그 동안 크게 성장해서 앞으로도 지 속 가능한 기술을 도우려고 했는데 안되었 어요. 사실 아까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만 아직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자부심이 있다면 어 떤 것이 있나요?

"에어로젤은 1930년대부터 물성이 좋은데 실용적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집중적 연구를 했는데 출장 중 플로리타 모텔에서 묵을 때 갑자기 해결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MIT에서 음향 학을 배운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때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 이었지요. 그리고 처음 회사 세우고 곧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프로그램(SBIR)에서 1백만불 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지요. 내가 큰 임팩트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지요."

- 요즈음엔 어떤일에 집중하고 있나요?

품과 비교 해 성능이 월등한 최첨단 컴프레 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에서 이용되는 크거나 작은 컴프레서들 보 다 훨씬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만드는게 목 표입니다. 50년 이상 써온 기존의 컴프레서 디자인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 이지요. 현재 지구온난화가 큰 이슈가 되어

는 선언서(독립선언문)와 결의문을 발표했 다. 이에 일본 경찰은 그자리에서 주동자 60 여명을 체포했다. 동경의 2월 8일 독립선언

은 곧장 국내의 민족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알려져 3.1운동의 또다른 기폭제가 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필자는 대한제국의 망국의 역사를 기술하면 서 어린 나이에 일본 선생님에게 반항하던 일, 창씨개명으로 일본 이름을 가진일 등을 잊을 수 없다. 제2차 대전(일명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최후 발악으로 대나무를 창처럼 뽀쪽하게 끝을 깎아 총알 대신 육탄 공격을 하였고 한국의 청소년을 강제로 잡아다 가미 가제 독신용 전투기 조종 훈련을 시켜 미국 전함의 굴뚝에 폭탄 자살을 하게 했다. 또 한 국의 꽃다운 소녀를 강제로 붙잡아 남양군 도, 일본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지렀다.

한국의 모든 물자와 쌀, 김, 인삼 등을 일본 으로 반출하고 한국인 말살 정책을 감행한 그들의 만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1919 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에서는 일본군 중 위가 마을사람에게 알릴 것이 있다고 속여 신도 20여 명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총격을

가한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교회에 불을 놓 아 다 타죽은 끔찍한 천인공노할 만행도 있 었다. 우리는 이러한 만행을 잊어서는 안된 다. 제암리 참변은 안중근 거사 뒤의 보복 행

현재 헌정 73여년이 지나도록 남북통일이 않 되는 원인의 하나는 남북의 국민들이 '민족 의 문제는 민족 스스로'라는 민족자결주의 에의 구심력 부족으로 진정 통일을 원치 않 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정책을 바꾸어 "구 심력 강화"와 "원심력 배제"(미국, 중국, 러시 아, 일본)를 하여야 한다. 독일의 통일은 18 년간 베를린 장벽을 두고 동독과 서독의 국 민이 통일을 원했고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망신은 일 제 강점기 36년과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해외 동포들과 대 한민국 국민들은 명심하여 다시는 이러한 과 오와 수치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틀러에 의해 6백만 유태 인이 학살당하는 만행을 대대손손 후손들에 게 거듭되지 않기를 빌며 "잊지는 말자. 그러 나 용서하자" 는 표어를 만들어 애국심과 정 체성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물 러서지 않았다. 마치 용수철처럼 일제의 탄 압에 눌리고 눌렸어도 눌리지 않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은 우리 선조들의 독립에 간절 한 염원과 숭고한 희생의 결과로 이룩했음 을 강조한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세계가 몰두하고 있 지요.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지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 은 앞으로 점점 수요가 크게 증가할 냉장고 나, 에어컨디셔너, Heat Pump 등에 광범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 율을 10%~30%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지요.

지금 전부 이론적으로는 다 확립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중입니다. 특허도 내기 시작했습니 다. 제 3차 프로토타입(모델 원형)이 몇 달 내 에 완성해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장차 이 런 제품들이 전세계에 널리 보급되면 글로 벌 임팩트가 지금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아주 익사이팅 되어 일하고 있어요."

그는 미니어쳐 쿨링시스템으로는 오래전부 터 그의 회사가 월드 리더라고 했다.

- 은퇴 계획이 있나요?

"우리 어머니가 현재 살아 계시는데 연세가 105세 이십니다. 내가 어머님만큼 산다면 30 세 이상 살 것인데 내가 지금 은퇴를 하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는 지 금이 제일 프로덕티브 한 것 같아요. 내 나이 에... 모두가 은퇴했는데...이 처럼 프로덕티브 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몸과 건강을 주 신 내 조상님들 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서 어머님 저 세상 가시기전에 혁신적인 컴 프레서를 개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구태어 은퇴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방식을 좋아하니 까...그래서 은퇴할 계획이 없어요."

이강필 박사 부친은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후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시 생물학과를 설립했다. 6.25때 납북되었다. 그의 외조부 신현모는 1917년 부터 20년간 도미渡美 독립운동 한바 있고 귀국후 제헌국회의원을 지냈다. 그의 외증 조부는 황해도 연백군 거부였다. 자수성가 한 부를 기반으로 농촌에 교회를 세워 농민 계몽에 헌신했고, 소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자녀들을 교육시켰으며, 여러 마을 주민들 을 위한 상부상조 기금을 만들어 마을 주민 들의 어려움을 돕는 등 자신이 이룩한 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되돌렸다. 그러나 그 거 대한 부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황해도가 공산치하에 놓이면서 하루 아침에 모든 것 을 잃었다. 그의 가족사는 한반도에서 한 시 대를 관통하는 드라마틱한 근 현대사의 생 생한 증언이다.

이 박사는 외증조부를 삶의 귀감으로 여기 며 살아왔다고 했다. 이 박사의 부인 송재 옥 여사는 널리 알려진 도예 조각가(ceramic sculpture artist) 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 '벅수 (장승의 다른 말)' 와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발 견되는 고대 또는 선사 시대의 석상 등으로 부터 영감을 받은 조각 품들을 미국에서 제 작 전시 활동을 하고 있다. 송여사의 설치 작 품 "Life Interconnected" 시리즈는 델타 항공 의 국제 터미날 두 곳에 상설 전시되고 있 다: 애틀랜타와 샌프랜시스코, 그의 작품은 일부 인터넷(www.jaeoklee.com)에서 엿볼 수 있다. 송여사는 예술 부문에서 창작을 하고, 이 박사는 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혁 신 기술을 창조하면서 부부는 서로 창조의 삶을 보내고 있다.

"요즘엔, 지난 수년전부터 시작해서, 기존 제

6:30 pm - 10:00 pm 축하음악회(카네기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8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9년 6월 21일 (금) ~ 23일 (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Tel: 201-461-9000

호텔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9년 6월 9일까 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 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 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9.00 plus tax,14.625%/ 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최용렬 님 (201-582-5214) 위 호텔 직원분께 직접 전화로 예약하 시면 편리합니다.

②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doubletree.com에 들어 가셔서 왼쪽에 Special rate code를 클

릭하시고, group code에 F71을 타입 하시고 enter key 누르시면 예약을 하 실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 가격 (\$139.00 plus tax, 14.625% / night)은 평의원 회의 기간 (6월 20일~24일) 동안 만 적용됩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에 도착 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b 또는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실 수 있습 니다.

① 한인 Call Taxi 안내

JFK 공항 Taxi: 21 miles (\$50+Toll=\$70)LGA 공항 Taxi: 14 miles (\$35+Toll=\$55) EWR 공항 Taxi: 20 miles (\$45+\$14=\$59)

* 한인 Call Taxi (김 과장):

718-888-8888, 718-888-9999

* 한인 Call Taxi는 공항 도착 24시간 전 에 예약하고, 예약시, 항공사, 항공편 및

DOUBLETREE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George Washington 09 Mar 201 TripAdvisor Traveler Rating: "Excellent hotel..." (@@@@@ **00000**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도착 직후, 드라이 버가 전화로 연락 줌

2 Yellow Cab 이나, 우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이 한인 Call Taxi 보다 15~20% 비싼편

응급 상황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

신응남, 646-523-9606 허유선, 973-865-1749 문현호, 646-770-7028

About 'Summer Fantasy'

글: 장수인 (음대 76) Philharmonia Boston 단장

6월 22일 (토) New York Manhattan의 Carnegie Hall (Zankel)에서 열리는 제 28차 평의원회의 축하 공연인 'Summer Fantasy' 준비가 제15대 신응남 회장 중 심으로 동문 음악인들과의 협력으로 순 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1부는 챔버뮤직 연주로 보스톤 과 뉴욕, 필라델피아의 젊은 동문 연주자 들 20여 명으로 구성된 'Soloists of New England'(SONE) 챔버그룹이 화려하고 우아한 'Summer Fantasy' 음악을 연주 한다. 특히 Vivaldi의 사계 중 Summer 연 주는 쳄발로와 함께하여 고전 음악의 묘 미를 한껏 선사하고 챔버, 5중주, 7중주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로 화려하고 상쾌한 실내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부는 성공적인 음악가의 길을 달려오신 Soprano 강미자의 유명 한국 가곡과 아름 다운 아리아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문현호, 장주훈, 노영한, 바리톤 한 경진(우측 포스터에 사진 참조)의 아리아 와 한국가곡의 솔로, 듀엣, 4중창으로 짜 여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 다.

미주 총동창회의 축하 공연인 만큼 여러 지역의 동문들, 선후배가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며 마음과 재능, 동문애를 나누는 뜻깊은, 최고 수준의 음악회를 꾸미고자

함께하는 세지역의 동문 연주자들은 각 자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리허설을 위 해 NY과 Boston을 왕래하며, 서울대 동 문들께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 사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 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동문들께서, '아름 다운 서울대인의 밤'으로 추억될 소중한 카네기 공연에 꼭 참석해주시고 열렬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축하 음악회 티켓 구입

미주동창회 축하 음악회 "Summer Fantasy"의 공연 티켓의 구입은

일반인은 Carnegiehall.org/CarnegieCharge 212-247-7800 or Box Office At 57th and Seventh Ave. € 이용하시고 (티켓 종류 \$50, \$40, \$30),

서울대 동문은 위 홈페이지 혹은 718-463-3131을 이용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동창회 hold 티켓 종류는 \$100, \$50입니다. 판매가 아니라 non- profit 후원의 형식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시작은 4월 15일부터**입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oprano: Mi Ja Kang

Philharmonia Boston / Soloists of New England

후원: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뉴욕지역 골든클럽 주최: 서울대 미주동창회

협찬: SĕAH Steel USA LIC HOTEL Peter Shin Law Firm Baby World Trading





Hansu Enterprises 백승원 위장내과





300호 | 2019년 4월 호

Celebration Concert for 28th Delegate Assembly of SNUAA-USA

Presen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尋花 (심화)

김동근 (공대 60)

올 겨울 남가주는 유난히 눈 비가 많이 왔다. 보통 눈에 잘 안 띄던 10,000ft 급 San Gabriel 산맥은 흰 눈으로 마치 뭉게구름 피어 오르듯 파란 하늘을 돋보이게 한다. 계절은 어느덧 70도를 웃돌고, 카톡방 친구들은 아름다운 꽃 경치 사진으 로 봄 소식을 전하노라 심심찮게 카똑 카똑을 울린다. 제영혜 씨는 Lake Elsinor 부근이 최고라 한다. 나 또한 4월 첫 주 가기로 한 Joshua Tree National Park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다. 砂漠(사막)의 野生花(야생화)는 까다롭기는 하 지만, 한번 피면 대단히 搖亂(요란)하다. 비를 기다려 몇 10년 만에 피는 꽃도 있 어, 한번 놓치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 北核(북핵) 관심은 한참 뒤다.

華奢(화사)한 봄이 오면 언제 보아도 좋은, 杜甫(두보)의 絕句(절구)가 생각 난다.

黄四娘家花满蹊 황사낭네 집 꽃이 골목길을 가득 메웠네 황사랑가화만혜

千朶萬朶壓枝低 천타 만타 꽃가지는 무거워 축 늘어지고 천타만타압지저

留連戱蝶時時舞 꽃 사이로 노니는 나비는 들락날락 춤추고 유연희접시시무

自在嬌鶯恰恰啼 아리따운 꾀꼬리는 짹짹 노래하네. 자재교앵흡흡제

이 詩는 杜甫의 江畔獨步尋花(강반독보심화) 중 6번째로 안록산의 난을 피해 중 국 사천 성도 에 살 때 봄을 만나, 詩의 제목 처름 江邊(강변)을 혼자 걸으며 꽃을 鑑賞(감상)하는 詩다.

동네에서 유명한, 딸이 넷이나 되는, 색갈의 으뜸인 黄의 성을 가진 집 뜰의 나무 가 꽃이 만발한다. 꽃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늘어 질뿐 아니라 그 꽃 향기 로 골목을 가득 메운다. 꽃을 찾아 나비도 꾀꼬리도 모여든다. 물론 잘난 총각 못 난 총각들도 꽃을 鑑賞(감상) 하는 척 담장을 기웃거리며 모인다. 봄이 마침내 무 르익었다

새가 있는 곳에 어찌 감히 나비가 모이겠나 마는, 酷毒 (혹독)한 겨울을 같이 살 아 남은 衆生(중생)들이라 歡喜(환희)의 Rite 를 다같이 즐기자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려는 것 아니겠나? 뜻을 이루지 못한 儒學者(유학자) 杜甫로 서는 매우 드물게, 즐거운 마음으로 쓴 詩다.

蹊:(혜): 좁은 길

朶(타): 늘어지다, 가지에서 휘늘어진 꽃송이. 留連(유연): 헤어지기가 섭섭해) 계속 머무르다.

蝶(접): 나비.

尋(심): 탐색해서 찾다.

恰(흡): 흡사하다(恰似--), 여기서는 중국 발음으로 새 우는 소리 (恰恰 qiàqià)

啼(제): 울다, (새나 짐승이)울부짖다. 畔(반): 밭두둑, 가장자리, 경계.

야생화 만발한 초원

제영혜 (가정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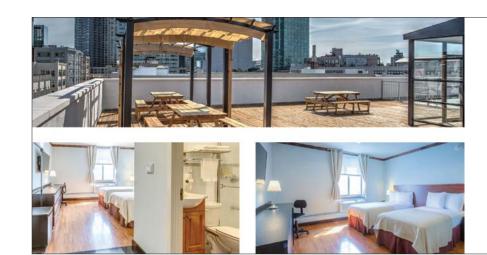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캘리포니아의 들판이 완전 "악" 소리 나게 멋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름 모를 노랑, 주홍, 보라, 초록의 꽃들이 어우러져 온산에 물감 을 뒤엎은 듯 하다.

Los Angeles에서 200마일 북상하여 Carrizo Plain National Monument를 찾았 다. 남북으로 50마일 동서로 15마일 20만 에이커가 넘는 대평원의 자연 그대로 의 아름다움에 끌려 연중행사로 한 번씩 꼭 찾아가는데 역시 올해도 나의 기대 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곳도 한국 사람들께 많이 알려져 군데군데 카메라를 들이미는 반가운 한국 사람도 눈에 띈다.

South entrance에서 North entrance 45 마일을 달리면 노란 색의 야생화 들판 이 자태를 뽐내며 같이 사진 찍자고 나를 유혹하고, 차 도로에서 한 1마일 걸어 내려가야 하는 Soda Lake는 오래전엔 이곳이 바다였음을 증명하며 나를 꽃사이 로 걸어 호수까지 가게 만든다. North entrance에서 Bakersfield로 향하는 58번 도로로 달리면 왼쪽으로 Temblor mountain을 끼고 내려오게 되는데 도저히 차 를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장관이 계속된다.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초원의 야생화 와 함께 하루를 지내며 자연의 대단함을 또다시 느끼며 또 각박한 일상을 살 에 너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김승호 (공대 71)

At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718-406-9788 reservations@lichotelny.com

LIC HOTEL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김은한 (의대 60) 회보 고문

1921년 금관총에서 금관이 최초로 발견되 었을 때 금관은 의례 왕이 쓰는 것이라는 것 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광 복 이후에는 함께 출토된 여성용 굵은 귀거 리 (태환 이식)가 있어서 무덤의 주인이 여 성이라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발굴 유물도 금귀거리, 금팔찌, 금반지, 금동신발 금 장식 류가 7.5 kg 이나 되어 상대적으로 무기류 를 압도하고 있어 무덤의 주인은 여성이라 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러나 금관에 매 다는 장식이 남성용인 가는 귀거리가 발견 되어 무덤 주인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많게 되었다. 2014년에 금관총에서 "이사지왕도" (爾斯智王刀) 라는 명문이 새겨진 칼집이 발 견되면서 또다시 무덤 주인이 누구냐는 논 란이 떠오르게 되었다. 윤상덕 중앙 박물관 연구관은 금관총 봉분을 둘러싸고 밖은 호 석의 둘레가 45m인데 동상 마립간의 호석 은 50m가 넘는다고 하며 금관총은 마립간 의 무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증언하였다. 또 창, 화살촉, 마구, 갑옷, 등 부장품을 분석 한 결과 피장자는 남성이었다는 결론을 얻 었다. 이사지 왕은 신라왕이 아닌 마립간이 아니라 6부의 최고위층인 귀족 신분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신라에서 왕의 호칭은 왕만 쓰던 것이 아니었다.

왕의 친족들에게도 갈문왕이라는 호칭을 주어 왕의 아버지, 장인, 동생, 여왕의 남편 등에게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서 신 라 초기에는 2인자 기능을 하고 있었다. 선 덕여왕 남편은 음갈문왕 박수월 (朴水月) 또는 차칠왕으로 불렸고 원성왕과 왕위 경 쟁을 벌인 김주원은 명주 (溟州) 군왕으로 불렸다. 이처럼 금관총의 주인도 왕이 아니 라 귀족 출신으로 보여진다

Ⅱ) 1924년에 발견된 금령총과 교동금관은 10여세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내용은 이미 전주 컬럼에서 말한 바 있었다.

Ⅲ) 서봉총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발굴 되었다. 남성 고분에서 흔히 보이는 큰 칼 이나 관모가 나오지 않고 태환 이식 귀거 리를 하고 있어 여자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장품에는 곡옥을 꿰어 만든 목 걸이, 금반지, 비취곡옥을 단 가슴 장식, 금 팔찌 등을 참작하면 피장자가 여자 였음을 확신할 수 있다.

부장품 중에 은으로 만든 그릇은 연수원년 태왕신묘 (延壽元年 太王辛卯)라는 명문이 새겨져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든 무덤의 조성 연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구 려 장수왕 (413-491)의 년호가 연수라는 점 으로 미루어 신묘년은 AD 451년으로 생각 된다.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때라 장수왕의 은합이 부장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신라 눌지왕 재위 년간이었다.

왕도 자격이 있어야 금관을 쓸 수 있다.

IV) 천마총은 1973년에 발굴 되었다. 21대 소 지 마립간(479~500)이 사망하자 그의 6촌이 었던 지증마립간이 6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지증왕 (500~514)이 되었고, 76세로 사



금령촌 금관

금령촌 묘주는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금관에 곡옥 이 달리지 않고 있다.

망하였다. 지증왕 때 지금까지 내려오던 순 장 풍습을 폐지했고 이때 나라 이름을 신라 로 정했다. 지증왕의 아들 법흥왕 때부터 불 교가 공인되고 대형 고분을 만들던 적석목 곽분이 사라지고, 호화금제품 부장을 금지 하면서 더이상 금관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김병모 박사는 순장의 풍습을 중지시킨 지 증왕이 천마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천마총에는 일절 순장의 흔적이 없는 것 은 물론이다.

V) 황남대총은 대릉원에서 제일 큰 무덤으

로 쌍분이다. 북분이 왕비의 무덤이고 남분 이 왕의 무덤이다. 북분은 은제 허리띠에 부 인대 (夫人帶) 라고 쓰인 명문이 있어 왕비 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남분은 60세 전후의 남자로 순장된 것 으로 보이는 여자 유골과 함께 매장되어 있 었다. 발굴된 유물은 금관이 나올 것을 기대 했는데 은관과 금동관만 출토 되었다. 도대 체 금관은 어데로 갔을까?

"요시미츠 쓰네요" 는 그의 저서 "로마 왕국 과 신라"에서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을 실성 마립간으로 보고있다. 그는 미추왕의 사위 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며 성골왕족으로 금관을 쓸 자격을 가 지고 있지만 실성마립간은 성골이 아니라



황남대총 반지

황남대총 금관은 왕비가 주인이고 왕은 자격 미달 로 은관을 쓰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왕비의 손가락 이 있어야할 위치에 오른손에 5개의 반지를 끼고 있는 사실이다. 예전 로마사람들은 양손에 많은 반 지를 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신라에는 로 마의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 듯 하다.



금령촌 유리잔

금령총에서 똑같은 형태의 유리잔이 2점, 합천 옥 전 M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표면에 청색점을 두 줄로 찍은 것이 특징이다. 옥전 출토품은 서아시 아의 유리잔이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발굴된 유일

서 금관을 쓸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왕비는 금관을 쓰고 실성은 은관을 쓰고 누 워있는 것이다. 실성이 눌지에게 피살 당했

는데도 불구하고 왜 황남대총 같은 대형 무 덤을 만들어 주었을까? 요시미츠 츠네오는 이에 대한 답변은 실성을 먼저 보지 말고 왕 비를 먼저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즉, 왕비의 지위가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21

요시미추의 언급에 반하여 필자는 내물마 립간의 손을 들어 주었다. AD 360년 내물마 립간 때 두번에 걸쳐 위두라는 신라 사신이 고구려 사신과 함께 전진(前秦) 황제 부견 (符堅)을 접견했는데 부견이 위두에게 묻기 를 "해동 (海東)의 형편이 옛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함이냐?" 고 하거늘 대답하 되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 변혁, 명호개역 과 같은 것이니 지금이 어찌 예와 같으리 오 하였다. 이는 당시 석씨 세력이 물러나 고 김씨 쪽으로 급변 시기였고 문화적으로 는 적석목곽분, 황금문화, 금관문화가 시작 되는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고구려 신라 가 연합하여 백제, 가야, 왜 세 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던 때로 내물마립간은 격동하는 제반 정세의 중심에서 최선의 역활을 훌륭 하게 수행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사후에 세 운 무덤도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어 준 것 이 아니겠는가.

내물, 실성 두 사람은 두명 모두 미추왕의 딸과 결혼했고, 두 명 모두 성골 왕이 아니 었으며 두 명 모두 금관을 쓸 자격이 없었 다. 그러면 누가 황남대총의 주인일까? 눌 지 마립간이 실성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죽 인 사람을 고분의 주인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물 마립간이 황남대총 의 주인이다.

지금까지 금관을 쓸 수 있었던 6명을 순서 대로 정리해 보면 금관총의 주인은 귀족이 었고, 금령총과 교동금관의 주인은 어린 아 이였다. 서봉총은 성인 여성이 주인이었고, 천마총의 주인은 순장의 흔적이 없는 지증 왕으로 김병모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황남 대총 북분은 왕비로 추정되는데 남분의 주 인은 필자의 의견은 내물 마립간으로 추정 되지만 앞으로도 금관의 주인을 찾아내려 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39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

특별출연: 이정석 박사 오보 독주, 뉴욕글로리아여성합창단(지휘:서혜영) 기쁨 되시는 예수, 주기도, 오 깊으신 시랑, 주이름을 찬양해, Green Sleeves, 노래의 날개위에



■ DATE: SUNDAY (일요일), May 5, 2019 at 6PM

■ PLACE: 뉴욕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 HYO SHIN BIBLE CHURCH

42-15 166th Street Flushing, NY 11358

최: 뉴욕예술가곡연구회

원: J&A USA(대표 김윤호), 두리하나USA(이사장 조영진 목사), 하은교회(고훈 목사). 동산교회(이풍삼 목사), 미동부해군동지연합회(회장 김찬수), ▶★한국일보, TKC-TV

서병선 회장님은 2000년 3월 제 1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를 열어 성금을 직접 전달하기 기하는 기계하면 는 아이아는 물로 내가 들어 받는데 가득가를 들어 하라고 가급 단말하기 위해 탈복자들의 본거지인 중국 현지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산골짜기 마다 무수한 탈북 여성들이 성의 노예가 되어 숨어살고, 대부분 탈복자들은 산속이나 외딴집 등지에서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숨어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으로 마다 시간님 중시에가 중소계 할 이 마다마는 중시민간가고 있었다니다. 구모인 탈복사들이 불잡히면 강제로 복용시켜 중신 행무소로 보내가나 처형시키는 참혹한 비극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봄과 가을 지난 20년동안 탈북난민구출 음악회를 열어.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은 성앙을 다해 현신대로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 생명 살리기에 뜻을 함께 하신 가곡연구회 김윤호 이사장님 내외분과 이사 회원님 여러분과 뉴욕동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귀한 도움이 수 많은 탈복자들의 생명을 구출해주셨습니다. 뉴욕동포들의 감동적인 동포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뉴욕에술가곡연구회는 오는 5월 5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제 39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를 갖습니다. 3대를 이온 북한독재는 굴주림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용하기를 처음하기는 기를 가는 하는 하는 하는 등에 유가 되는 수 8년 분드가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선 무고한 탈복자들을 25만명이나 처형시킨 반인륜적인 잔약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올해들어 남북한것부 모두가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가혹해져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70년 민족분단의 비극도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가 중에 아이라는 2.0년 근학은 다 에그 그 에걸의 최국에 조리가 많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신문화 부재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은 국민이 깨어나 정신문화 확신에 눈을 들려야 합니다! 소박, 정책, 지청, 사랑... 등 문화 정신을 공급해주는 가곡보급이 절실합니다! 고난의 처한 우리의 혈육인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출하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킬 가곡보급운동을 펴는 오늘 음악회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요는 음악회 성금은 1,500 여명을 한국과 미국으로 구출시켰고, 탈북자 구제에 목숨바쳐 현신해 온 천기원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두리하나 USA (이사장 조영건 목사)로 전달됩니다. 뉴욕정상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은혜로운 성가와 주옥같은 한국가곡과 세계 명가곡을 독창과 중창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 놓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문화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22일 뉴욕에술가곡연구회 이 사 장 김윤호 법률고문 천일웅 회 장 서병선 드림

TICKETS
S15.00 예매서 | A 반디서점 147-22 Northern Blvd. T. (718) 353-441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300호 | 2019년 4월 호 22



정선주 (간호 68)

세상의 끝을 가다

End of the World, Southernmost point of the World

Cape Horn (55 58' 47" S)은 세상 끝에 놓여 있는 바다위로 1394 feet 올라온 작은 섬이 At the end of the world. 고 칠레 영토이다. "Below 40 degrees latitude, there is no law; below 50, there is no God."



이곳은 항해자들의 무덤으로 여길 만큼 지 나가기가 아주 힘든 곳이라,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지리시간에 배워서 기억나는 마 젤란 선장도 Cape Hom으로 돌아오는 것 을 꺼려하고 이 길을 피하다 현재의 마젤 란 해엽을 발견하게 된다. 1616년 네델란드 인 le Maire and Schouten가 Cape Hom을 발 견하고 자신의 expedition을 도와준 네델란 드 Kaap Hoom 지명 이름을 따서 Cape Hom 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아침 7시 150명을 태운 Stella Australis Expedition ship 선장은 우리가 Cape Horn에 Landing 할 수 있다고 방송을 했다. Landing 할 chance는 50%라는데 우리의 운이 좋은 날이다. 배에서 몇명씩 Zodiac을 타고 가 서 Cove에서 나무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와 ~ 멀리 높이 20 meter 되는 강철로 조각된 Cape Hom Monument가 우뚝 서있다. 16세 기에서 20세기 사이 유럽에서 멀리 이곳 대 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Cape Hom을 지나 갈 때 남극에서 몰려오는 바람때문에 10층 건물 높이의 거센 파도와 조류 그리고 70 마일의 풍랑으로 10,000명의 선원들, 800대 배들이 이곳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나는 기념비 앞에 있는 대리석 현판 위에 스페인말로 적혀있는 시를 보고 있었다. 누 군가 영어로 번역해서 말 해주는데 그저 감 격에 벅차게 들렸다. 지금도 칠레 시인 Sara Vial이 1992년에 쓴 시를 가끔 읽을 때 마 다 Cape Hom이 생생하게 내 앞에 보이고



I am the albatross that awaits you I am the forgotten soul of dead mar-

Who passed Cape Horn From all the oceans of the world.



the Chilean Fjords

But they did not die in the furious waves. Today they sail on my wings Toward eternity, In the last crack Of the Antarctic winds.



이 섬에는 오로지 한 가족만 살고 있다고 하 는데 우리가 간 날 새로운 가족이 이사 들 어 오고 있었다. 너무 외로운 이곳에 오래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닐터이니, 툰두라 지 역 기후로 이곳에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특 별한 아주 낮은 식물만 살아 남아있다. 작 은 등대와 조그만한 chaple뿐 온 주위는 남 극으로 가는 저 멀리 Drake Passage 바다만 보이는 듯 하다.



1914년 Panama Canal이 개통되어 많은 상 선들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기 위해 이곳 을 항해하지 않아도 되어 선원들에게 천만 다행이다. Celebrity cruiseship의 여행객들은 날씨가 좋아 운이 좋으면 그저 갑판 위에서 멀리 Cape Hom이 보인다고 환호성을 지른

다고 한다. Cape Hom (이곳을 방문하는 여 행객은 드물고 행운아이다.)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면서 자연에 순응해야 함을 받아들 이며 내려오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살아 있 음을 다시 감사하게 여기며, 혼자 중얼거렸 다. 내 이름이 선주(신선이 타는 배) 라 Cape Hom까지 올 수 있었고 살아 나가게 되는게 아닐까? 작년 Norway 여행하면서 유럽에서 제일 높은 장소인 North Cape 북위 71도에



들렸다. 너무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2010년부터 우리는 해외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 세상에서 제일 긴나라 남미 칠 레를 좋아한다. Santiago 북쪽 Atacama Desert에서 부터 Bariloche, Puerto Vara, Osono Volcano Hike, Chiloe Island 그리 고 Patagonia,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은 이번까지 나에게 3번씩 찾게 해 준 곳이다.



Pueto Natales를 거쳐 Punta Arena에 도착한 다. 2번이나 Strait of Magellan을 보고만 갔 지만, 그 위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지 못해 서 무척 서운했었다. 1520년 포루투갈 선장

Ferdinand Magellan이 처음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지나간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따 Straits of Magellan이라 부른다.



우리는 Punta Arena에서 small Luxury Expedition ship에 몸을 담고 마젤란 해엽 항해 를 시작한다. Ainsworth Bay에서 내려 낙원 에 온 듯 한 착각에 잠시 빠져본다. 이곳에 서만 자란다는 빨간 분홍빛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해서 따 먹으며, 하이킹이 너무 특 별했다. 작은 호수에 지워진 Beavers dam을 정확하게 보며, 또 무지개도 나타났다.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은 모두들 이곳에서 meditation을 하자고 해서 잠시 조용한 순간 을 가져본다. Tuckers Islets에서는 Magellan-Penguins과 commorants를 수백마리를 보 았다. 1832년 Charles Darwin이 HMS Beagle 을 타고 Beagle Canal에서 가장 Beautiful Bay 라고 불리우는 Wulaila Bay에 정착을 했다고 한다. 우리도 섬에 내려 하이킹을 한 후 정 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Bay를 내려 보며 모 두들 숙연한 자세를 취한다.



4박 5일간 Expedition배를 타고 마젤란 해엽 을 지나 말로만 들었던 Beagle Channel, 그 곳을 지나는 동안 Glacier Pia를 하이킹하고 숨어있는 Glaciers들을 찾아보며 내내 계속 되는 설산과 Glaciers를 경관하게 된다. Chilean Fjords Cruise하는 5일간 WIFI없는 세상 이라 신선한 생각만 하게 될 수 있어서 몸 과 마음이 더 깨끗해진듯 했다. 마지막날 아 침 우리는 칠레를 떠나 Ushuaia, Argentina 에 내린다. 이 작은 도시가 세상끝 도시라 는 nickname으로 불린다. Cape Hom에서 북 쪽으로 하루 걸려서 도착하였다. 이 항구에 서 남극가는 배를 타게 된다. 하루하루가 낙 원에서 지난 것처럼 행복했던 평생 기억이 될 The Wilderness Beyond: Patagonia, Tierra del Fuego (Land of Fire) and the Chilean Fjords 신선한 여행 감사합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aa.org /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300호 | 2019년 4월 호

BY-LAW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CHAPTER MEMBERS

Article 5. (Membership Certificates or Cards)

The Board of Directors may, but need not, cause to be issued certificates or cards to evidence membership in the Corporation ("Membership Card or Membership Cards"). The fact that the Corporation is not for profit and without capital stock, and that any such Membership Card is non-transferable shall be noted conspicuously on the fact or back of any Membership Card which may be issued. Membership Cards, if issued, shall bear the signature or facsimile signature of the officer or officers design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y bear the seal of the Corporation or a facsimile thereof.

Article 6. (Membership and Dues)

- (1) The Corporation shall have two classes of members: "Regular Members," and "Honorary Members."
- (2) Any individual who was enrolled as a full time student of a college or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ho has residence in the U.S.A. shall be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provided that he or she is also a member of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 (3)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shall be entitled to vote in the election of a Delegate in a proceeding provided in Article 13 hereof and in all proceedings at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as long as the Member is in compliance with annual membership du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 7 hereof and in good standing.
- (4) An individual who resides in the U. S. A. and who has made outstanding meritorious contributions to the enhancement of the honor or the development of the Alma Mater or the Corporation or has maintained strong ties with the Alma Mater or the Corporation, but who is not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shall become an Honorary Member of the Corporation upon resolution by the Delegates and his or her acceptance of the Honorary Membership. An Honorary Member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ny membership dues to the Corporation or its Chapters.

Article 7 (Membership Dues)

- (1) Each Chapter of the Corporation may require membership dues from its members. Each Chapter shall fix the amount of membership due in consultation with the Corporation.
- (2)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who is in compliance with the membership due requirements of a Chapter of which he or she is also a member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membership due requirements of the Corporation for all purposes.

Article 8 (Record Date for Member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Regular Members entitled to notice of or to vote at any meeting of Regular Members of the Corporation of any adjournment thereof, or to express consent to or dissent from corporate action in writing without a meeting, or for the purpose of any other lawful act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fix, in advance, a record date, which shall not be more than sixty days nor less than ten days before the date of such meeting, nor more than sixty days prior to any other action. If no record day is fixed, the record date for determining

Regular Members entitled to notice of or to vote at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shall be at the close of business on the day next preceding the day on which notice is given, or, if notice is waived, at the close of business on the day next preceding the day on which the meeting is held; the record date for determining Regular Members entitled to express consent to or dissent from corporate action in writing without a meeting, when no prior ac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shall be the day on which the first written consent or dissent is expressed. A determination of Regular Members of record entitled to notice of or to vote at any meeting of members shall apply to any adjournment of the meeting; provided, however,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ay fix a new record date for the adjourned meeting.

23

Article 9 (Members' Meeting)

- (1)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may be held on the date and at the time fix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2) Meetings of Regular Members shall be held at such place, within or without the State of Delaware, as the Board of Directors may, from time to time, fix. Whenever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fail to fix such place. the meeting shall be held at the registered office of the Corporation in the State of
- (3)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may be call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by any officer instru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call the meeting.
- (4) Written notice of all meetings shall be given, stating the place, date, and hour of the meeting. The notice of a meeting shall in all instances state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 meeting is called. The notice of any meeting shall also include, or be accompanied by, any additional statements, information, or documents prescribed by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the "General Corporation Law").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General Corporation Law, a copy of the notice of any meeting shall be given, personally or by mail, not less than ten days nor more than fifty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unless the lapse of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shall have been waived, and directed to each Member at his or her record address or at such other address which heor she may have furnished by reques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rporation. Notice by mail shall be deemed to be given when deposited, with postage thereon prepaid, in the United States mail. Notice need not be given to any Member who submits a written waiver of notice signed by him or her before or after the time stated therein. Attendance of a Member at a meeting of Members shall constitute a waiver of notice of such meeting, except when the Member attends the meeting for the express purpose of objecting,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to the transaction of any business because the meeting is not lawfully called or convened. Neither the business to be transacted at, nor the purpose of, any regular or special meeting of the Members need be specified in any written waiver of notice. In lieu of written notice of meeting, the Corporation may publish the notice of meeting 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 S. A. which is a monthly newspaper published by the Corporation not less than twenty five nor more than fifty days before the date of meeting.
- (5) Meetings of Regular Members shall be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or if the President is not present, then by a Honorary President (defined hereafter) of the Corporatio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rporation, or the Secretary of General Affairs in the absence of the Secretary



24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300호 | **2019년 4월 호**

General, shall act as a secretary of every meeting of Regular Members, but if neither the Secretary General nor the Secretary of General Affairs is present the Chairman of the meeting shall appoint a secretary of such meeting.

- (6) Every Regular Member may authorize another person or persons to act for him or her by proxy in all matters in which the member is entitled to participate, whether by waiving notice of any meeting, voting or participating at a meeting, or expressing consent or dissent without a meeting. Every proxy must be signed by the Member or by his or her attorney-in-fact. No proxy shall be voted or acted upon after one year from its date unless such proxy provides for a longer period.
- (7) Two-tenth of the Regular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at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for the transaction of any business. The Members present may adjourn the meeting despite the absence of a quorum.
- (8) Each Regular Member shall be entitled to one vote in the election of directors, in the adoption, amendment, and repeal of these By-laws to the extent provided for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in all proceedings upon which the General Corporation Law confers voting power upon members entitled to vote in the election of directors (the term "members" used in the General Corporation Law shall as used herein, refer to "Regular Members" in these By-laws). In the election of directors, a plurality of the votes cast shall elect, and voting need not be by ballot. Any other action in which members are entitled to vote shall be authorized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at a meeting at which a quorum is present except when the General Corporation Law prescribes a different percentage of votes.
- (9) Any action required by the General Corporation Law to be taken at a meeting of members or any action which may be taken at any meeting of members may be taken without a meeting, without prior notice and without a vote, if a consent in writing setting forth the action so taken, shall be signed by Regular Members having not less than the minimum number of votes that would be necessary to authorize or take such action at a meeting at which all members having a right to vote thereon were present and voted. Prompt notice of the taking of action without a meeting by less than unanimous written consent shall be given to those Members who have not consented in writing.

Article 10 (Meeting of Certain Terms)

As used in these By-laws in respect to the right to notice of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or a waiver thereof or to participate or vote thereat or to consent or dissent in writing in lieu of a meeting, as the case may be, the term "membership" or "memberships" or "Member" or "Members" refers to an outstanding membership or memberships of record and in good standing or to the holder or holders thereof, as the case may be. The term "memberships" or "members" also refers to a membership or a member whenever the Corporation shall have only one membership or one Member.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1 (Delegates)

(1) There shall be created the Delegates of Regular Members ("Delegates") who shall have and may exercise all powers, rights and privileges which the Regular Members may have under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these By-laws, and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2) The Delegates shall have and may exercise powers, rights and privileges to take actions concerning matters, including the following, subject to the exclusiv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matter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Article 15 hereof:
- (a) An annual budget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and an annual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preceding year of the Corporation;
- (b) A business plan for the following year of the Corporation:
- (c) The publicat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 S. A.;
- (d) The number of "Elect Delegates" (defined below) to be elected from each Chapter of the Corporation;
- (e) The Membership dues;
- (f) Admission of a state, regional or local associ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in the U. S. A. as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 (g) The dues of each Chapter of the Corporation payable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Korea:
- (h) Amending, altering or repealing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the By-laws of the Corporation:
- (i) Election of directors;
- (j) Election of the President, First Vice President, Funds Management Chairman, and Auditors of the Corporation;
- (k) Consent to the President's appointment of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Vice President for Kwanak Sponsors of the Corporation;
- (I) Appointment of advisors to the Corporation;
- (m) Admission of Honorary Members;
- (n) Policy or Policies of the Corporation in important matters of the Corporation; and $\,$
- (o) Setting up an advisory committee or committees for consultation in making such policy or policies of the Corporation.
- (3) The use of the phrase "whole Delegates' herein refers to the total number of Delegates which the Corporation would have if there were no vacancies in the offices of Delegates.
- Article 12 (Classes, Number, and Terms of Delegates)
- (1) Delegates shall be divided into three classes. The first class shall consist of Delegates who are elected as such by Regular Members from a Chap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hereof (hereinafter "Elect Delegates"). The second class shall consist of the president of each Chapter, and the next-term president or, in the absence of the election of the next-term president, the immediate-last-term president of the Chapter (hereinafter "Chapter Delegates"). The third class shall consist of the Honorary President, President, First Vice President, Secretary General, Vice President for Kwanak Sponsors, and the immediate-last-term Secretary General of the Corporation (hereinafter "USA Delegates").
- (2) The president, and the next-term president or, in the absence of the election of the next-term president, the immediate-last-term president, of each Chapter shall each automatically serve the office of Delegate until he or she is succeeded by a new president, a new next-term president

Amendment 9

The title of the First Vice President is changed to the Presi-dent-elect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Amendment 18

'USA-Kwanak Sponsors Committee' is renamed as 'SNUAA-USA Sponsors Committee' (Adopted at the 23r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8th, 2014).

Amendment 5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1 [Delegates], Section 2, [o] setting up advisory committee).

Four Standing Committees: US Kwan-Ak Sponsor Committee, Scholarship Committee, Rules and Regulations Committee, and Award Committee were created in order to operate and manage the affairs of SNUAA-USA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ules and regulations of those four committees, transfer of business and audit were established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Amendment 14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1 [Delegates], Section 2, [o]- Setting up advisory committees)

Nominating Committee as standing com-

Nominating Committee as standing committee was created and

Rules and Regulations of Nominating Committee for the se-lec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 was established (Adopted at the 19th Assembly of Delegates, June 15th, 2010).

Amendment 10

Each lifetime director (supporter) who has donated \$3000 shall be entitled to serve as a delegate during his/her lifetime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Amendment 9

The title of the First Vice President is changed to the Presi-dent-elect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Amendment 18

'USA-Kwanak Sponsors Committee' is renamed as 'SNUAA-USA Sponsors Committee' (Adopted at the 23r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8th, 2014).

Amendment 8

Presidential advisers (ref. Amendment 4), chairperson of Funds Management Committee for Alma Mater, of IT Com-mittee, of Bylaws Committee, of Editorial Committee of Newspapers, of Brain Network 300호 | **2019년 4월** 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5

저희자다이의그	NV Colf (6/10) 1.000	심상은 (상대 54) 10	0 하선호 (치대 81)	200				
전회장단 이월금	NY Golf (6/18) 1,000 NY Golf (8/9/18) 1,000	오인환 (문리 63) 65	0	200	루이지애나		하주홍 (경영 77)	25
47,347.11 (11/29) 6,511.97	NY Golf (8/31/18) 1,000 SeAh 이병준 1,500	유재환 (상대 67) 10 윤상래 (수의 62) 5,60	· _ · _ · _ · _ · _ ·		강영빈 (문리 58)	2,000	조지아	
, , , ,	SNUAA, Inc (남가주) 500	이건일 (의대 62) 12	5 강정수 (문리 62)	125		2,000		
총동창회 보조금	SNUAA, Inc (남가주) 700 T. H. & Asso. 1,000	이명선 (상대 58) 50 이원섭 (농대 77) 10		300 200	<u>미네소타</u>		백성식 (약대 58) 정량수 (의대 60)	75 25
3,000	김승호 (공대 71) 400	임필순 (의대 54) 10	0 이성형 (공대 57)	150	김권식 (공대 61)	1,000	주중광 (약대 60)	2,000
ネロサガ ひせ ねせ	김승호 (12/26) 400 김인종 (181105) 700	전방남 (상대 73) 20 전상옥 (사대 52) 50	n	240			허지영 (문리 66)	2,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노명호 (공대 61) 1,000	전영국 (시대 52) 30 전영자 (미대 58) 35			<u>북텍사스</u>		필라델피아	
3,0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발전기금 (12/6) 700	정진수 (공대 56) 42 조형원 (약대 50) 50	5	400	이석호 (공대 78) 최종권 (문리 59)	200 200	김영남 (의대 61)	200
업소록 광고비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조용원 (취대 50) 50 최선희 (문리 69) 20		400 225	피하면 (군니 59)	200	김태환 (법대 48)	2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최수강 (의대) 10 황현상 (의대 55) 10	1 1 7 7 1 1 7	200	<u>샌디에고</u>		김현영 (수의 58) 배성호 (의대 65)	100
강호석 (상대 81) 480 김성래 (치대 76) 48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서울메디칼 (3/15) 1,000	황현상 (의대 55) 10	김병숙 (보건 65)	200 200	김군빈 (법대 56)	75	대영호 (의대 65) 서경희 ()	100 100
김순주 (치대) 480 김원탁 (공대 65) 480	서울메디칼 (12/26) 1,000	지부 분담금	김승호 (공대 71) 김재경 (농대 58)	400	박우선 (공대 57)	200	서중민 (공대 64)	350
김원탁 (공대 65) 480 김일영 (의대 65) 240	서울메디칼 (4/16) 1,000 손재옥 (가정 77) 500	(2018/7~2019/6)	김해암 (의대 53)	200 200	임춘수 (의대 57)	200	손재옥 (가정 77) 송영두 (의대 56)	1,000 700
김창수 (약대 64) 480	신응남 (농대 70) 1,200	남가주 3,00		200	<u>시카고</u>		신성식 (공대 56)	200
김 폴 (수의 81) 480 남욱현 (경영 84) 480	심완섭 (의대 67) 1,800 최용완 (공대 57) 100	뉴욕 3,00 시카고 2,40	0 박경원 (미대 66)	200 25	강영국 (수의 67)	200	이만택 (의대 52) 이성숙 (가정 74)	200 250
독고원 (공대 65) 240	한남체인(3/15) 1,000	워싱턴 DC 2,00	0 박두선 (공대 68)	100	고병철 (법대 55)	200	이지춘 (미대 57)	125
박종효 (의대 79) 240 서동영 (사대 60) 480	한남체인(12/23) 1,000	북가주 60 조지아 60	0 방준재 (의대 63)	40 200	구행서 (공대 69) 김연화 (음대 68)	100 150	제갈은 (문리 59) 전무식 (수의 61)	150 200
석창호 (의대 66) 240	<u>나눔</u>	알라스카 20	0 배명애 (간호 47)	675	오봉완 (법대 52)	260	주기목 (수의 68)	200
신동국 (수의 76) 720 신응남 (농대 70) 240	김창화 (미대 65) 25	•••••	배정희 (사대 54) 서 량 (의대 63)	200 200	이동균 (공대 75) 이용락 (공대 48)	25 1,000	조정현 (수의 58) 조화연 (음대 64)	500 150
신혜원 (사대 81) 240 엄달용 (공대 69) 480	손재옥 (가정 77) 500 윤상래 (수의 62) 500	<u>후원금</u>	신응남 (농대 70) 양거명 (약대 49)	2,000	임근식 (문리 56) 조형원 (약대 50)	500 500	지흥민 (수의 61)	400
염동해 (농대 74) 480	윤영자 (미대 60) 100	남가주	이경림 (상대 64)	25 185	최희수 (문리 67)	75	플로리다	
윤세웅 (의대) 240 이경림 (상대 64) 720	이건영 (문리 71) 50 차수만 (약대 71) 200	 김동석 (음대 64) 20	이운준 (의대 52) 이전구 (농대 60)	725 1,100	홍혜례 (사대 72)	225	김중권 (의대 63)	200
이경희 (인문 83) 240	황선희 (공대 74) 100	김성호 (법대 64) 20	0 이재원 (법대 60)	350	아리조나		전영자 (미대 58)	5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수호 (보건 69) 480	 모교발전기금	김 영 (수의 63) 50 김영순 (음대 59) 60		3,000 200	박양세 (약대 48)	200	커네티컷	
이종묘 (간호 69) 480		김원탁 (공대 65) 40	정인식 (상대 58)	200	지영환 (의대 59)	200		
이준영 (치대 74) 240 이창석 (의대 72) 400	강창운 (의대 72) 75 권기현 (사대 53) 1,000	김인종 (농대 74) 2 김일영 (의대 65) 20		75 375	진명규 (공대 70)	100	김기훈 (상대 52) 유시영 (문리 68)	600 500
임낙균 (약대 64) 480	권철수 (의대 68) 100	김재영 (농대 62) 24	0 조정현 (수의 58)	100	_오레곤		11718 (E = 100)	200
정세근 (자연 82) 240 정수만 (의대 66) 240	김시근 (공대 72) 300 심상은 (상대 54) 25	김종표 (법대 58) 50 김진형 (문리 55) 1,50		500 500	김상순 (상대 68)	500	케롤라이나	
정정우 (수의 74) 240	유재환 (상대 67) 125	김창신 (사회 75) 10	0 허선행 (의대 58)	600	송재용 (의대 69)	200		
정재훈 (공대 64) 720 주기목 (수의 68) 240	윤상래 (수의 62) 2,100 윤우용 (공대 63) 1,000	노명호 (공대 61) 3,00 문석면 (의대 52) 20		100	전병택 (상대 69) 최용성 (의대 55)	25 25	한광수 (의대 57)	400
지흥민 (수의 61) 240	오동환 (의대 75) 200	민수봉 (상대 55) 2	5 <u>뉴잉글랜드</u>				하와이	
최무식 48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오인환 (문리 63) 200 이강홍 (상대 60) 300	박인창 (농대 65) 10 박종수 (수의 58) 3,10		2,000	오하이오		김승태 (의대 57)	600
S.B. Foot Clinic 480	임종식 (의대 51) 1,000 정동구 (공대 57) 500	방석훈 (농대 55) 20 백옥자 (음대 71) 60		200 80	김동광 (공대 62) 성홍완 (수의 75)	50 200	하트랜드	
<u>광고비</u>	정태광 (공대 74) 200	위종민 (공대 64) 20	0 김병국 (공대 71)	65	송용재 (의대 63)	200		
DUO Info. 1,200	 브레인 네트웍 후원금	유재환 (상대 67) 20 유창호 (약대 74) 30		100 1,250	 워싱턴 DC		오명순 (가정 69) 이상강 (의대 70)	500 10,000
DUO Info. 400	(2018/7/1~2019/6/30)	이건일 (의대 62) 30	0 김정환 (공대 52)	200			최은관 (상대 64)	500
DUO Info. (10) 400 DUO Info. (11/6) 400	신응남 (농대 70) 1,000	이명선 (상대 58) 50 이범모 (치대 74) 20	/	100 65	강길종 (약대 69) 권철수 (의대 68)	400 200	<u></u> <u>휴스턴</u>	
DUO Info. (12/8) 400	윤상래 (수의 62) 3,000	이범식 (공대 61) 40	0 윤상래 (수의 62)	40,800	박용걸 (약대 56)	200		200
DUO Info. (1/9) 400 DUO Info. (2/8) 400	최찬혁 (의대 57) 500	이병준 (상대 55) 11,00 이영송 (치대 63) 40		100 1,100	박평일 (농대 69) 백 순 (법대 58)	600 200	김옥균 (공대 54) 진기주 (상대 60)	200 500
DUO Info. web (2/23) 500	장학금	이영일 (문리 53) 20	0 이재신 (공대 57)	2,000	서윤석 (의대 62) 신구용 (공대 59)	300	최영기 (공대 63)	200
DUO Info. (4/2) 400 DUO Info. (4/30) 400	고종성 (사대 75) 200	임창회 (공대 73) 10	0 전신의	200 25	신상균 (의대 52)	200 500		
DUO Info. (6/11) 400 DUO Info. (9/5) 400	김기형 (경영 75) 125 김동훈 (법대 56) 100	전경철 (공대 55) 40 전희택 (의대 58) 20	-, -, -, -, -, -, -, -, -, -, -, -, -, -	3,000 1,400	오인환 (문리 63) 유영준 (의대 70)	200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역 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DUO Info. (10/9) 400	김은섭 (의대 53) 100	정균희 (의대 66) 20	0 정태영 (문리 71)	600	이문항 (공대 46)	100	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박	비를 대납해
DUO Info. (11/14) 400 DUO Info. (12/5) 400	김현학 (의대 57) 100 박원준 (공대 53) 300	정동구 (공대 57) 50 정재훈 (공대 64) 27		65 200	이영묵 (공대 59) 이인옥 (68)	200 25	드리는 용도로 사용합니	니다.)
JayoneFood (1/22) 1,800	박용걸 (약대 56) 150	정희영 (치대 58) 10	0 최홍균 (공대 69)	2,000	장효열()	100		
JayoneFood (11/26) 1,800 KCCnews.net (8/15/18) 200	배성호 (의대 65) 100 백원일 (농대 70) 500	조상하 (치대 64) 12 조한원 (의대 57) 10			최준호 (공대 60) 한의생 (수의 60)	25 200		
KCCnews.net (11/5/18) 425	신규영 (공대 64) 100	최은관 (상대 64) 30	0	F00		_,,		
KISS (1/17) 3,000	신응남 (농대 70) 300	하기환 (공대 66) 20	0	500	워싱턴 주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5명)

골드 종신 이사	심상은 (상대 54)) 한홍택 (공대 60)	뉴잉글랜드	조형준 (문리 62)	│ 중부텍사스	│ 하트랜드
오인석 (법대 58)*	심화섭 (약대 61)	한효동 (공대 58)	고일석 (보건 69)		이광연 (공대 60)	김경숙 (가정 70)
윤상래 (수의 62)*	오재인 (치대 33)		김문소 (수의 61)	시카고		김명자 (문리 62)
한귀희 (미대 68)*	오흥조 (치대 56)	북가주	박경민 (의대 53)	남상용 (공대 52)	조지아	이교락 (의대 53)
	이병준 (상대 55)	김정희 (음대 56)	박영철 (농대 64)	이용락 (공대 48)	주중광 (약대 60)	이상강 (의대 70)
남가주	이세열 (사대 57)	손석보 (공대 68)	오세경 (약대 61)	정 태(의대 57)	허지영 (문리 66)	
강신용 (사대 73)	이종도 (공대 66)		윤상래 (수의 62)*	한재은 (의대 59)		휴스턴
김동훈 (의대 71)	이청광 (상대 61)	뉴욕	윤선홍 (치대 64)		필라델피아	박태우 (공대 64)
김재영 (농대 62)	이홍표 (의대 58)	김광호 (문리 62)	정선주 (간호 68)	오하이오	서중민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임낙균 (약대 64)	오인석 (법대 58)*	정태영 (문리 71)	김용헌 (경원 66)	손재옥 (가정 77)	
박명근 (상대 63)	임용오 (의대 57)	윤정옥 (약대 50)			이만택 (의대 52)	- 종신이사 (고인)
박윤수 (문리 48)	전희택 (의대 60)	이기영 (농대 70)	루이지애나	워싱턴 DC	주기목 (수의 68)	- * 표: 한번이상 내신 분
박종수 (수의 58)	제영혜 (가정 71)	이전구 (농대 60)	강영빈 (문리 58)*	강연식 (사대 58)		
방명진 (공대 73)	조용원 (문리 66)	이재덕 (법대 60)		권기현 (사대 53)	플로리다	
서동영 (사대 60)	차민영 (의대 76)	이준행 (공대 48)	미네소타	류재풍 (법대 60)	김중권 (의대 63)	
서영석 (의대 55)	차종환 (사대 54)		김권식 (공대 61)	방은호 (약대 43)		
서치원 (공대 69)	한귀희 (미대 68)*		│ 남세현 (공대 67)	오인환 (문리 63)		

26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300호 | **2019년 4**월 호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남가주	박찬호 (농대 63)*	이정근 (사대 60)	Park H. H.	곽노섭 (문리 49)	송영우 (사대 64)	차수만 (약대 71)	MINNESOTA	오동환 (의대 75)
S.CA/NV	박창규 (약대 59)*	이준호 (상대 65)	• • • • • •	곽상준 (약대 55)	송웅길 (대원 69)	최구진 (약대 54)*	강선명()	오봉완 (법대 53)
3.CFYTVV	박창선 (공대 55)	이중희 (공대 53)		곽선섭 (공대 61)*	송철섭 (공대 48)	최영태 (문리 67)	김권식 (공대 61)	유동완 (수의 68)
71 74 A (MEII 50)			북가주					
강경수 (법대 58)	박취서 (약대 60)	이종도 (공대 66)	SAN FRANCISCO	곽승용 (의대 65)	신응남 (농대 70)	최종진 (의대 55)	남세현 (공대 67)	유태종 (공대 50)
강동순 (법대 59)	박태호 (치대 66)	이종묘 (간호 69)		금동용 (문리 58)	신정윤 (공대 60)	최진영 (문리 55)	성욱진 (치대 87)	윤경순 (사대 61)
강윤희 (간호 46)	박호현 (의대 52)	이재권 (법대 56)	강일성 (상대 55)	김경순 (상대 59)	신정자 (간호 62)	최한용 (농대 58)*	송세진 (치대 78)*	윤봉수 (간호 69)
강정훈 (미대 56)	박홍근 (공대 64)*	이재룡 (공대 71)	강재호 (상대 57)	김광현 (미대 57)	신춘희 (간호 53)	최형무 (법대 69)	왕규현 (의대 56)	이덕수 (문리 58)
강중경 (공대 48)*	방명진 (공대 73)*	이재선 (농대 58)	권오형 (사대 61)*	김광호 (의대 66)*	안태홍 (상대 65)	한병용 (문리 71)	주한수 (수의 62)	이동균 (공대 75)
강홍제 (상대 53)*	방효신 (약대 56)	이창무 (공대 54)	김명환 (문리 67)	김명승 (상대 65)	양거영 (의대 49)	한영수 (의대 61)*	황효숙 (사대 65)	이민우 (의대 61)
고병철 (법대 55)	변영근 (수의 52)	이청광 (상대 61)*	김병호 (상대 57)	김문경 (약대 61)	양명자 (사대 63)	한태진 (의대 58)*	• • • • • •	이성길 (의대 65)*
권기상 (경영 72)	배동완 (공대 65)	이현찬 (치대 75)	김영석 (상대 62)	김병권 (문리 63)	연봉원 (문리 61)	함종금 (간호 66)	샌디에고	이성길 (상대 58)*
권영달 (문리 50)	배병옥 (음대 58)	이홍표 (의대 58)*	김윤범 (의대 54)*	김병숙 (보건 65)	오민근 (약대 52)	허병렬 (사대 42)	SAN DIEGO	이승자 (사대 60)
권영재 (의대 57)	배효식 (문리 52)	이희충 (공대 68)	김옥경 (음대 69)	김병술 (약대 52)	우관혜 (음대 63)*	허선행 (의대 58)*		이용락 (공대 48)
권처균 (공대 51)	백원일 (농대 70)	임건식 (음대 54)	김정복 (사대 55)	김봉련 (사대 54)	우대식 (문리 57)	허유선 (가정 83)	강영호 (의대 57)	이정일 (농대 57)
김건진 (문리 62)	백옥자 (음대 71)	임동규 (미대 57)	김정자 (사대 51)	김석식 (의대 58)	우상영 (상대 55)	현영수 (음대 61)	김군빈 (법대 56)	이종일 (의대 65)
김광은 (음대 56)	백인분 (미대 69)	임동호 (약대 55)	김정희 (음대 56)	김석자 (음대 61)	유영호 (의대 52)	홍선경 (의대 58)	남장우 (사대 56)	임근식 (문리 56)
김구자 (미대 61)	백혜란 (미대 70)	임문빈 (상대 58)	김현왕 (공대 64)	김상만 (법대 52)	유재섭 (공대 65)	황용규 (의대 68)	박경호 (사대 53)	임이섭 (미대 54)
김동산 (법대 59)	서동영 (사대 60)	임석중 (공대 51)	김희봉 (공대 68)	김성현 (약대 56)	유택상 (문리 58)	황 윤(약대 81)	박우선 (공대 57)	임현재 (의대 59)
김동석 (음대 64)	서명희 (농대 67)	임창희 (공대 73)	노상규 (공대 60)	김세환 (공대 65)*	육순재 (의대 63)	• • • • • •	이문상 (공대 62)	장세곤 (의대 57)
김동훈 (법대 56)	서영석 (문리 61)	임화식 (치대 59)	민병곤 (공대 65)	김승호 (공대 71)*	윤봉균 (사대 54)	뉴잉글랜드	이영신 (간호 77)	장시경 (약대 58)*
김병완 (공대 58)	성주경 (상대 68)	장윤희 (사대 54)	박경용 (약대 63)*	김영무 (공대 75)	윤성수 (공대 71)		전원일 (의대 77)	장윤일 (공대 60)
			, ,			MA/RI/NH/ME/VT		
김상찬 (문리 65)	손기용 (의대 55)	장인숙 (간호 70)	박서규 (법대 56)	김영애 (사범 56)	윤신원 (의대 50)		정경화 (의대 70)	전성송 (수의 59)
김석홍 (법대 59)	손학식 (공대 61)	장정용 (미대 64)*	박성수 (공대 59)	김영철 (의대 55)	윤영섭 (의대 57)	고일석 (보건 69)	조두연 (수의 62)*	정승규 (공대 60)
김선기 (법대 59)	송성균 (공대 50)	전경철 (공대 55)	박종성 (법대 53)	김영희 (간호 53)	윤인숙 (간호 63)*	고종성 (사대 75)	진성호 (공대 64)	조문희 (공대 56)
김성호 (법대 64)*	신건호 (법대 53)	전낙관 (사대 60)*	박종영 (상대 52)	김완주 (의대 54)	윤종숙 (약대 66)*	김광수 (자연 73)*	황보민영 (공대 03)	조병권 (공대 64)
김세윤 (문리 65)*	신규식 (농대 61)	전범수 (농대 71)	박찬호 (자연 81)	김우영 (상대 60)		김만옥 (약대 56)		조의열 (의대 60)
							• • • • • •	
김세진 (공대 69)	신동국 (수의 76)	전상옥 (사대 52)	부영무 (치대 72)	김유순 (간호 64)	윤현남 (공대 64)*	김문소 (수의 61)	시카고	조형원 (약대 50)*
김수영 (사대 57)	신상화 (공대 58)	정균희 (의대 66)*	손창순 (공대 69)	김윤수 (상대 50)	염극용 ()*	김선혁 (약대 59)	IL/IN/WI/MI	천양곡 (의대 63)
김순자 (치대 57)	신영찬 (의대 63)	정동구 (공대 57)	송영훈 (상대 57)	김용연 (문리 63)*	이강욱 (공대 70)	김 영()		최대한 (의대 53)
김순덕 (간호 61)	신정식 (상대 64)*	정동주 (가정 72)	신규영 (공대 64)	김정빈 (약대 54)	이강홍 (상대 60)*	김정환 (공대 52)	강영국 (수의 67)	최혜숙 (의대 53)
김 영 (수의 63)	심상은 (상대 54)	정수만 (의대 66)	안병협 (공대 58)	김정희 (간호 69)	이경림 (상대 64)	김종성 (상대 76)	강창만 (의대 58)*	최희수 (문리 67)
김영덕 (법대 58)	안병일 (의대 63)	정연웅 (상대 63)*	안 진 (음대 96)	김정희 (약대 56)	이경태 (공대 63)	김형범 (문리 57)*	고병철 (법대 55)	하계현 (공대 64)
김영봉 (사대 60)*	양운택 (의대 58)	정예현 (상대 63)*	안현수 (상대 67)*	김종률 (사대 51)	이국진 (사범 51)	박영철 (농대 64)	구경회 (의대 59)	한의일 (공대 62)
김영순 (음대 59)	양찬효 (상대 54)	정재훈 (공대 64)	안호삼 (문리 58)	김종현 (법대 57)*	이근수 (상대 64)*	박종건 (의대 56)	구행서 (공대 69)	황치룡 (문리 65)
김영창 (공대 64)*	양태준 (상대 56)	정진우 (의대 66)	양명교 (의대 55)	김창수 (약대 64)	이대영 (문리 64)	배지선 (수의 94)	김갑중 (의대 57)	
								• • • • • •
김원경 (약대 59)	염동해 (농대 74)	정철륭 (의대 55)	양서명 (보건 66)*	김태일 (공대 68)	이명종 (공대 72)*	송미자 (농대 62)*	김길중 (의대 59)	아리조나
김원탁 (공대 65)	오선웅 (의대 63)	정현진 (간호 68)	유승일 (의대 59)	김한종 (의대 56)	이상근 (경영 84)	윤상래 (수의 62)	김로사 (의대)	ARIZONA
김원호 (약대 63)	오송자 (사대 59)	정형민 (문리 71)	윤성희 (사대 58)	김해암 (의대 53)*	이상무 (의대 56)	윤영자 (미대 60)	김병윤 (문리 65)*	
김옥경 (가정 60)	오양숙 (간호 60)	정형채 (상대 69)	온기철 (의대 65)	김현중 (공대 63)	이수호 (보건 69)	이강원 (공대 66)	김성범 (상대 50)	김영중 (치대 66)
김은경 (음대 66)	유덕훈 (상대 48)	정 황(공대 64)	이강우 (문리 59)	김훈일 (공대 60)	이영숙 (간호 56)	이영인 (사대 74)	김성일 (공대 68)	진명규 (공대 70)*
김의신 (의대 60)	유석홍 (상대 61)	정희영 (치대 58)	이관모 (공대 55)*	김희자 (미대 66)	이운순 (의대 52)*	이은주 (음대 73)	김승주 (간호 69)	홍명기 (공대 61)
김인종 (농대 74)	유재환 (상대 67)	조동준 (의대 57)	이성형 (공대 57)	남옥우 (음대 55)*	이유성 (사대 57)	이의인 (공대 68)	김연화 (음대 68)	• • • • • •
김일영 (의대 65)*	유진형 (상대 47)	조만연 (상대 58)*	이현숙 (사대 62)	노용면 (의대 49)	이용석 (공대 92)	이재신 (공대 57)	김용주 (공대 69)	오하이오
김정애 (간호 69)	윤경민 (법대 55)*	조상하 (치대 64)	이홍기 (공대 62)	류재룡 (공대 58)	이재원 (법대 60)	장수인 (음대 76)	김용호 (약대 69)*	OHIO
김재영 (농대 62)	윤석철 (상대 60)	조순자 (치대 57)		류재은 (미대 71)			김우신 (의대 60)	OFFIC
			임정란 (음대 76)		이재진 (의대 58)*	장용복 (공대 58)		
김종식 (사대 58)*	윤용길 (공대 55)	조정시 (공대 60)	임희례 (간호 73)*	문석면 (의대 52)	이정은 (의대 58)	전신의 (문리 57)	김일훈 (의대 51)	김동광 (공대 62)*
김종표 (법대 58)*	윤희성 (치대 65)*	조재길 (사대 61)	전병련 (공대 54)	문소자 (음대 60)	이종석 (상대 57)	정선주 (간호 68)	김정수 (문리 69)	명인재 (자연 75)
김준일 (공대 62)	오송자 (사대 59)	조태준 (문리 59)	전혜경 (문리 67)	민발식 (의대 60)	이종환 (법대 51)	정정욱 (의대 60)	김정화 (음대 56)	성홍완 (수의 75)
김진식 (공대 66)	이건영 (문리 71)*	조한원 (의대 57)	정규남 (공대 52)	민인기 (의대 67)	이준행 (공대 48)	정태영 (문리 71)	김재권 (의대 62)*	송용재 (의대 63)
		주정래 (상대 65)		박건이 (공대 60)				
김진형 (문리 55)	이건일 (의대 62)		정양자 (문리 59)		이충호 (의대 63)	조성호 (공대 85)	김재석 (의대 61)	이영웅 (의대 56)
김창무 (음대 53)	이광재 (공대 59)	지인수 (상대 69)	정유석 (의대 58)	박경숙 (간호 72)	이태안 (의대 61)	주창준 (의대 50)	김현배 (의대 66)*	• • • • • •
김창신 (사회 75)	이근원 (공대 67)	차민영 (의대 76)	정진수 (공대 56)	박경원 (미대 66)	이해청 (약대 62)	최선희 (문리 69)	김현주 (문리 61)	앨라스카
김태윤 (법대 53)	이기재 (사대 52)*	최경자 (약대 63)	정춘임 (간호 67)	박수안 (의대 59)	이혜숙 (음대 68)	최찬혁 (의대 57)	김혜련 (음대 75)	ALASKA
김태호 (상대 57)	이명선 (상대 58)*	최영순 (간호 69)	조태묵 (사대 60)	박순영 (법대 56)	임공세 (의대 61)	홍지복 (간호 70)	노영일 (의대 62)	
김현철 (의대 57)	이민정 (의대 83)	최용완 (공대 57)	최경선 (농대 65)*	박승화 (간호 69)	임도혁 (공대 59)		민영기 (공대 65)	윤제중 (농대 54)
김희재 (사대 66)	이방기 (농대 59)	최종권 (문리 59)*	탁은숙 (문리 54)*	박영태 (상대 63)*	장화자 (간호 60)	라스베가스	박영준 (문리 67)*	• • • • • •
김희창 (공대 64)	이범식 (공대 61)	최희웅 (문리 59)*	홍병익 (공대 68)	반영철 (약대 54)	전병삼 (약대 54)*	LV/NV	박용순 (의대 53)*	오레곤
나두섭 (의대 66)	이병준 (상대 55)	하기환 (공대 66)	황동하 (의대 65)	방준재 (의대 63)	전성진 (사대 54)*		박정일 (의대 61)	OR/ID
나민주 (음대 65)	이서희 (법대 70)	한귀희 (미대 68)	황만익 (사대 59)	변건웅 (공대 65)	정동성 (상대 58)	김영중 (치대 66)	박준환 (의대 55)	0.4.5
	이성숙 (공대 56)	한동수 (의대 60)		변광록 (간호 72)				기사스 (사대 co)
나승욱 (문리 59)			• • • • • •		정인식 (상대 58)	김택수 (의대 57)	박창욱 (공대 50)	김상순 (상대 68)
노명호 (공대 61)*	이소희 (의대 61)*	한병용 (문리 71)	뉴욕	변호련 (간호 63)	정인용 (의대 65)	윤우영 (공대 63)	배영섭 (의대 54)	성성모 (사대 67)
문경호 (문리 59)	이송희 (간호 47)	한정헌 (치대 55)	NJ/NY	배명애 (간호 47)	정창동 (간호 45)	• • • • • •	백운기 (문리 56)	전병택 (상대 69)
문병하 (법대 51)*	이시한 (문리 52)	한종철 (치대 62)		배상규 (약대 61)	조경숙 (가정 71)	록키마운틴	서상현 (의대 65)*	정태훈 (공대 68)
문인일 (공대 51)	이영송 (치대 63)	한홍택 (공대 60)	강교숙 (간호 73)	배정희 (사대 54)	조경애()	MT/CO/WY/NM	서영일 (의대 62)	최용성 (의대 55)
						IVIT/CO/VVY/INIVI	, , ,	
박대균 (수의 57)	이영일 (문리 53)	현기웅 (문리 64)	강영선 (공대 50)*	서 량 (의대 63)*	조남천 (사대 59)		소진문 (치대 58)	한영준 (사대 60)*
박명근 (상대 63)	이영현 (간호 70)*	홍석관 (사대 47)	강에드 (사대 60)	서병선 (음대 65)	조달훈 (사대 66)*	강창운 (의대 72)	송재현 (의대 46)*	• • • • • •
박부강 (사대 64)	이원익 (문리 73)	홍선례 (음대 70)	계동휘 (치대 67)	서정웅 (약대 63)	조명애 (간호 47)*	김영중 (치대 66)	신석균 (문리 54)	워싱턴 DC
박우성 (사회 77)	이원택 (의대 65)*	홍성선 (약대 72)*	고광호 (약대 56)	석창호 (의대 66)	조아미 (음대 61)	박용호 (의대 59)*	신택수 (의대 88)	DC/MD/VA/WV
박원준 (공대 53)	이은경 (간호 80)	홍선일 (공대 71)	고순정 (간호 69)	선종칠 (의대 57)*	조종수 (공대 64)	송요준 (의대 64)	안신훈 (농대 61)	D S) IVID) VA) VV
								71.71 A (OLE)
박인수 (농대 64)*	이익삼 (사대 58)*	홍수웅 (의대 59)	공화삼 (농대 64)	성기로 (약대 57)	조종원 (62)	이경화 (공대 56)	안영학 (문리 57)	강길종 (약대 69)
박인창 (농대 65)	이장길 (치대 63)	황선주 (간호 69)	권문웅 (미대 61)	손갑수 (약대 59)	진봉일 (공대 50)	• • • • • •	안은식 (문리 55)	강연식 (사대 58)
박임하 (치대 56)	이정희()	홍 진 (간호 56)	권영국 (상대 60)	송경희 (사대 59)	차국만 (상대 56)	미네소타	안창현 (의대 55)	고무환 (법대 57)
, ,			,	, ,	,			, , ,

300호 | **2019년 4월 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27

공순옥 (간호 66)*	안선미 (농대 65)	조화유 (문리 61)*		유 황(농대 56)	신의석 (공대 53)		윤 숙(문리 66)	이상강 (의대 70)
곽근영 (사대 51)	안승건 (문리 55)	최경수 (문리 54)		이석호 (공대 78)	심영석 (공대 76)	• • • • • •	이달호 (사대 45)	임영신 (의대 54)
곽명수 (문리 65)	안인옥 (간호 71)	최규식 (상대 64)	조지아	전중희 (공대 56)*	심완섭 (의대 67)	플로리다	이범세 (의대 59)	차봉희 (의대 51)
권오근 (상대 58)	안창호 (약대 70)	최동호 (문리 68)	GA/AL/MS	조진태 (문리 57)	안세현 (의대 62)	FLORIDA	이범세 (의대 63)	최은관 (상대 64)
권철수 (의대 68)*	안태민 (공대 62)*	최재규 (미대 63)*		탁혜숙 (음대 67)	엄종렬 (미대 61)		이석형 (사대 56)*	• • • • • •
계화자 (문리 61)*	양광수 (공대 73)	한의생 (수의 60)	강창석 (의대 73)	하상태 (의대 59)	유기병 (문리 64)	김동한 (문리 53)	이종영 (음대 58)	휴스턴
김내도 (공대 63)	여준구 (의대 64)	한정민 (농대 87)*	김순옥 (의대 54)	황명규 (공대 61)	유영걸 (의대 70)	김중권 (의대 63)	한광수 (의대 57)	HOUSTON
김동훈 (법대 56)	오광동 (공대 52)	홍영석 (공대 58)	김영서 (상대 54)	• • • • • •	윤정나 (음대 57)	김연국 (수의 74)	홍 훈(문리 75)	
김명자 (법대 52)	오인환 (문리 63)	홍영옥 (음대 54)	김용건 (문리 48)*	필라델피아	이규호 (공대 56)	나혜원 (약대 55)*	• • • • • •	김기준 (공대 61)
김병오 (의대 63)	우제형 (상대 54)	• • • • • •	김종수 (수의 73)	PA/DE/S.N ^J	이만택 (의대 52)	박창익 (농대 64)*	테네시	김민자 (사대 58)
김복순 (사대 55)	원종민 (약대 57)	워싱턴주	김태형 (의대 57)		이병인 (수의 73)	윤기향 (법대 65)	TENNESSEE	김장환 (공대)
김안정 (문리 59)	유덕영 (공대 57)	WASHINGTON	김학래 (공대 60)	강영배 (수의 59)	이성득 (문리 67)*	이재덕 (법대 60)		김태훈 (공대 57)
김영기 (공대 73)	유영준 (의대 68)*		김현학 (의대 57)	강준철 (사대 59)	이성숙 (가정 74)	임필순 (의대 54)	김경덕 (공대 75)	김한섭 (의대 53)
김용덕 (의대 53)	유정식 (수의 60)*	고광선 (공대 57)	박천기 (법대 55)	고영자 (치대 63)	이지춘 (미대 57)	전영자 (미대 58)*	박재현 (자연 81)	박석규 (간호 56)
김응환 (치대 88)*	이규양 (문리 62)	김교선 (법대 54)	백성식 (약대 58)	길정숙 (사대 53) ⁵	전무식 (수의 61)	최준희 (의대 58)	서갑식 (공대 70)	박유미 (약대 62)
김종호 (약대 68)*	이내원 (사대 58)*	김석희 (의대 54)	손종수 (의대 50)	김규화 (상대 63)	전방남 (상대 73)	한기빈 (공대 52)*	• • • • • •	박태우 (공대 64)*
김진수 (의대 60)	이문항 (공대 46)*	김인배 (수의 59)	안승덕 (상대 51)*	김영남 (의대 61)	전희곤 (의대 54)	한성수 (의대 54)	하와이	유한창 (공대 69)
김진은 (사대 55)	이선구 (문리 65)*	김재훈 (공대 72)	오경호 (수의 60)	김영우 (공대 55)	정덕준 (상대 63)	홍순호 (수의 74)	HAWAII	이규진 (약대 60)
김 철 (의대 62)	이수안 (공대 54)	김주응 (의대 56)	유성무 (상대 66)*	김재술 (약대 48)	정용남 (문리 60)	황현상 (의대 55)*		이길영 (문리 59)
김희주 (의대 62)	이승원 (공대 62)	류성렬 (공대 72)	유우영 (의대 61)	김정현 (공대 68)	정태광 (공대 74)	• • • • • •	김달옥 (사대 55)	이영옥 (가정 74)
남욱현 (경영 84)	이연주 (치대 88)*	박진수 (의대 58)*	임수암 (공대 62)	김주진 (법대 54) ⁵	정홍택 (상대 61)	커네티컷	김승태 (의대 57)	진기주 (상대 60)
남춘일 (사대 69)	이영수 (공대 59)*	박찬형 (의대 56)*	임종원 (의대 54)	김진우 (공대 63)*	제갈은 (문리 59)	СТ	유재호 (문리 57)*	최관일 (공대 54)
류재풍 (법대 60)	이윤주 (상대 62)	변종혜 (법대 58)	정량수 (의대 60)	김한중 (공대 56)	조영호 (음대 56)		윤제중 (농대 54)	최성호 (문리 58)
박용걸 (약대 56)	이재승 (의대 55)*	안승적 (농대 59)	정선휘 (공대 65)	김현영 (수의 58)	조정현 (수의 58)	김기훈 (상대 52)*	이재형 (수의 61)	최용천 (의대 53)*
박유진 (미대 58)	이주희 (음대 89)	윤석진 (문리 64)*	최종진 (의대 63)	김 훈 (의대 71)	조화연 (음대 64)	유시영 (문리 68)	장광수 (사대 51)	탁순덕 (사대 57)
박인영 (의대 69)	이준영 (치대 74)	윤태근 (상대 69)	한 호(상대 62)	노은숙 (약대 53)*	주기목 (수의 68)	임경빈 (농대 78)	차응만 (의대 58)	
박일영 (문리 59)	이종두 (의대 57)	이길송 (상대 57)	• • • • • •	문대옥 (의대 67)*	지흥민 (수의 61)	주공로 (공대 68)*	최경윤 (상대 51)	[비고]
박은희 (미대 68)*	이진호 (공대 46)*	이순모 (공대 56)	중부텍사스	배성호 (의대 65)	진병학 (의대 57)	최수강 (의대)	• • • • • •	필라 김주진 (법
박형순 (의대 54)	전희순 (간호 76)*	이원섭 (농대 77)	MID-TEXAS	서의원 (공대 66)	차호순 (문리 60)	최창송 (의대 54)*	하트랜드	대 54), 길정숙 (사
박홍우 (문리 61)	정계훈 (문리 55)	이회백 (의대 55)		서재진 (공대 47)	최정웅 (공대 64)	홍성휘 (공대 56)	IA/MO/KS/NE/	대 53) 동문은 1년
백 순(법대 58)	정기순 (간호 67)	하주홍 (경영 77)*	박준섭 (약대 63)	서중민 (공대 64)	최준희 (의대 58)	• • • • • •	AR/OK	회비로 각각 \$500
변만식 (사대 49)*	정세근 (자연 82)	• • • • • •	이영재 (상대 58)	성정호 (약대 59)	최종무 (상대 63)*	캐롤라이나		보내 옴
서윤석 (의대 62)	정원자 (농대 62)	유타	• • • • • •	손재옥 (가정 77)	최현태 (문리 62)	SC/NC/KY	구명순 (간호 66)*	
서휘열 (의대 55)	정평희 (공대 71)	UTAH/NV	북부텍사스	송성균 (공대 50)	한수웅 (의대 55)		김경숙 (가정 70)	
석균범 (문리 61)	정희연 (의대 66)		LA/DALLAS	송영두 (의대 56)	한웅오 (보건 70)	김기현 (문리 51)*	김시근 (공대 72)*	
송병준 (약대 68)	조경윤 (공대 67)*	김인기 (문리 58)		신선자 (사대 60)		마동일 (의대 57)	도태영 (사회 93)	
심준보 (상대 55)	조세진 (의대 65)	이 관(공대 55)	김옥균 (공대 54)	신성식 (공대 56)		성예경 (치과 54)	성낙준 (사대 68)	

- 4			
,	ч	1	٦.
	_	v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	!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	00	\$75 (2018. 7 ~ 2019. 6)	☐ \$240 (2018. 7 ~ 2019. 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 \$50	00	□ \$150 (2018. 7 ~ 2020. 6)	☐ \$480 (2018. 7 ~ 2020. 6)	□ Charity Fund (나눔) \$
□ \$1,00	00	□ \$3,000 (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 Brain Network 후원금 \$
□ \$	_		general@snuaa.org	□ 모교발전기금 \$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29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 (L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A,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운 (상대 /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CareMax Pharmacy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ichung@taycoeng.com /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Dr. Lee, Chong Do. Dennis 이종도 (공대 66)

Tel: (626)448-7870 / Fax: (626)448-3955 3870 Baldwin Avenu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한태호 변호사 볍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 83)

Tel. (213) 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E-mail: iminusa@iminusa.net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l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i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기타

300호 | **2019년 4월 호**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종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Wesley & Associates, CPA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건축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십니다.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212) 768-9144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십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원고를 모집합니다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편집부>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동물병원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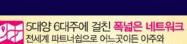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www.facloan.com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kccnews.net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제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9개국 선교지 12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디자인)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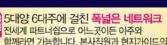
정세근 (자연대 82)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33년 이상 어느곳이든 <u>5스타</u> 전문성과 노하우 너비스와 가이드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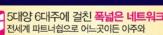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15 OFF 213-388-4000 문의: D.C. 상품권

31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흥조 (치) · 이영묵 (공) · 이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옥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헌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헌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300호 | **2019년 4월 호**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als Jan			
S.CA/NV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davidmin920@gmail.com	Feb-Jan			
북가주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SANFRANCISCO	차기회장				- Jan-Dec			
뉴욕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NY/NJ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 July-Jun			
뉴잉글랜드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MA/RI/NH/ME/VT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 Jul-Jun			
북텍사스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LA/DALLAS				·	- Jan-Dec			
록키마운틴스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MT/CO/WY/NM	차기회장				- Jan-Dec			
미네소타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MINNESOTA	차기회장				- Jan-Dec			
샌디에고	 회장	신욱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SAN DIEGO	차기회장				Nov-Oct			
시카고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IL/IN/WI/MI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 Jan-Dec			
애리즈니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차기회장	(O 50)	2_0 2.1 2001	, same girian.com				
애리스리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앨라스카 ALASKA		_ "3 (0 " 33)	33. 223 0001	Jasjyson enounan.com				
0.711.77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오레곤 OR/ID	차기회장	E 8 7 (8 -11 03)		bryanchon@gmail.com	Jan-Dec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오하이오 OHIO	차기회장	이 6구 (6대 72)	014-370-3701	minshake@amentech.net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noulsbung[@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paulchung5@gmail.com	Jul-Jun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헌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T = 101 (E = 1 + 1)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			
WIID-TEXAS								
필라델피아 PA/DE/S NI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PA/DE/S.NJ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FLORIDA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_			
SC/NC/KY	차기회장							
커네티컷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СТ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TENNESSEE	부회장				33.7 Dec			
하와이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HAWAII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Jai Juli			
하틀랜드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IA/MO/KS/NE/AR/OK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Jcp-Aug			
휴스턴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HOUSTON	부회장				Jan-Dec			
7U LCL HJ = U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las De			
캐나다 밴쿠버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 Jan-Dec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 Mar-Feb			



서울대 미주등장외보 원인인호 발행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의 62)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aa.org / www.snuaa.org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2만명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왜 다들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가입하시길 원하실까요?

예방 의한도 최고!

시니어분들의 건강 지킴이 서울 메디칼 그룹의 주치의들입니다. 주치의도 전문의도 크고 탄탄한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275 GREEN 2875 GREEN





213.389.0077 • 1.800.611.9862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엔덤 블루크로스 유마나 유나이티드 이지초이스 센트랄헬스 헬스넷 헬스넷 blue ♥ promise 헬스케어 블루실드 브랜드뉴데이 스캔 얼라이언먼트 바이탈리티 blue V prand new day Conscione Anthem Humana UnitedHealthcare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 허가(Referral)가

아주 빠른 서울 메디칼 그룹을 택하시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으세요!